금주의 법구-〈법구경〉
스스로 자제하여 법에 따라 살며
정진하는 이는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7월 29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12호 2016년 8월 31일 수요일

호국불교 무시하는 정부 '호국의승의날' 제정 잰걸음

조계종 8월 17일 호국의승의날 자료집 발간… 각계 제정 목소리 높아

불교계가 2014년부터 추진해온 '호국의승의날' 제정이 정부의 반대 속에 표류하고 있다. 조계종의 정무적 접근과 함께 불자들의 관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은 8월 17일 〈호국의승의날은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는 자료집을 발간하고 본격적인 제정 활동에 나섰다.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호국의승 제향

호국의승의 날은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데 온 몸을 바쳤지만 역사에서 소외된 '의승(義僧)' 들을 기리는 날이다. 1789년 10월 15일 표충사 호국의승 제향을 기반으로 10월 15일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불교계는 임진왜란의 서산, 사명, 처영, 영규, 희묵대사 등 수많은 의승군들을 비롯해 남한산성과 북한산성 축조 및 방어, 독립군 지원활동 등 '호국불교' 활동을 펼쳐왔다. 전쟁 참여가 계를 파하는 일이라는 비난에도 나라를 지키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선 것이다.

그럼에도 의승군을 조명하는 일은 불교계 내에서 산발적으로만 이뤄져 왔다. 현재 의승군을 기리는 제향, 추모재, 수륙재를 봉행하는 사찰은 해남 대흥사(4월 서산대재), 밀양 표충사(10월 사명대전), 공주 갑사(10월 영규대사 대재), 정읍 내장사(6월 희묵대사 다례재), 구례 화엄사(10월 칠의사 의승병 제향) 등 15곳에 달한다. 하지만 의승군 전체를 총괄하는 국가나 종단차원 기념의식은 없는 실정이다. 〈표 위〉

조선시대까지 진행된 의승군에 대한 국가행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맥이 끊겼다. 이에 조계종은 2014년 6월 25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위원장으로 '호국의승의 날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했다. 종단 산하 불교사회연구소는 2011년 8월 호국불교 1차 학술세미나를 시작으로 승장 및 의승군 활동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조사 · 발굴해 〈한국 호국불교사찰 자료집〉 〈한국호국불교의 재조명〉 등 자료집을 펴냈다.

조계종이 2014년부터 1년간 전개한 호국의승의날 제정 서명운동에는 이미 6만30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례적인 수준이다.

호국의승 기리는 불교 행사

해남 대흥사	호국대성사 서산대재
밀양 표충사	사명대사 추모대재
공주 갑사	영규대사 및 800의승 추모재
정읍 내장사	희묵대사 추모다례재
여수 흥국사	임진왜란 의승수군 수륙재
구례 화엄사	칠의사 항일의병 제향
금산 보석사	영규대사 추모재
옥천 가산사	영규대사 추모재
강화 전등사	삼랑성역사문화축제
부산 국청사	임진왜란 의승군 천도재
고성 운흥사	의승군 추모영산재
남한산성 장경사	의승군 수륙무차대법회
부산불교연합회	사명대사 추모재

정부 관심 없어 산발적 제향
일제시대 맥끊긴 후 복원 미흡
정부 "기념일 많아 제정 곤란"
교과서 내 의승군 내용 누락

불교계 6만3000여명 서명
자료집 발간 등 2년째 추진
"승려독립운동가 등 포함해야"

이다.

호국의승, 의병과 성격이 같다?

하지만 정부는 호국의승의날이 의병의날과 성격이 유사해 기념일 제정을 미뤄왔다. 의병의날은 2010년 5월 제정된 바 있다.

기념일 제정과 예산 배정 등을 담당하는 행자부 의정담당관실 김영곤 사무관은 "의승군의날은 의병의날 등과 유사성이 있다. 또한 현재 40여개에 달하는 기념일이 있고, 또 각계에서 기념일 제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모두 들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종교계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기념일 제정 필요성은 공감했다. 문체부 종무실 신용선 사무관은 "의승군의날은 호국불교를 상징하는 날로 불교계 숙원 사업으로 알고 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조계종 등의 요청을 받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 측은 자료집을 통해 "혹시 호국의승의날 제정이 특정 종교를 두둔하는 편향정책으로 본다면 승려라는 이유로 의승군의 공훈을 정당히 평가하지 않은 조선시대 유학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적인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승군에 대한 역사교육도 누락되고 있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 6종 중 의승장의 이름을 본문에 소개한 경우는 단 1종(비상교육 교과서)에 불과하다. 승려의 의병가담 사실을 본문에 명시하는 교과서는 모두 3종으로 나머지 2종은 지도 속에 서산대사와 사명당을 적시할 뿐이다. 교과서 1종의 경우 지도조차 없어 이 교과서로 배우는 학생들은 호국의승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주현 조계종 대외협력실 팀장은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의승군은 잊혀지고 말것"이라며 "행자부 측에서 호국의승, 호국불교 기념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을 전제조건으로 걸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국민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본다. 관심있는 국회의원과 불자들의 입장을 모아 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호국의승의날 제정을 독립운동까지 범주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불교사회연구소 박미경 선임연구원은 "2019년 3 · 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2017년부터 연구활동을 진행한다. 일제강점기 스님들의 항일운동을 기리는 사업"이라며 "호국의승 범주에 승려 독립운동활동도 포함시켜야 호국의승의날 제정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청년들이여, 사찰에서 희망을 보라 합천 해인사(주지 향적)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희망캠프를 열었다. 취업, 결혼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 청년들에게 휴식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캠프에 참여한 청년들과 해인사 스님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손을 흔들고 있다. 노덕현 기자

제 28차 WFB 서울총회, 9월 27~29일까지

주제는 '생활의 불교화, 불교의 생활화'

학술포럼 · 선언문 채택 등 다채
참가자 도라전망대서 평화발원

진각종 종조인 회당 대종사가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주창하며, 1958년 태국 방콕서 열린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총회에 참석한 지 58년 만에 대한불교 진각종이 'WFB 서울총회'를 개최해 주목을 끈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정 정사)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서울 종로 AW컨벤션센터와 하월곡동 총인원 일대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주제로 제28차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서울총회를 연다. 또한 대회 기간에는 제19차 세계청년불자우의회 서울총회와 제10차 세계불교대학 서울총회도 함께 봉행된다.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8월 23일 총인원서 간담회를 열고 "이번 총회의 주제는 진각종 회당 대종사의 종교적 실천이념을 담은〈실행론〉에 적힌 '생활 밖에 불법이 없고, 불법 밖에 생활이 없다'는 내용과 맥락을 함께 한다"며 "올해 진각종 창종 70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대사회적 역할을 재고하는 데 있어서 이번 총회는 중요한 변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의 공식 행사는 27일에 WFB 대표자회의(AW컨벤션센터), WFB 서울총회 개회식(진각종 총인원), 공식 환영만찬 및 문화공연 순으로 시작한다. 특히 2부 축하연설에서는 참석한 각국 WFB 지도자 10여 명이 '생활의 불교화, 불교의 생활화'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3부 문화공연에서는 '미래를 향한 5가지 진각의 서원과 메시지'를 주제로 작곡가 김희경 씨를 비롯해 타악그룹 야단법석 등이 전통 국악과 무용, 퍼포먼스, 영상 등이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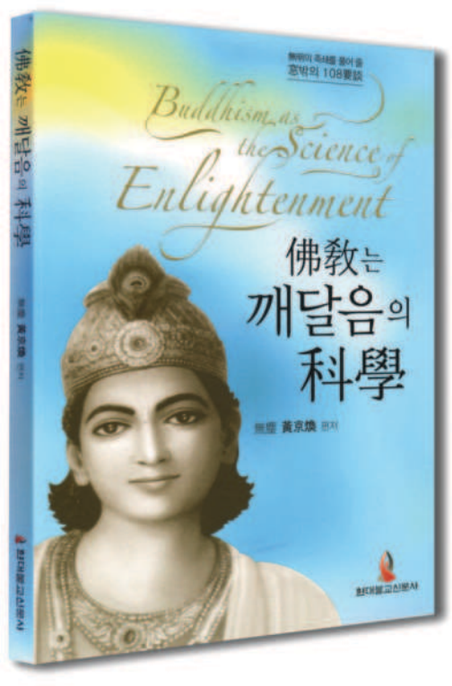
이어 28일에는 1차 전체회의 및 상임위원회 분과회의, 2차 전체회의, '봉사를 통한 생활불교의 실현'을 주제로 불교복지봉사포럼이 열린다. 마지막날인 29일에는 '현세정화와 밀엄정토'를 주제로 한 WFB 학술포럼과 폐회식 및 선언문 채택, 도라전망대, 판문점 문화답사 등이 마련된다. 특히 판문점에서는 전 세계 불교지도자들이 세계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발원할 예정이다.

한편 WFB는 국제사회에 불교의 역할을 다하자는 취지 아래 종파를 초월해 1950년 스리랑카서 창립한 지구촌 최대 불교협의체다. 50개국 250여 불교단체가 동참하며, 2년마다 총회를 열어 세계 불교도들의 화합을 다지고 있다. 특히 세계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WFB 총회가 우리나라서 열린 것은 1990년 제17차 서울총회, 2013년 여수총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김주일 기자

사고
본사 사옥 이전
현대불교신문사가 신사옥을 마련해
8월 26일 이전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근본불교의 마르지 않는 샘에서 길어올린 영원한 자유인의 길



무진 황경환 편저 | 신국판 | 280쪽 | 값 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주문
054)744-8211~2
팩스
054)744-8213

無明의 족쇄를 풀어 줄 窓 밖의 108 要談
佛教는 깨달음의 科學
Buddhism as the Science of Enlightenment

황경환은 하늘이 손수 만들어낸 아름다운 작품이다. 그가 펴낸 수상집(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의 원고를 읽어 보며 불교의 참뜻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나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가 원효나 의상 같은 고승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칸트나 헤겔 같은 논리를 가졌다는 말도 아니지만, 신라의 옛 서울에 터를 잡고 작은 사업을 하나 일으켜 최선을 다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을 본받으려는, 또 하나의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인간 황경환의 모습이 아름다워 이 글을 쓰는 바이다.
– 김동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총판 운주사 02-3672-7181

무진 황경환 선생이 엄선한 주옥같은 108요담을 읽다보면, 많은 경전을 섭렵했을 뿐만 아니라 경전에 대한 깊은 통찰에도 새삼 옷깃을 여미게 된다.
– 퇴현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대표)

이 책은 …두 가지 면에서 매우 특기할 만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근본 불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다. 그가 인용한 불설은 주로 5부 니까야라는 문헌인데, 부처님의 초기 음성에 대한 가장 가까운 내용들이다. 둘째는 불교 사상의 현대적 해석이다. 과학적 지식이나 사회적 요청들을 불교적 시각에서 풀어쓰려고 하는 노력이 값지다. 따라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길잡이가 될 수 있겠고, 또 익숙하게 불교적 신행에 젖어 있는 분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鄭柄朝 (동국대학교 교수, 전 한국불교연구원 원장)



"거친 4해(四海)를 오온(五蘊)의 쪽배 타고 노젓는 뱃사공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파(世波)가 그대 앞에 닥친다 해도 그것에 정복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오직 이 길을 꿋꿋이 걷고 또 걸어서 언젠가 그대가 의지하고 있는 오온의 쪽배가 가라앉기 전에 반드시 법을 보고 법을 알아 도(道)와 과(果)를 성취토록 하소서."
– 발원문 중에서

외국인 정서 반영한 습의 교육 필요

현각 스님 발언으로 본 한국불교– ③ 외국인 승려는 데코레이션

현각 스님이 쏟아낸 한국불교에 대한 실망감이 파장을 만들고 있다. 특히 외국인 스님들에 대한 조계종 폐쇄성을 두고 혁신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각 스님은 2~3년간 7~9명의 조계종 외국인 스님들이 환속했고, 상좌들을 조계종으로 출가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까지 말했다.

그렇다면 외국인 스님들이 조계종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8월 4일자 조계종 외국인 스님 현황을 보면 총 131명의 스님들이 조계종 소속으로 정진하고 있다. 비구 스님이 54명, 비구니 스님이 26명으로 사미와 사미니가 51명이다. 문제는 2011년 기점으로 입교하는 행자 수가 15명 수준에서 5명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이런 여파로 화계사에 있던 외국인행자교육원도 올해 초 폐쇄됐다.

류창무 교육원 팀장은 "전체 외국인 스님 수는 유지되고 있지만 행자 수 감소 문제가 크다. 출가자 감소라는 전체적인 영향과 한국불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한국불교에 대한 매력은 무엇일까. 외국인 스님들이 한국행을 택하는 주된 원인과 한국불교 승려교육의 현실이 맞지 않음을 의미한다.

조계종 외국인 스님 현황의 출신 국가를 분석해보면 미국 출신이 30%(39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스님 중 70%가 미국와 유럽 출신이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불교의 선수행, 특히 간화선을 접하고 한국행을 택했다.

화계사 국제선원 도감 혜통 스님은 "대부분 화두를 참구하고 있다. 선수행의 경우 프라이버시 존중 등 개인 위주인 외국의 문화와도 맞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런 스님들에게 경전 공부와 의식 습의는 어떻게 보면 장식에 불과해 보일 수 있다. 현각 스님은 이에 대해 언어장벽의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불교를 익히는데 너무 많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조계종 승려교육은 한국어를 기반으로 진행하기에 외국인 스님들은 사미계 수계 전 한국어 능력시험(TOPIK) 1급을 취득해야 한다. 여기에 경전 강독을 위해서는 한문 공부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숭산 스님이 세운 관음선종의 교육과 대비된다. 계룡산 무상사의 경우 영어를 기반으로 법회와 경전 강의, 간화선 인터뷰 등이 진행된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관음선종 세계분원을 통해 유입되는 스님들이 줄어드는 원인도 있다"고도 말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숭산 스님이 외국인 출가자들을 위해 관음선종을 만든 것은 사려깊은 접근 방법이었다. 미국이나 유럽의 수행자들이 조계종으로 출가해도 문화와 전통이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종도로 살아가는 것을 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조계종 내에 가두려 하지 말고 각국 수행자들이 일정기간 공부하고, '미국불교조계종' '유럽불교조계종'을 창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조계종은 큰 형님으로 내국인 습의사와 외국인 강사진을 배치해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 간화선 수행자
일률적 잣대 들이대
영어법회·해외교구 등 활용

이와 함께 조계종이 현재 보유한 해외교구를 비롯해 국내 다양한 포교분야에 외국인 스님들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포교에 원력을 세운 스님들이 포교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미숙 화계사 종무실장은 "외국인 스님들 중 한국 내 포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다. 이들을 위한 포교의 문호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화계사의 경우 일반신도들이 참여하는 영어법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외국인 스님이 법사로 나선다. 또 지난해까지 영어동아리반이 구성돼 외국인 스님들이 이를 지도한 바 있다. 전 종무실장은 "해외 포교의 여러 현장에서 원력있는 외국인 스님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각국 문화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한국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출가 희망자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친절한 배려가 필요하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서는 열린 마음부터 가져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교계 '케이블카 반대' 공론화… 사찰은 '침묵'

환경위, 설악산 등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반대 표명

전국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자연 및 식생 파괴를 우려한 국민적 반발 여론이 확산된 가운데, 설치 추진 지역 인근 사찰들은 모른 척 뒷짐 지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어 비판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및 불교계 시민사회·환경 단체가 설악산·속리산 등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앞장서 반대하지만, 정작 지역사찰들은 '민심 눈치보기'에 급급해 불교 근본의 생명존중 가치관을 상실했단 지적이다.

특히 법주사는 최근 일부 언론이 "법주사가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지자체에 적극 협조하겠다 밝혔다"고 보도해 불교계 및 환경단체의 지탄을 받았다. 본지가 법주사에 확인한 결과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명확한 동의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긍정적 자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안춘석 법주사 종무실장은 "지자체서 오랫동안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해 와 '노선 등 설치 계획을 확정하면 그때 검토하겠다' 말했을 뿐 완전 동의한 것은 아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케이블카 밖에 없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다. 하지만 아직 어떤 계획도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문화재위원회가 8월 24일 심의회의서 '사업보류'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인제군 사회단체들이 '내설악 백담사 케이블카 추진 위원회'를 발족하고 케이블카 추진에 적극 나섬에 따라 설악산 자연 생태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 가운데 설악산 신흥사는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예정된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반대편에 위치해 직접 영향을 받지 않지만, 산양 서식지 등 자연파괴 사회적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도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신흥사는 올 6월 '교구본사별 사회노동환경위원회'가 처음으로 설치돼 지역사회 환경 현안에 대해 적극적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창설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유명무실' 해져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신흥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서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사찰 측서 거론된 바가 있느냐'는 질문에 "종무회의 때 따로 얘기된 적은 없다. 사찰이 환경 보존을 위해 나서야 하는 건 맞지만, 개발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나설 수 없는 입장"이라며 "사회노동환경위원회가 설치된 사실은 알지만, 활동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케이블카 설치에 적극 협조하는 곳도 있다. 마이산 탑사는 경내 요사채서 150m 이내 지점에 탑승장이 설치될 예정이지만, 관광자원 활성화 차원서 진안군에 협조하는 상황이다.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은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는 불교계 입장은 이해하지만, 주말이나 휴가철엔 관광객이 몰려 사찰 인근 교통이 거의 마비되기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에 동의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케이블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불교적 생명존중 사상 입각해
'자연보호' 목소리 높아지지만
지역사찰 민심 눈치 보기 '급급'
관광자원 활성화 동조 이유도
"이해하지만 불교적 소신 지켜야"

이 같은 사찰들의 방관적 혹은 협조적 태도에 환경전문가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이병인 부산대 교수는 사찰이 지역사회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하더라도 '해야 할 일'과 '해선 안 될 일'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케이블카 설치 자체가 '꼭 필요한 사업인가'란 타당성부터 점검해야 한다. 케이블카 설치 예정 구역의 대부분이 자연공원인데, 이를 훼손하는 데 있어 원칙과 명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사찰이 협조하는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정길 에코붓다 대표는 "개발이 지역사회에 당장 이익을 미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환경 보존이 최선"이라며 "직접 피해를 받지 않더라도 사찰이라면 평상시 지역사회에 환경보호 인식을 넓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역에 국한된 이익만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수암, 이하 환경위)는 8월 23일 공식 성명서를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은 환경부가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자체 제정한 가이드라인 기준에 부적합했음에도 불구, 지난해 8월 28일 조건부 승인됐다"며 "무리한 승인이란 비판과 사회적 우려가 계속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은 "조계종단 환경위원회와 시민단체가 합세해 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지역사회가 비판하더라도 불교계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아름 기자**

대중공사 "멸빈자 구제 방안 있어야"

사부대중 100인대중공사서 11월 종회에 요청키로



대중공사 입재식에서 참석한 대중들이 대중공의를 통한 종단 발전을 서원하고 있다.

조계종 100인 대중공사가 94년 멸빈자뿐만 아니라 통합종단 이후 모든 멸빈·징계자들에 대한 사면과 경감, 복권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안을 조계종 중앙종회에 요청키로 했다.

조계종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대중공사 추진위원회(위원장 도법)는 8월 25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종단 현대사의 성찰과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불교'를 주제로 제3차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이날 대중공사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장 지홍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을 비롯해 출·재가 위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공동추진위원장 지현 스님은 입재식에서 "사부대중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들을 대중공사에서 잘 살피고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에서 과거사의 매듭을 화합과 개혁의 입장에서 잘 풀어내자"고 말했다.

이어 94년 서의현 전총무원장 재심판결을 계기로 지난해 9월 출범한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가 1년간 활동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부대중위원회는 재심호계원의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결정 무효화, 멸빈과 사법제도 개선안 마련 등 4가지 안을 제안했다.

사부대중위원회 총괄처장 일감 스님은 "94년 종단개혁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종도대중의 공의에 반하며 종헌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인 결정으로서 이를 무효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과 포교원장 지홍 스님 등은 사면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은 더 나아가 "통합종단 출범 이후 모든 멸빈 및 중징계에 대한 것으로 범위를 넓힐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제안에 따라, 94년 멸빈자뿐만 아니라 통합종단 이후 모든 징계자들에 대한 사면·경감·복권 조치를 검토해줄 것을 11월 종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관심을 모았던 서의현 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참회문 발표는 취소됐다. **노덕현 기자**

"직선제 법계별 여론조사 하겠다"

직선제특위, 8월 23일 입장 밝혀

법랍 10년 이상의 법계 중덕과 정덕 이상의 스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한 직선제 특위가 법계별 선거권 부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원장 직선선출제 특별위원회(위원장 태관, 이하 직선제 특위)는 8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직선제 특위는 지난 2차 회의에서 결정한 선거인단 구성을 확정하고 선거권 부여와 관련해 불교사회연구소 등과 여론조사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종헌과 종법 개정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태관, 선광, 정산, 목종, 무구 스님을 위원으로 선출했다.

직선제 특위 소위원회가 9월말까지 개정안을 성안하면 특위는 10월 경 공청회를 열고 이 안을 11월 정기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유쾌하고 풍성한 정토세상 회집본 『무량수경』

| 정토수행을 안내하는 종합지침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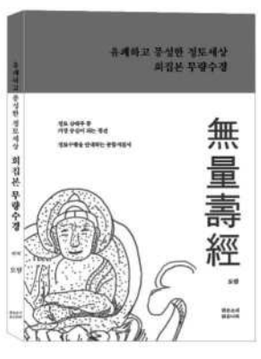


왕생으로 가는 최상의 지름길, 염불수행 학문적 이해와 수행 실천 함께 해나가야
정공법사의 강의로 수행 이정표 제시

정토수행을 안내하는 종합지침서인 무량수경은 중국에서만 12차례 번역되었고 5종의 판본이 남아있다. 무량수경은 5종의 판본 가운데 대표 판본을 선정할 수 없어 대중화 될 수 없었는데, 이는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 여러 판본의 무량수경에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5종 판본의 내용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회집된 것은 1932년 하련거 거사에 의해서였다. 도암스님의 『무량수경 회집본』은 하련거 거사의 '불설대승무량수장엄청정평등각경佛說大乘無量壽莊嚴淸淨平等覺經'을 번역한 것이다.

불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면 먼저 불교의 종지 즉, 방법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 근기로 배울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의 종지를 경전의 용어로 말하면 '제법실상을 명확하게 아는 것' 입니다. 현대의 말로 표현하면 일체법의 진실한 모습을 분명하게 아는 데 있습니다. _ p28

시방세계에서 왕생한 일체의 사람은 모두 칠보 연못의 연화 속에서 자연히 화생으로 태어나며, 맑고 텅 빈듯하며 노병사가 없는 신체를 모두 받는다. 그리고 다시는 3악도와 고난이란 명칭도 듣지 못한다. 가설방편으로도 그 명칭이 전혀 없거늘, 하물며 실재의 고난이 있겠는가? 단지 자연스럽게 즐거운 음성만이 있을뿐이니, 이 때문에 그 국토를 극락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_ p231



도암 번역 | 340쪽 | 17,000원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26번길 18 동광빌딩 201호 Tel. 051-255-0263 Fax. 051-255-0953 전자우편. puremind-ms@hanmail.net 월간·도서출판 밝은소리밝은나라

“신도 청탁 들어주다간 김영란법 저촉”

조계종, 8월 22일 종교계 최초 ‘김영란법’ 특강

“김영란법에 대해 불교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청탁자로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범위는 국민 모두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도들의 민원 청탁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8월 22일 조계종서 종교계 최초로 관련법 특강이 열렸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박민영 동국대 법대 교수는 “이번 김영란법에는 종교인의 민원 청탁 예외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보시와 공양을 미덕으로 여겨온 불교계가 특히 법의 취지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국가권익위에서 발간한 자료를 통해 불교계가 주의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박 교수는 “가장 먼저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금품수수나 청탁은 모두 금지하고 있다. 불교계에서 문화재위원이나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 학교법인 임직원 및 언론사 대표 등으로 있는 스님들은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은 직무연관성에 대해 외경주의, 즉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판단하기에 본인이 직무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해도 신고 등으로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시·공양 미덕인 불교계
제3자 청탁시 법 저촉돼
공익 목적에도 예외조항 없어

이어 박 교수는 “청탁자의 경우에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제3자를 위해 청탁하는 경우에도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신도들의 부탁 등으로 인해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스님들이 신도 고충을 공익목적에서 대신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교인의 이러한 활동이 김영란법의 예외조항이 되지 않은 부분은 종교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김영란법 시행 조계종 종무원 특강에서 참석한 스님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박 교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은 제재가 없다. 반면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민영 교수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포상도 명시돼 있으며 그 수준도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은 30억원, 일반고발은 5억원 등 매우 높기 때문에 초기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스님과 불자들이 이 법을 숙지해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은 교구본사 등과 협의해 전국 사찰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관련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김영란법 Q&A, 불교계 궁금증

답변=박민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

Q. 불교계에서는 성지순례를 가는 일이 많습니다. 기자 동행취재 시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요.

기자는 언론사의 직원으로 공적업무 종사자에 해당되며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입니다. 취재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출장 중 숙식제공 등과 관련해 동법 5조 3항 6호가 적용되는데요. ‘통상적 범위’ ‘일률적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사유로 면책됩니다.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의 모든 대회나 행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Q. 스님들의 경우 문화재 분야나 인권 분야 등 많은 공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스님들도 김영란법 범위에 해당하는지요.

‘공무수행사인’이며 주어진 당해 공무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언론사 임원·대표 스님도 포함됩니다.

Q. 템플스테이 등 국가예산 사업에서 사업 운영을 위한 청탁 등을 하게 되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요.

사안에 따라 분리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홍보비 지출은 적법하지만 ‘사업상 청탁’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위배된 경우라면 이 법에 적용됩니다.

Q. 불교계에서 행사 진행 전 언론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기도 합니다. 언론홍보를 목적으로 한 접대행위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요.

법령에 저촉됨이 없거나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법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의 금품’으로 한정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 법의 특성상 ‘불확정 개념’이 적지 않고, 시행 전인 까닭에 앞으로 명확한 기준이 형성되리라 생각됩니다.

‘법주사 관람료 폐지’ 추진하는 충청북도

충청북도가 관광활성화를 위해 속리산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주사도 관람료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심스러운 모양새다.

충북도는 “법주사, 보은군 등과 문화재관람료 폐지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내년 1월 관람료 폐지를 목표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8월 24일 밝혔다.

충북도는 “법주사 측의 전향적인 생각으로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위한 대화의 틀이 마련됐고, 문화재관람료 수입금 검증과 손실분담금 등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보은군과 함께 법주사 관람료 폐지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원금 산정은 최근 3년 관람료 수입을 토대로 할 계획이지만 법주사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8월 25일 열린 3자 실무협의 후 법주사 측은 “결정된 것은 없다”며 “관광활성화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만 있었을 뿐 관람료 폐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옛 선지식 구법정신 새기고 전법 매진”

조계종 교육원, 24~30일 中 선종사찰 순례



중국 선종의 기원과 발전을 살펴보기 위한 순례가 시작됐다. 조계종 교육원은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서안, 낙양, 정주 일원에서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과 함께 하는 중국 선종 사찰 순례’를 개최했다.

24일 서안에 도착한 순례단은 중국 3대 사찰로 손꼽히는 법문사를 방문하고 순례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법문사는 부처님 불지사리가 봉안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날 증명법사로 참여한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은 입재사를 통해 옛 선조 스님들의 치열한 구법 정신을 새기고, 이 시대에 불교의 가르침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순례단 대중에게 당부했다.

원각 스님은 “1천년 전 무상, 원칙 스님 등이 몇 달, 몇 년에 거쳐 왔던 길을 우리는 하루에 왔다”며 “이처럼 세상은 편리해지고 발달했지만, 사람들은 행복해지지 않았다. 각박해지고, 소통이 되지 않으며 정신문화는 피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만큼 포교하기 좋은 시대는 없다. 법문을 하면 당장 방송과 인터넷 매체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옛 선조들은 서역에서 불경을 가져와 역경을 하고 법을 전했다. 우리 역시 이 같은 정신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순례단은 법문사 주지 현공 스님과 환담을 나누고, 법문사가 2007년 개원한 불학원의 교육 시설을 견학했다.

현공 스님은 “한국과 중국의 불교는 유구한 역사 안에서 교류를 나눴다. 중국은 개혁 개방 전 불교의 명맥이 잠시 끊겼지만, 한국은 그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현대에 들어 법문사는 도선사와 우호 사찰 협약을 맺는 등 다방면의 교류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교류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순례 기간 동안 ‘길상묘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원각 스님은 “현대사회는 많은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와 너의 입장을 내려놓고, 중간마저도 내리고, 대화해야 지혜가 나온다”면서 “세계인들이 조화·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게 불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순례단은 구마라집의 역경처 초당사, 해동화엄 개창조 의상 스님 주석처 지상사, 밀교 총본산 홍선사, 현장 스님이 서역에서 가져온 불경을 보관한 대안사, 숭산 소림사 등을 순례한다.

중국 서안=신성민 기자

군산 동국사서 미군 특별보고서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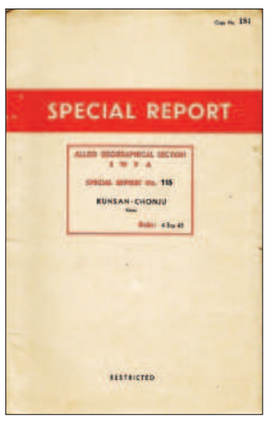
동국사 소장 근대문화유산 학술조사 중

국내 유일 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주지 종걸)서 해방직후 미군이 작성한 영문판 특별보고서가 발견됐다. 이 보고서는 동국사가 보유하고 있는 6,000여종에 이르는 근현대 자료에 대해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지원으로 군산대학교 박물관이 진행하고 있는 학술조사 과정서 발견됐다.

맥아더 장군의 명령에 의해 작성된 문건으로 보이는 이 특별보고서는 1945년 9월 4일자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서남태평양사령부(SWPA,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는 한국에 인천-경성(SR109), 부산(SR111), 군산-전주(SR115) 등 3개 지역, 일본에 9개 지역, 구 소련에 1개 지역 등 모두 13개 지역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보고서는 군산과 전주지역에 대한 보고서 문건이다.

첫 부분은 12장에 걸쳐서 다양한 지리적 정보, 군사 시설 및 산업 시설, 항만, 철도 등 교통·통신정보와, 활주로 길이 및 좌표, 방송 시설, 생활 실태, 기후 정보를 담고 있다. 둘째 부분은 9장의 사진과 9장의 지도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태평양전쟁 말기에 가미카제(神風) 자살특공대를 양성하는 곳으로 알려진 다치아라이 비행학교(大刀洗飛行學校 群山分校所) 정보도 담겨져 있어 주목된다.



군산 동국사서 발견된 특별보고서 표지.

이번에 발견된 특별보고서를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해방공간까지의 중요한 역사적 사료 발굴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동국사는 소장된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목록화하고, 향후 소장 문화유산의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가치를 평가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깨달음센터 수행법

1단계 : 화엄경 간경 및 사경
2단계 : 화엄선(禪) 수행
3단계 : 무의자재 수행
4단계 : 동시실천 수행
5단계 : 수인원통 수행

제 3차/4차 공개강좌

고통 해탈문

2016년 여름 현재, 진귀수행자는 법회, 기도, 신도단련, 천도재 및 각종 수련 등등을 일체 하지 않는 수행자로서, 오직 화엄경 연구와 역경작업에만 전념하고 있으며, 특히, 공개강좌 외의 법문요청, 강의요청 및 친견요청 등등을 일체 사절중에 있으며, 혹 간절하고 간절한 친견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소속 사찰에서 만배(10,000배)X1:1친견시 공개강좌는 제외)를 5일 이내에 마친 후 확인증을 제출하신 분에 한하여 친견을 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 개 강 좌 일 시 : 제3차 공개강좌: 2016년 10월월 23일 (일) 오후3시
제4차 공개강좌: 2016년 12월 18일 (일) 오후 2시
• 공 개 강 좌 장 소 : 깨달음센터 (대구 수성구 소재)
• 참석대상 및 참가비 : 누구나, 선착순 33명 제한, 참가비 무료
• 예약신청 및 문의처 : 1899-9532 (예약접수 하신 분만 참석 가능 함.)
• 강 사 : 깨달음센터 - 방장 진귀

깨달음 센터
주지 원일 합장

일 주 문



만공선사 학술대회

정묵 예산 수덕사 주지 스님은 9월 8일 오후 1시 수덕사 황하정루서 '제8회 만공대선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보덕사 호수음악제

정안 당진 보덕사 주지 스님은 8월 28일 보덕사 경내 특설무대서 '제9회 보덕사 호수음악제'를 개최했다.



장애부모 휴식캠프

조석영 강북장애인복지관장은 8월 23~25일 제주도서 2016 서울시 장애돌봄가족 휴가제 지원사업 '휴(休) 캠프'를 실시했다.

신임 불교중앙박물관장 현조 스님

자승 스님 "문화재 보존 · 환수 노력" 당부



조계종 신임 불교중앙박물관장에 현조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22일 불교중앙박물관장 현조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신임 관장 현조 스님에게 "신심과 원력,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면서 "문화부와 협조를 통해 문화재 보존 및 환수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조 스님은 혜정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수계했으며, 제14, 15대 중앙종회의원, 국제선센터 주지,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를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인사 **동국대 경주캠퍼스 실 · 팀장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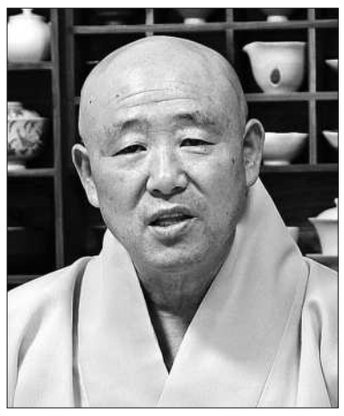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는 8월 23일자로 직원 실 · 팀장에 대한 일부 인사발령를 진행했다.

직위 승진
▷ 교무처 교무팀장 임종민
▷ 파라미타칼리지 학사운영실장 민준석

전보
▷ 인재개발처 취업지원센터장 겸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창조일자리사업팀장 겸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진로취업컨설팅팀장 이원재
▷ 인재개발처 학생서비스팀장 겸 인재개발처 참사람재능나눔센터장 겸 인재개발처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임명수
▷ 총무처 총괄지원팀장 구경덕
▷ 총무처 재무회계팀장 겸 산학협력단 회계감사팀장 최수호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장 권영섭
▷ 비서실 비서팀장 김성규
▷ 도서관 학술정보팀장 성채용
▷ 불교문화대학(원) 학사운영실장 박득현

"개산대재서 예수재 전통 계승"

개산 1222주년 행사 여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10월 1~9일 의례 · 문화행사 등 불교문화체험 '축제의 장'으로 전통방식 재현하는 생전예수재 무형문화재 등재 추진 계획도

오는 10월 1일(음력 9월 1일) 개산 1222주년을 맞는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 사진)가 다양한 불교문화행사를 마련하고, '강남 지역 불교문화 중심지'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8월 22일 경내 다래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22주년 봉은사 개산대재 및 불교문화축제' 계획안을 발표했다. 10월 1~9일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기존 개산대재 형식서 탈피, 생전예수재 및 수륙재 등 불교 의례를 비롯해 산사음악회 · 사진 공모전 · 행복 나눔 바자회 등 문화 행사를 함께 진행해 눈길을 끈다.

이는 봉은사를 강남 지역 불교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단 주지 원명 스님의 뜻으로 이뤄졌다.

"강북과 강남은 같은 서울이지만, 강북에 비해 강남은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이에 개산대재를 9일 간 진행함으로써 하나의 지역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강남에 불교문화를 널리 전파하고자 합니다."

특히 10월 8일과 9일 오전 9시~오후 6시 각각 진행되는 생전예수재(불교서 살아 있는 사람의 사후를 위하여 공덕을 쌓는 종교의식)와 수륙재(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외로운 영혼과 아귀를 달래는 재)는 개산대재 일정 중 봉은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윤달이 있는 해에만 약식으로 진행돼 온 것을 전통방식 그대로 계승, 대중에 첫 선을 보이는 자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원명 스님은 "옛 문헌을 보면 봉은사가 조선 말기에 생전예수재를 최초로 봉행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특히 봉은사는 과거부터 생전예수재와 수륙재를 양일에 걸쳐 연이어 진행한 전통이 있다. 이러한 역사를 토대로 봉은사 생전예수재가 무형문화재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원명 스님이 언급한 바와 같이 봉은사는 이번 개산대재를 기점으로 '봉은사 생전예수재 보존회'를 무형문화재로서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이는 생전예수재가 일회성 의례가 아닌 봉은사를 대표하는 문화재로 자리 잡길 바라는 원명 스님의 서원이다.

"문화재로 지정된 것과 안 된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연속성'의 문제입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될 경우 미래세대까지 전승돼 봉은사의 대표적인 문화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명 스님은 불교 의례와 문화 행사를 함께하는 의미에 대해 '포교방편'이라 설명했다.

"시대가 변한 이유도 있지만 현대인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가장 친근히 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일반인들에게 불교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러한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세부일정은 △역대조사 다례재(10월 1일 오전 11시) △정대불사(10월 3일 오전 11시) △산사음악회(10월 7일 저녁 예불 후, 10월 4~6일 오후 12시 30분~1시 30분) △봉은사 역사사진 공모전(9월 23일 모집 마감)과 사진전(10월 1~7일) △신도회 행복나눔 바자회(10월 1~3일) △사찰음식 도시락 경연대회(10월 1일 또는 2일 예정) △봉은사 그림그리기 대회(9월 10일) 및 전시(9월 26일~10월 9일) △문화체험한마당(10월 1~3일) △신행단체 수계식(10월 2일 오후 1시) 등이다. 자세한 사항 봉은사 홈페이지 참조.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탄자니아 학교에 1억 5000만원

수불 스님, 8월 23일 (재)아름다운동행에 기탁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탄자니아 농업기술학교 건립 지원금을 쾌척하며, 학교 건립에 큰 힘을 실었다.

수불 스님은 8월 23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아프리카 탄자니아 학교 지원금 1억5000만원을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전달했다.

수불 스님은 "아프리카에선 처음으로 종단이 큰일을 하는데,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자승 스님은 "장기적 운영을 위해선 튼튼한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학교 건립 막바지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박아름 기자**

종단협-민평통, 대북사업 MOU

남북교류 · 통일의식 고취 사업 등 전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는 8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이수구)와 대북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대북 · 통일 정책 현안 △북한의 종교자유와 인권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및 남북교류 사업 △국민 · 청소년 통일교육을 비롯한 국민 통일의식 고취 △기타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윤호섭 기자**



고운사 각성 스님 종경록 특강

8월 22~26일까지 화엄문화템플관서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는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경내 화엄문화템플관에서 각성 스님의 종경록(宗鏡錄) 특강을 진행했다.

고운사는 매년 해제 때마다 각성 스님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강연에는 조계종 제16교구 본말사 대중 스님 100여 명이 참석해 강의를 경청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공무원 조직적 신행 장려"

서울 조계사서 공불련 첫 정기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는 8월 19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서 첫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김상규 회장은 인사말서 "정기법회는 매주 셋째주 금요일 조계사서 봉행된다"며 "앞으로 정기법회를 통해 △법사의 전문적 지도로 더 깊은 공부하기 △도반들과 다독이고 경쟁하며 시너지 효과내기 △소통이 화두인 현재 정기적 모임을 통해 도반끼리 원활한 대화하기 등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희 수습기자**

평창 대흥사, 태권도 템플스테이

승승장구태권도연합회 90여 명 참가



대구 태권도장 연합체 승승장구태권도연합회와 평창 대흥사(주지 인산)는 8월 18~20일 대흥사 일원서 '태권도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학생과 지도교사 90여 명은 물놀이 · 운동회 · 담력훈련 · 불교문화체험 등을 하며 2박3일간 심신을 단련했다. **윤호섭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6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 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9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전국염불만일회는 8월 19일~21일 통도사에서 제6차 염불정진대회를 개최했다. 입재식서 사부대중은 3일 간 정진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영축산 장엄한 환희의 아미타염불”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 염불대회 현장

힘찬 북소리와 함께 환희의 염불 소리가 경남 양산 영축산을 가득 채웠다. 염불행자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을 믿고 정토 극락세계를 기뻐하며 펼친 야단법석의 소리였다.

전국염불만일회(회장 안동일)는 8월 19일~21일 통도사서 제6차 염불정진대회를 개최했다. 염불정진대회는 동산반야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염불행자들이 모여 함께 정진하는 자리다. 전국염불만일회는 1998년 8월 한국서 6번째로 결성된 염불만일결사로, 현재 19년 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염불정진대회에는 염불행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첫날인 19일 염불행자들은 입재식에 임하며, 3일 간 염불을 통한 수행 정진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설법전서 열린 입재 법회에는 동산법주 법산 스님, 통도사 총무국장 도문 스님, 포교국장 선본 스님이 참석해 격려했으며 이상우 전국만일염불회 대회장과 안동일 회장은 대회 기간 동안 염불행자들이 깨달음의 큰 유익을 얻길 발원했다.

법산 스님은 “3일 동안 신나고 멋있게, 또 힘차게 염불하며 건강을 얻고 지혜를 증득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상우 대회장은 “통도사서 탐심, 진심, 분별심 모두 내려놓고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내려놓은 그 마음에 아미타 부처님 명호로 채워 가피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자”고 참가자들을 환영했다.

안동일 회장은 “1998년 8월 6일 금강산 건봉사에서 만일염불 입재식을 하고 오늘(19일)이 6589일 째이다. 8월 30일이 되면 6600일로 약 3분의 1 시점을 지난다”며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다함께 모든 공덕을 지니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염불행자들은 입재식 후 신중작법, 48대원 및 나무아미타불 1만송 염불 등으로 정진을 이어갔다. 이밖에도 20일~21일에는 새벽 예불, 행선 염불 및 부도전 참배, 염불 정진 및 공연, 회향식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염불정진대회는 통도사 백련암서 진행돼 특별함을 더했다. 백련암 감원 원산 스님은 지난 2008년 백련암서 ‘만인동참 만일염불회’를 결사하고 염불수행 중이다. 현재 원산 스님의 염불수행은 2848일(20일 기준)이 되었다. 또한 백련암 누각서 발견된 〈백련정사 만일승회기〉에 따르면 1600년 전 염불회를 뜻하는 백련결사가 백련암서 진행됐음이 밝혀졌다.

백련암을 방문한 전국염불만일회는 먼저 천수북을 통해 시작을 알렸다. 이어 이종현 이사장의 인사로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원산 스님은 참가자들에게 법문을 통해 염불 수행의 수승함을 전했다. 전국염불만일회는 한국춤, 다도 포퍼먼스, 영남농악 등 다양한 공연으로 축하무대를 한바탕 펼쳤다.

원산 스님은 “염불도량 백련암에 온 염불행자들을 환영한다”며 “염불결사 후 혼자서 수행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북과 징을 치며 신나게 하니 더 힘이 난다”며 참가자들을 반겼다. 이어 스님은 “염불은 일심칭명,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 한마음으로 부를 때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이를 것”이라고 가르침을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중들은 함께 아미타부처님을 부르니 더욱 힘이 난다고 말했다. 또한 염불 수행은 결코 하근기 수행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안원숙(56 · 서울 천호동) 씨는 “염불수행은 사람의 근기와 상관없이 모두 함께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모여 힘차게 수행을 할 수 있다”며 “우주 법계가 아미타부처님의 광명으로 비춰진 세상인데 참석자들이 한마음으로 염불하는 이 행사는 역사적인 자리다”고 말했다. 또한 안 씨는 “염불 수행에 앞서 동산불교대학을 다니며 공부를 하고 수행을 실천하고 있다. 염불 수행은 삶에서 번뇌를 잡아주고 변화를 이끌어 주는 정말 좋은 수행”이라고 언급했다.

서의석(58 · 서울 구로동) 씨는 “법장 비구의 큰 서원을 믿고 아미타 부처님을 염불하면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며 “우리의 목적지인 극락세계에 공덕의 힘으로 갈 수 있다는데 기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서 씨는 “우리 공덕은 극락에 가기엔 부족하지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아미타부처님을 믿으니 이곳에 머무는 순간도 극락이 된다”고 기뻐했다.

전국염불만일회의 역사적 근원은 통일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통일신라기를 전후해 불교가 대중화 되며, 758년 (경덕왕) 발징화상이 간성 건봉사서 염불만일결사를 맺은 것이 시작이다. 그 후 1802년(순조 2년) 제2차 염불만일회를 결성하고 1850년에 회향했다. 3차는 1851년(철종2년) 벽오유총 스님, 4차는 1881년 만화관준 스님, 5차는 1908년 금암의훈 스님이 개설했다. 지금 진행 중인 제6차는 1998년 8월 해상 스님(건봉사 주지), 보광 스님, 고 김재일 법사(동산반야회 회장) 등 공동대표가 3000여명의 불자와 함께 시작했다. 참석자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염불 수행을 하고 있으며 1년에 1차례 정진대회를 열고 있다.

19년 동안 참석한 구본설 이사는 “그동안 무수한 아미타 도량과 여러 사찰을 다니며 매년마다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불교에서는 염불과 선을 수행의 요체로 삼고 있는데 전국염불만일회가 우리나라 염불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현 이사장은 “이번 염불정진대회는 슬로건처럼 ‘힘차게, 신나게, 멋있게’ 염불을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어울림에 더욱 신경을 썼다”며 “선도 중요한 수행법이지만 원산 스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염불선도 중요한 수행법이다. 염불의 수승함을 알고 3,000명이 함께 시작했던 처음 그 열정으로 많은 이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원산 스님이 직접 적은 교훈을 이종현 이사장에게 전달하는 모습.



제6차 염불정진대회에 참석한 불자들이 목탁과 북소리에 맞춰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며 정진 중이다.



염불정진대회를 알리는 천수북 공연 모습.

19~21일 통도사서 아미타불 염불
아미타염불행자 300여명 참석
아미타 연고지 백련암도 방문
염불 수행 중인 감원 원산 스님
“一心으로 부를 때 극락 이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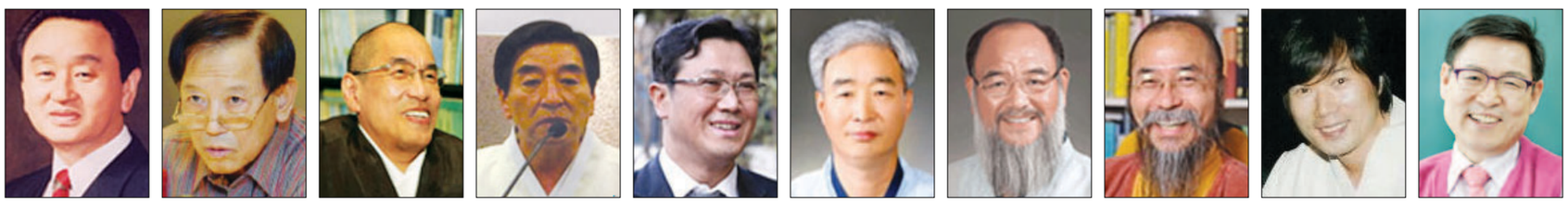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3기 모집



석하 소재학 박사 / 동양 미래학자, 미래예측학 박사 1호
명리학자 (공식전공 사주명리학 박사 1호)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주임교수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명리미래예측전공 석좌교수
재)하원정미래학회 회장, 글로벌융합인재포럼 회장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원장, 동양미래예측연구소장
서울신문 STV그룹 고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자문위원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및 발전위원장, Earist University 학장 역임

대한민국 易學, 사주명리학 최고 교수진!!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파 장문, 최고 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관상 등 기존의 역학에서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 이론체계로 정립되고, 검증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을 통해 이 시대 최고의 동양미래예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졸업 후에도 원우회와 동문회 활동 등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소통과 융합을 통해 이 시대 역학계, 동양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인재 양성 과정!! 자신의 학문에 대한 현위치 파악 및 역학계 위상정립!!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주임교수), 백운산회장, 꼴관상 신기원교수, 학선 유래웅교수, 백민교수, 정창근교수, 박청화교수, 최명우교수,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이상광교수, 박성희교수, 문봉 박재범교수, 정경연교수, 신석우박사, 내정법 김인순박사, 명리학과 한의학의 만남 김민재박사, 박용남교수, 샤머니즘박물관장 양종승박사 외
〈특강교수〉 미래특강-세계미래포럼 이영탁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장관), 가수 김태곤박사, 최면 NLP상담기법 설기문교수, 멘탈리스트 이진규소장 외

대 상 명리학 초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학력무관)
일 정 9월12일~12월 19일, 매주 월(月)18:30~21:50/수료 후 심화과정, 선택
자격증 문광부 등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소정의 절차)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 상담사

입학식 9월 12일(월) 17:30 ~ 미래학특강 외
등록금 240만원
지원방법 FCA홈페이지(www.gfca.kr)입학지원서 다운받은 후 메일(gfca@daum.net) 발송
특 전 동국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동문자격 / 동문활동 및 수료 후 과정, 학술활동 등 교수진과 동문간 지속적 관계유지

※ 장소 : 동국대학교 ※ 홈페이지 : www.gfca.kr ※ 문의 : 02-3443-4984 ※ 등록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 동국대

山寺서 얻은 삶 의욕… "난 살아야 해!"

[스토리텔링] 불교상담개발원 자살예방 템플스테이

삶의 끝자락서 만난 상담
고즈넉함 · 여유로운 정취와
유경험자들의 무한 지지에
자살 생각했던 과거 벗어나


그림 · 강병호

20대 · 무직 · 백조 · 소외감….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하는데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았다. 한강다리 위를 몇 번이나 찾아갔는지 셀 수도 없다.

'맏이인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나만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까? 우울한 걸 스스로 알면 우울한 게 아닌가?'

답 없는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렇게 더 살아서 뭐하나 이제 그만 끝내야겠구나' 생각하며 컴퓨터 앞에 턱을 괴고 앉아있었다. 그러다 인터넷에서 글 하나를 봤다. 자살예방 템플스테이 '마음 돌아보기, 어루만지기'. 불교상담개발원이란 이름이 눈에 띄었다. 딱히 절에 다녀본 적은 없는데….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신청했다.

세상이 녹아내릴 것만 같은 폭염을 뚫고 가평 백련사라는 절에 도착했다. 아늑했다.

'절이 원래 이렇게 편안했나?'

같이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대부분 부모님과 비슷하거나 연배가 조금 더 높은 어르신들이었다. 이분들도 사는 게 힘들어 오셨겠지…. 각자 별칭을 짓고 자기소개를 했다. 소개를 마치고 기억에 남는 별칭을 꼽을 때 몇몇 분들이 내 얘기를 했다. 공감이 간다고, 나도 그랬다고.

해질 무렵 108배를 했다. 근데 명칭이 나를 깨우는 108배다. 나는 지금 잠들어 있는 걸까. 번민에 휩싸인 채 절을 했다. 잔잔한 음악과 묵직한 내레이션이 마음에 와 닿았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내려놓아야하는지 몰랐는데 정작 절하는 동안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개운했다.

이튿날엔 기다란 잣숲길을 걸었다. 중간에는 다 같이 평상에 누워 명상을 체험했다. 번잡한 도심을 떠나 조용한 산속에서 여유를 느껴본 적이 없어서일까.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자연이 속삭이는 듯했다.

이곳에서 함께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많은 어르신들은 막내인 나에게 무한한 지지를 보내주셨다. 우리집에서는 내가 맏이였는데…. "산전수전 다 겪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어린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겠느냐"는 얘기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저 서서 눈물만 흘리고 있으니 한 어머님께서 다가와 안아주면서 등을 토닥였다. 그래, 어쩌면 나는 울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울어버리면 정말로 주저앉을까 무서워 꾹꾹 참아왔다. 비워내야 다시 채울 수 있음에도 비우지 못해 나를 짓누르는 세상의 무게에 깔려버린 게다.

감사한 마음에 어르신들과 연락처를 교환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도 샘솟았다. 그까짓 세상 다시 한번 부닥쳐보자고 다짐했다. 템플스테이를 오기 전 이게 마지막이라고 마음먹었던 것은 그런 생각이 마지막인 것으로 변했다. 백련사를 떠나며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졌다. '오길 참 잘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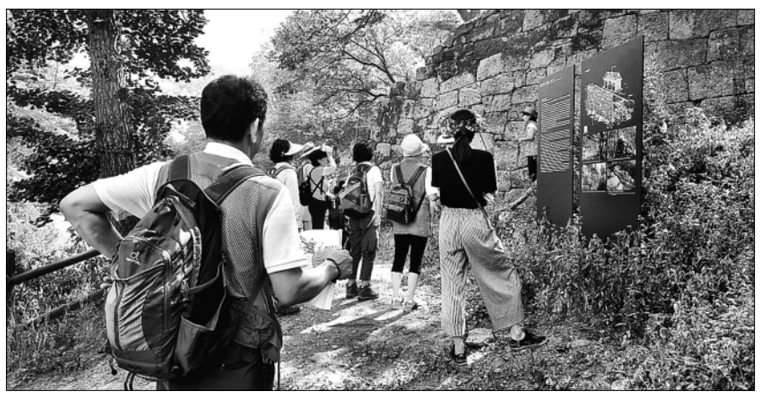
그리곤 한강다리 위에 서 있던 과거의 내가 떠올랐다. 그 녀석에게 마음속으로 외쳤다. "난 살아야 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이 기사는 8월 20~21일 가평 백련사에서 열린 불교상담개발원 자살예방 템플스테이를 사후 취재해 1인칭 시점으로 재구성했다.

역사 · 숲해설, 템플스테이로 '한 번에'

북한산 중흥사, 9~12월 역사 · 숲해설 템플스테이


8월 13일, 중흥사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북한산성 성벽 앞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북한산성 내 유일한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중흥사가 북한산의 역사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기획했다.

중흥사(주지 지홍)는 산을 찾기 좋은 9월부터 12월초까지 '역사해설과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 와 '숲해설이 있는 템플스테이' 를 실시한다. 각각 경기문화재단 문화관광해설사와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의 해설이 곁들여진다. 모두 당일 프로그램으로 서울 근교라는 장점을 살려 가족들이 쉽게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템플스테이는 오전 문화관광 · 자연환경해설사 안내에 따라 계곡길을 걸으며 시작된다. 북한동역사관서 중흥사로 이동하며 북한산 풍광을 감상하고, 우산각 · 산영루를 지나 중흥사에 도착한다. 점심은 발우공양이 진행되며 오후에 와선 · 스님과의 차담 · 소감문 작성 등이 이뤄진다.

중흥사 측은 "북한산은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이 산재해 있음에도 등반객들이 그냥 지나치기 십상이다. 칠유암 같은 경우에도 모르고 보면 너럭바위에 불과하지만 알고 보면 조상의 여유와 낭만이 담긴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템플스테이는 짧은 답사가 아닌 3시간에 걸친 명상여행이기도 하다.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템플스테이에는 신앙을 강요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누구나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희망자는 중흥사 홈페이지(jhs.or.kr)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메일(dongmyong@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02)355-4488

한편, 중흥사는 북한산성 입구서 도보로 1시간 소요된다. 가는 길에 북한산을 둘러싸고 있는 산성과 중간에 축조한 중성, 시체를 옮겼던 시구문 등을 볼 수 있다. 또 고려시대 재상 민지(閔漬)가 여섯 벗들과 놀았다는 칠유암, 경치가 빼어난 곳에 있는 산영루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윤호섭 기자

2016 조계종 포교자격 응시자 총 726명 합격

2016년도 조계종 포교자격 응시자 중 총 726명이 합격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8월 18일 제3차 포교원 회의를 통해 2016년도 종단포교자격 응시자 중 최종 합격자를 심의 의결해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포교원에 따르면 제21회 일반포교사는 2월 20일 실시한 필기고사 합격 대상자 675명 중 2차 평가인 지역활동 · 봉사활동 · 팀활동을 거쳐 최종 578명이 합격했다.

제10회 전문포교사는 137명이 신행분야 및 전문분야 면접위원으로부터 심층평가를 받아 129명이 합격했다. 아울러 제21회 국제포교사는 19명이 선발돼 외국인 템플스테이 지원 및 국제포교 통번역 분야서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포교원은 이번 종단포교자격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9월 24~25일 제5교구본사 법주사서 품수식 및 팔재계 수계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

윤호섭 기자

"불교 사회공헌, 신도들이 이끈다"

중앙신도회, 행복바라미 워크숍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8월 20~21일 대전시 K-WATER교육원서 '2016 행복바라미 워크숍' 을 개최했다.

100일간에 걸쳐 전국 300개 사찰을 순례하며, 지역불교계 현안을 돌아본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전국신도 교류와 결집의 장을 마련했다. 이 자리서 신도들은 불교계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8월 20~21일 대전시 K-WATER교육원서 '2016 행복바라미 워크숍' 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4년째를 맞았지만 올해는 전국 사찰순례에 대한 성과보고와 신도결집이라는 취지 아래 의미를 더했다.

워크숍에서 이기흥 회장은 "부처님 가르침인 중도와 중용, 관용과 포용 사상을 실천해 양극화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현상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면서 "신도회가 추진하는 행복바라미 운동이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불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행복바라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행복바라미운동은 2013년부터 시작된 불교계 대표 사회공헌사업이다. 2014년 1억1165만원, 2015년 1억7106만원을 모금해 지역 복지사각지대를 위해 전달했으며 올해는 현재 2억 원 가까이 모연했다. 중앙신도회는 매년 늘어가는 모금액을 더욱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고심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사찰 의견을 담은 백서를 발간해 총무원에 전달하는 한편, 행복바라미 모금함 300개를 지역사찰에 비치할 계획이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법문서 "중앙신도회의 전국사찰 순례가 종단 최초의 일"이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워크숍은 이외에 △SNS나눔문화캠페인 활용방안(윤쟁 SNS대변인) △행복바라미 특강 △단체별 나눔토론 △교구신도회 임원 간담회 △현암사 답사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정종섭 체육인불자연합회 고문, 유민봉 前 청와대불자회장, 권선택 대전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내 손으로 한 생명 살릴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직원들이 직접 응급조치법을 배우러 나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8월 23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6층 프로그램실서 '기초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을 실시했다. 재단 직원 20여명은 약 3시간 진행된 교육서 붕대처치법,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배우며 응급상황 대처법을 숙지했다. 박아름 기자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 신 대 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6년 8월 10일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6년 9월 6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서무산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 운영 행정 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천도재 의식 및 권공의식
◇원서교부 : 2016년 8월 10일 부터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6년 9월 1일 목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2016년 불교학과 49기 신입생모집 [2년과정]

✲ 불교학과 [9월 3일(토) 오후 5시 개강]
▶ 토요반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목요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통신반 : CD배송

학 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과 목	1. 근본불교 2. 반야심경 3. 유식불교	4. 대승불교와 천수경 5. 아미타경과 정토 6. 화엄경	7. 부처님생애와 인도불교 8. 중국 · 한국불교 9. 법화경	10. 불교의 체계적 이해 11. 불교문화 12. 선불교
교수진	법산스님(본대학장) 최봉수교수 김경집교수 박종교수	김형준교수 묘주스님 차차석교수 이미령교수	주명철교수 정성준교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	종석스님 정엄스님 황순일교수 활안스님 김호귀교수 정병조교수

■ 모집인원(불교학과) | 120명 (토요반, 목요반, 통신반)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6년 8월 1일 부터 ■ 문 의 | 02)732-1206 ~ 8
•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 연합회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 선 · 명상학과 (2년과정) 개강 [9월 8일(목)] ✲ 불교미술학과 (3년과정) 개강 [9월 8일(목)]
✲ 불교다도학과 (2년과정) 개강 [9월 6일(화)] ✲ 불 교 대 학 원 (3년과정) 개강 [9월 6일(화)] 삼국유사, 마하왁가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사무처 : (우) 0315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02) 732-1206~8, FAX 02) 732-1207 www.dongsanbud.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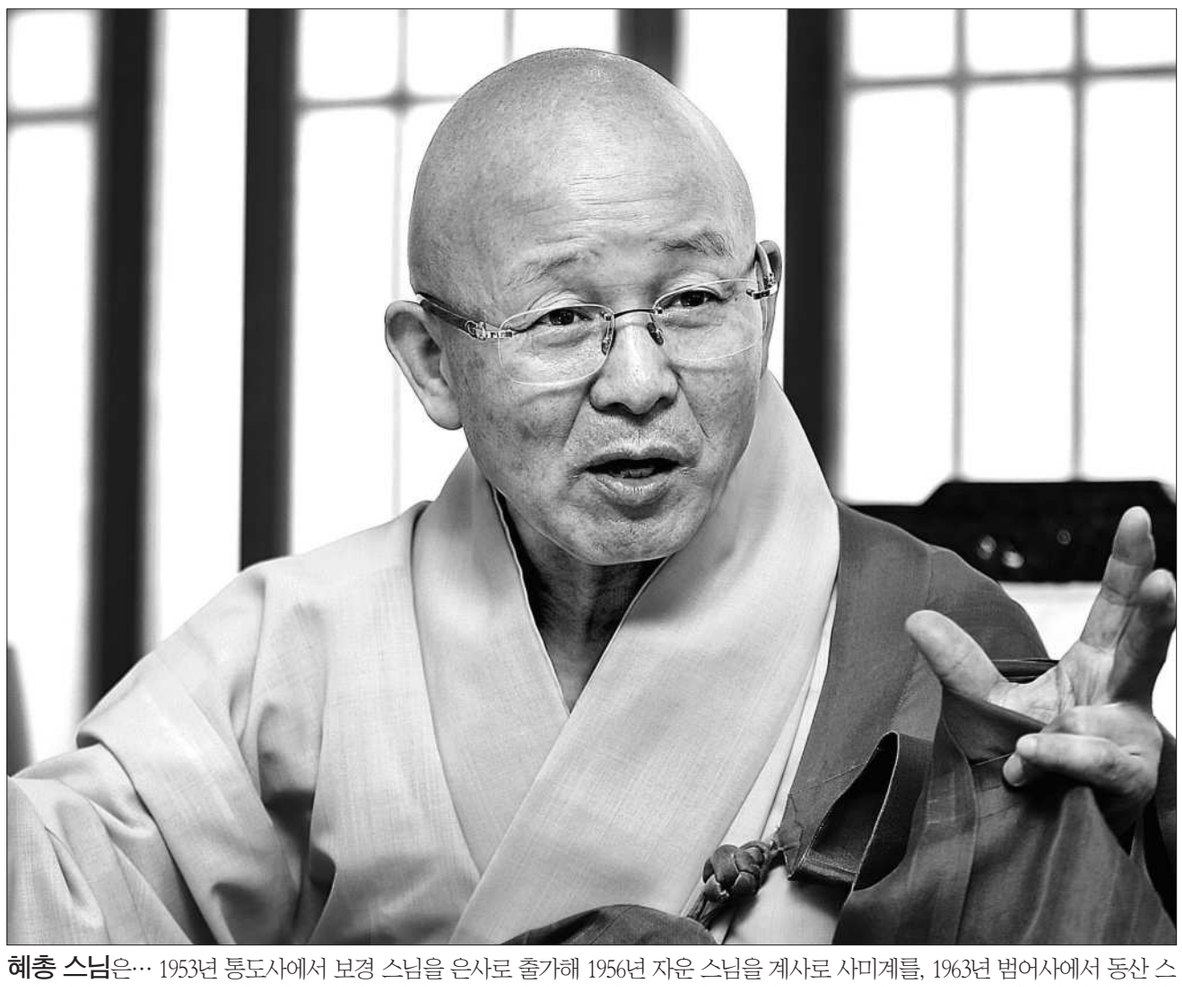
“좋은 마음이 좋은 행동으로 이어진다”

조계사 일요법회… ‘불교는 인과응보’

대각회 이사장 혜총 스님

태자 싯타르타의 삶은 출가 후 부처가 되기 전까지 매순간 의심과 정진의 연속이었다. 깨달음을 얻은 뒤엔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며 스스로 올바른 마음을 확고히 할 것을 당부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할까? 대각회 이사장 혜총 스님은 8월 7일 봉은사 일요법회서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이루고자 정진하되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해선 안 된다. 하나만 성취하면 삼라만상을 다 갖는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리=이승희 수습기자



혜총 스님은… 1953년 통도사에서 보경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6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3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 범어사승가대학과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동국대 불교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총재 등을 역임했다.

一念으로 정진한 부처님

불교는 한마디로 인과응보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를 아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입니다. 가만히 명상에 들어 생각해보면,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존재들이 유일하고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뿐인 마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지으며 작용합니다. 지금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교에선 이것을 번뇌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한 생각에 몰두해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면 몰입하지 않고 성취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이루어집니다. 부처님도 6년간 목숨을 내놓고 고행한 뒤 부처가 됐습니다. 그냥 태어나자마자 부처님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잡념을 떨쳐내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한 한 생각에 일념(一念)하니 부처님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쇠는 용광로에 들어가 뜨겁게 단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쇠붙이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용광로에 한 번 들어갔다 와야 사람이 됩니다. 노력한 자만이 쟁취할 수 있고, 쟁취한 자만이 누릴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자유를 선서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 대통령이 조언을 구하기에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명예, 돈, 사랑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가지려 하면 망한다”고요. 만약 명예 하나만 가지려고 한다면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돈만 가지려 노력해도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구하는 사람이 돈만 생각해야지 명예와 사랑까지 욕심내는 것은 마음이 일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성취하면 삼라만상을 다 갖는다는 것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셔야 합니다. 중생의 마음은 이것저것 다 갖고자 하지만 사실 하나의 일만 완수해도 다른 모든 문제들이 풀립니다. 마치 사람의 윗옷을 끌어당기면 그 사람 전체가 당겨오고, 그물을 잡으면 그물 속 고기들이 다 딸려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에서 근본적인 하나를 완수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마음인데, 이 마음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좋은 마음, 또 하나는 좋지 않은 마음입니다. 부처님 표현이 참 부드럽고 좋습니다. ‘나쁜 마음’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좋지 않은 마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듣기 좋은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입에서 상대방에 이익이 되는 말이 나옵니다. 몸짓과 행동도 봉사하는 좋은 몸짓이 나오게 됩니다. 마음이 좋으니까 말이 좋게 되고, 말이 좋으니까 행동이 좋게 됩니다. 이 점을 알아차리는 게 불교 공부입니다.

만약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험담과 같은 나쁜 말이 나옵니다. 험담이 나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짓도 나쁘게 나옵니다. 요즘 공중화장실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사건들이 이런 나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에 정념하지 않고 잡념이 들어 다른 행동을 하는 것도 나쁜 행동입니다. 신문을 보니 대낮에 버스운전기사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운전대를 놓은 사이 버스가 미끄러져 1명이 죽고 5명이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운전기사는 죽어도 핸들을 놓으면 안 되는데 자신이 볼일이 급하다고 중간에 차를 세워 사고가 났습니다.

자기만 앞세워 길거리에 차를 아무렇게나 세워두는 행동은 나쁜 마음이 지은 나쁜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을 했다면 그 결과를 주시해야 합니다. 결국 나에게도 해롭고 상대방에게도 해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해로운 행동은 해로운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허무맹랑한 논리를 펼치신 게 아닙니다.

선택한 결과는 내 몫

이런 마음을 알아차렸다면 어떤 마음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좋은 마음을 택하니 이번 생이 좋아지고, 집안 식구들과 주변 이웃들도 행복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다음 생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만약 나쁜 마음을 선택한다면 이번 생도 해롭고, 내 가족과 이웃도 해로워 결국 다음 생에 더 나쁜 운명이 닥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 점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불교신자입니다.

이런 점들을 깨달으면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게 됩니다. 혼자 염불을 외고, 참회를 하고, 참선을 하고, 경전을 읽으면서 홀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두고 “코뿔소의 뿔과 같이 혼자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들을 두루 경험한 뒤 확실한 입지가 섰을 때 그 길을 혼자 가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참된 생각을 품은 이와 동행한다면 더 기쁘고 좋을 겁니다.

일념 없이는 성취 없다
마음 따라 결과 달라져
무언가 이루고자 한다면
절박함으로 정진하라

그러니 우리들은 확실한 마음을 잘 세워야 합니다. 어떤 마음도 허투로 내지 말고 작은 행동 하나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길을 걷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개미를 밟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체는 똑같이 평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마음먹고, 말하고, 몸짓하는 차이에 따라 현상세계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나타난 현상이 달라도 그 안에 자리한 불성은 모두 평등하다는 가르침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물을 볼 때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존재 자체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도적떼가 한 스님의 물건을 빼앗고 스님을 풀잎에 묶어 두고 달아났습니다. 길을 걷다 스님을 발견한 사람이 “왜 꼼짝도 않고 있습니까”하고 묻자 스님이 “내가 일어나면 풀이 뽑혀 죽을 것 같아서 그렵니다”라고 답했단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님이 바보처럼 보일지 몰라도 바보가 아닙니다. 모든 존재를 부처님처럼 여기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 있는 스님입니다.

너도, 나도 불성을 지녔다는 가르침을 전하는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불교신자라면 ‘모든 존재는 다만 그럴 이유가 있어서 그런 존재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각 존재의 내면세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불교는 궁극적으로 의심을 해야 하는 종교입니다. 의심이 없었다면 부처님도 깨달을 수 없었을 겁니다. 모든 존재는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데 역사상 이 같은 인생을 벗어나려 고민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하는 의심에 몰입한 부처님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밥상을 대할 때 접시 위 음식이 우리와 똑같은 생명체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요리를 해준 상대방에게 감사와 칭찬의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생명이 희생해 밥상으로 왔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한 젓가락씩 먹을 때마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내고 먹으면 그 생명체가 먹는 이에게 복을 짓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교는 인과응보란 사실을 확실히 깨달으십시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입니다. 착한 마음을 내면 결과가 좋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아쇼카 대왕의 교훈

더불어서 우리는 깨달음을 향한 절박한 마음도 내야 합니다. 머리에 불이 난 사람이 돈이나 명예를 떠올릴까요? 오직 살겠다는 생각뿐일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전투에 임하면 살게 된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떠올려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란 물질 조건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인도제국을 통일한 아쇼카왕을 교화한 니그로다 사미는 당시 고작 12살이었습니다. 사미의 절제된 걸음걸이에 매료된 아쇼카왕은 기꺼이 공양을 올리고 불법을 청했습니다. 니그로다는 “어떤 생각을 품었든 결과를 보고 행동하라”고 설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불법엔 나이의 많고 적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은 자가 스승입니다. 어린이라도 불법을 얻었다면 절하고 가르침을 청해야 합니다. 일찍 태어난 사람이 왜 선배고 어른이 됩니까. 우린 모두 똑같이 평등한 존재입니다.

사실 아쇼카 대왕은 전생에 소년의 모습으로 부처님께 모래를 공양 올린 적이 있습니다. 친구와 소꿉놀이를 하던 전생의 아쇼카 대왕은 길을 지나던 부처님에게 가장 소중했던 모래 케이크를 공양 올립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 왕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받아보시고는 빙긋 웃으며 “내가 열반한지 100년째에 이 소년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공양의 공덕으로 우주를 밝히는 성왕이 될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쇼카 대왕의 이야기처럼 원을 세우고 보시하는 공덕의 결과는 매우 큽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마음도 세우지 않고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앞서서 벌어지는 문제가 많습니다. 꾸준한 원력을 통해 달성하려 하지 않고 삿된 길을 통해 이루고자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정신이 점점 황폐해지니 업장이 쌓이고 또 그 업장이 다른 업장을 만들어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이루고자 정진하는 자세야말로 불자의 바른 자세라는 사실을 명심해주셨으면 합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4기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8월 31일까지
◆ 개강일시 : 2016년 9월 5일 (월요일) 개강
매주 (수,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 (50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6년 9월 5일 (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권오민 교수 대정학술상 수상

26일 시상식… 장학생 6명도 선정



대정장학재단(이사장 황선태)은 8월 26일 서울 갤러리아포레에서 권오민 경상대 교수〈사진〉에게 대정학술상을 수여했다. 또한, 대정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에도 장학금을 전달했다.

학술상을 수상한 권 교수의 논문은 지난해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에서 발간한 〈동아시아불교문화〉 제21집에 수록된 '원효교학과 아비달마-화쟁론을 중심으로' 이다.

또한 권 교수는 〈유부 아비달마와 경량부철학의 연구〉 〈아비달마불교〉 〈인도철학과 불교〉 〈불교학과 불교〉 〈상좌 슈리라타와 경량부〉 등 저서와 〈아비담팔건도론〉 〈아비달마발지론〉 〈입아비달마론〉 〈아비달마장현종론〉(전2권) 〈금칠십론〉 〈승종십구의론〉 〈아비달마구사론〉 등 역서가 있으며, 8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승현(숙명여자대 의약과학과 2), 박상아(한양대 의학과 2), 강소율(동의대 경영학과 3), 황희원(성균관대 경제학과 3), 지호재(동국대 식품생명공학과 3), 이나겸(연세대 경제경영학과 3) 등이 장학금을 받았다.

한편, 대정장학재단은 지난 2013년 불교학 진흥과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매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된 불교 관련 논문 가운데 우수논문을 선정해 학술상을 수여하고, 1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탈종교화 시대, 종교 의미를 논한다

조계종 포교원 · 불광연구원 9월 3일 연찬회

탈종교화 시대에서 종교의 의미와 역할을 전망하는 연찬회가 열린다. 연찬회에서는 불교와 가톨릭, 개신교의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현 상황을 전망한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과 불광연구원은 오는 9월 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탈종교화시대, 종교의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이번 연찬회에서는 정경일 새길기독사회문화원장의 '종교 이후의 사회적 영성',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의 '가톨릭 진짜 잘 하고 있는가',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의 '교회 국경을 넘는 신자들, 종교 국경도 넘다 - 탈종교시대 새로운 종교성', 은유와마음연구소 대표 명법 스님의 '위기의 한국불교, 전통과 근대, 탈근대 가로지르기' 등이 발표된다. 발제 이후에는 지정토론자 없이 모든 대중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연찬회에 대해 주최 측은 "이번 연찬회는 특정 종교에 국한된 호교론적 논변이 아니라 불교, 천주교, 개신교, 종교학자가 함께 참여하여 각 종교가 직면한 상황을 짚어보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의미는 무엇이며 탈종교화로 치닫는 상황에서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초기불교 논리와 대승불교 화엄' 고찰

불교학연구회, 9월 3일 추계 학술대회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은 오는 9월 3일 오후 1시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227호에서 '초기불교의 논리와 대승불교의 화엄'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백도수 능인대학원대학 교수의 '논사의 논모에 대한 고찰'을 비롯해 김근중 동원과학기술대 교수의 '니까야 위주로 본 초기불교 수행체계에서 괴로움 소멸에 대한 고찰 - 초전법륜경 중도와 대념처경의 사념처를 중심으로', 정희경(동국대)의 '〈화엄론절요〉의 구성과 논지 분석' 등이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김한상, 정유식, 강명희, 심준보, 박보람, 고승학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낙산사 복원 · 수행연구 등 주제 다양 '눈길'

2016년 동국대 하반기 박사 논문 살펴보니

2016년 하반기에도 대표 종립대학 동국대에서 많은 불교박사들이 배출됐다. 동국대에 따르면 이번 학기에 불교관련 박사 학위 취득자는 모두 11명이었다.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교학, 역사, 미술 등 다양했다.

올해 박사 학위 논문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무문 스님(낙산사 총무)의 '낙산사 복원불사 연구-2005~2013년 복원불사를 중심으로'이다. 무문 스님은 2005년 4월 5일 화마로 소실된 낙산사의 8년여의 복원 과정을 살피고 불사의 의미를 찾았다.

무문 스님에 따르면 낙산사의 복원 지침은 △〈화엄경〉의 육상원융사상 구현 △낙산사 역사 계승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과 여법함 구현 △지역과 도량의 특성 반영 △비용 투입의 합리성 △다양한 계층의 불사참여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화합 △관세음보살의 구세대비행 실천 등 8가지다.

이런 지침으로 나타난 것이 무산지역아동센터, 1318무산지역아동센터 설립 · 운영, 장학금 지급 사업 등이다. 이에 대해 무문 스님은 "대부분 사찰들이 가람 복원에는 유의하면서도 사찰의 기능적 원형 복원은 뒤로 미룬다"고 지적하면서 "낙산사 불사는 현대 사찰 중창 복원 불사의 귀중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 스님은 박사 논문 '금오 태전선사 연구'를 통해 근현대 선지식 금오 태전 선사의 면목을 살폈다. 금오 태전 선사의 진면목으로 청원 스님은 상구보리의 수행과 하화중생의 면모를 짚었다. 이를 통해 선사의 간화선 수행과 정법

소실된 낙산사 복원 의미 고찰

금오 선사 진면목 살핀 연구도

서역 구법승 중심으로 역사 살펴

교리 · 수행 관련 논문 강세 보여

지향의 모습, 교단정화운동 등을 조명했다. 청원 스님은 "73년에 걸친 선사의 생애 가운데 대부분에 해당하는 58년 동안 선사는 선자(禪者)의 풍모를 보였다"면서 "나아가서 교단정화운동의 발의와 전개도 궁극적으로 출가 승려의 본분으로서 지계청정을 바탕으로 한 여법한 수행 환경을 확보하기 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하반기 불교 관련 박사학위자

학과/전공	법명·성명	논문제목
불교학과	법성 스님	원효의 번뇌론 체계와 일승적 해석
	우석 스님	동대사 · 정창원 소장 절략본 신라화엄사경 연구
	서수정	19세기 불서간행과 유성종의 덕신당서목 연구
	안유숙	유가사지론의 사마디 수행 연구
	정희경	지눌의 화엄론절요 연구
	신현승	〈성유식론〉의 말나식 연구
	계미향	한국 고대의 천축구법승 연구
선학과	무문 스님	낙산사 복원불사 연구
	청원 스님	금오 태전선사 연구
미술사학과	이분희	한국 석탑 불상 봉안 연구
중어중문학과	이연	소식과 이규보의 불교시 연구

성법 스님은 박사 논문 '원효 번뇌론 체계와 일승적 해석'에서 원효 이장 사상의 형성과정과 특징을 밝혔다. 성법 스님은 "원효는 독자적으로 번뇌의 해석 문제를 본격적인 실천 문제로 연결시켰다"면서 "이는 번뇌론을 단순히 개인 수행 문제가 아닌 사회적 실천의 문제로 재해석 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기신론소〉 이후의 저술에서 번뇌론을 논하는 주된 논조로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역사, 미술사 관련 논문들도 주목할만 하다. 이분희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학예팀장은 '한국 석탑 불상 봉안 연구'를 통해 석탑에 봉안된 불상들의 기원, 봉안 형식, 양식적 특징 등을 살폈다.

이 팀장은 "한국 석탑에 봉안된 불상은 인도에서 기원해 중국을 거쳐 한국에 유입 · 발전한 국제적인 불교문화전파의 보편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석탑 봉안 불상은 진신사리를 대신해 봉안됐고, 극락왕생과 망자추선을 기원하는 성격을 지녀 한국만의 독특한 특성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계미향 씨는 '한국 고대의 천축구법승 연구'를 통해 기록에 남아 있는 6~8세기 활동 한국 구법승 15명의 생애와 활동 영역, 구법루트, 사상 등을 총괄적으로 정리했다. 이를 통해 계미향은 신라 왕자 출신 구법승 무루의 안장처를 굉불탑, 하란산의 수행처는 방탑 유지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굉불탑과 방탑이 폐허로나마 남아 있을 수 있던 것은 그곳이 서하왕국의 수도였으며, 서하왕실에 의해 건립됐기 때문"이라고 봤다. 신성민 기자

불교사상, 한국사회서 어떻게 이해되나

이병욱 박사 불교학 연구서 〈불교사회사상의 이해〉 발간

불교사회사상 이론 토대 고찰

평화 · 자연관 · 경제 · 통일 아울러



흔히 갖는 오해와 편견 중 하나는 불교는 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유는 자명하다. 한국 근현대사 안에서 불교는 사회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이런 까닭에 현대 한국불교는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중시하는 폐쇄적 종교로 오인된다.

하지만 불교는 혁명적 종교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당대의 모든 기득권과 관습을 타파했다.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했으며, 반대를 무릅쓰고 여성과 천민의 출가를 받아들였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에 내재된 사회사상을 시대적 관점으로 고찰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다.

동국대와 고려대, 중앙승가대 등에서 불교학을 강의하는 이병욱 박사가 최근 발간한 연구서 〈불교사회사상의 이해〉는 불교사상은 현대 한국사회에 어떤 유의미성이 있는지를 좇는다.

이 책은 불교사회사상의 이론적 토대, 한국에서의 변천 과정, 그리고 그 구체적 적용으로서 불교의 평화관, 폭력관, 자연관, 문화관, 통일관 등을 고찰하고 있다.

가장 먼저 이병욱 박사는 제도로서의 '불교의 사회사상'에 대해 살핀다. 그러면서 불교가 초기부터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추구했음을 밝힌다. 배경에는 공과 중도의 관점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장에서는 한국 근현대 불교의 사회참여사상의 변화과정에 대해 진단한다. 신라의 의상, 고려의 의천, 조선의 서산과 사명, 근대의 만해 한용운, 현대의 민중불교운동, 도법과 법륜 등이 이에 해당한다.

3장에서는 평화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요한 갈퉁의 평화개념을 빌려와 불교의 평화관에 대해 살펴본다. 즉 폭력과 전쟁을 반대한다는 당위적 선언을 넘어서 군사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등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논한다.

경제지상주의와 속도지상주의에 매몰된 현대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6장도 책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이병욱 박사는 "현대적 관점 또는 오늘날의 문제의식에서 불교사상을 바라보는 것이 불교 사상 연구에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면서 "이 책의 내용은 불교 사회사상이 한국이라는 토양에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는지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교적 통일관에 대해서도 제시한다. 이병욱 박사는 원효의 화쟁사상을 근거로 남북한의 사상을 통합하는 길을 모색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한문아카데미 선발 · 일반연수생 모집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한문불전 인재 양성과 불교학 연구자들의 한문해독능력 배양을 위한 한문아카데미 2학기 선발 · 일반 연수생을 추가로 모집한다.

9월 1일 개강하는 한문아카데미는 '논어'(한재훈), '원전으로 본 불교교리'(원과 스님), '한문법'(안재철), '대승기신론'(은정희), '화엄경 게송'(반산 스님)의 강좌가 진행된다. 수업시간은 오후 6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다.

4학기제로 운영되는 한문아카데미는 매 학기당 16주(3~6월, 9~12월) 과정으로 이뤄진다. 선발연수생은 전 과목을 들을 수 있으며, 대학(대학원) 재학생은 수강료 30% 면제, 조계종 소속 승려는 전액 면제다. 일반연수생은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조계종 소속 승려는 수강료 30% 면제다.

입학희망자는 9월 12일 이메일(nampyora@hanmail.net)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02)6713-5154

신성민 기자

공

대한불교원효종

고

본 종단의 총무부장이었던 손영채(우석)이 총무원장으로 자칭, 일부 종도들과 도당하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에 총무원장 직인 위조하여 문서 남발, 허위사실 공고, 종단의 가사를 업체와 결탁 높은 조수의 대가사를 남발 하는 등 종단에 지대한 피해를 입혀왔으나, 2015가합359 총무원장 지위 부존재 확인 등 소송에서 총무원장으로 주장하고 있는 손영채(우석)의 총무원장 선출이 무효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2016.8.19판결) 이에 손영채(우석)이 2015.11.23자 이후 총무원장으로 한 모든 것은 무효임을 공고 하는 바 입니다. 손영채(우석)이 업체와 결탁하여 제작된 대가사는 종단에서 인정할 수 없으나, 발급된 승려증 사원등록증 주지 임명장은 갱신하여 드리고자 하오니 총무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8. 25

대한불교 원효종 임시종정 김윤철 향 운

대한불교 원효종 중앙종회의장 박병철 진 산

2천 여 불자, 放生으로 자비심 일깨우다

쌍계사, 고성 당항포서 제26회 방생 법회 봉행

쌍계총림 쌍계사(주지 원정)와 본말사사암연합회가 방생법회를 통해 세계평화, 남북통일, 민족화합을 천명했다.

쌍계사는 1992년부터 매년 하안거 해제 직후 자비방생법회를 봉행해 왔다. 방생법회는 방장 고산 스님이 중생교화 원력을 위해 고안했다. 평화와 민족 화합은 자비심서 비롯된단 가르침을 전해 정토를 구현하고, 대중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26회 자비방생대법회는 8월 19일 고성 당항포관광지 상설 공연장에서 개최됐다. 고성 당항포는 임진왜란 당시 격전지로 전쟁의 아픔을 간직해 더욱 각별한 장소였다.

이날 자리엔 쌍계사 주지 원정 스님, 본말사암연합회장 능원 스님, 고성사암연합회장 진성 스님, 이군현 국회의원, 최평호 고성군수를 비롯해 2,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자비방생법회는 중생교화 뿐 아니라 쌍계총림 본말사가 하나 되는 자리로 자리매김했다. 쌍계사를 중심으로 말사 50여 사찰이 매년 동참하고 신도들이 함께 하며 방생의 뜻에 협력했다. 특히 이번



쌍계총림 쌍계사와 본말사사암연합회가 제26회 자비방생대법회를 8월 19일 고성 당항포관광지 상설 공연장에서 개최했다.

방생법회서 사암연합회는 고성군에 자비기금 1000만원을 전달해 박수를 받았다.

법회는 식전행사와 법요식, 방생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행사로는 오전 9시 30분부터 범패 시연과 초청가수 공연, 평양예술단 공연, 고성옥천사 · 쌍계사 합창단 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법요식은 오전 11시, 법요식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헌화, 본말사암연합회장 능원 스님의 개회사, 고산대종사 법어대독, 쌍계사 주지 원정 스님의 격려사, 내빈 축사, 방생 순으로 진행됐다.

쌍계총림 본말사 2000여명 참석
"쌍계사 중심, 하나 되는 계기로"
생명 · 평화 존중, 민족화합 천명
수로로 볼락 치어 1만 마리 방생

고산 스님은 "해마다 쉬지 않고 행하는 무차법회는 중생계가 있는 한 다함이 없으리라. 법어를 보고 들은 인천 대중이 해탈하여 고통을 여의지 아니함이 없도다. 자심(自心)의 사악행을 제하고, 널리 인간과 천상의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할지어다. 부처님의 자비는 가 없으사 수륙공계 중생을 다 제도하도다"고 부처님의 자비를 설법했다.

쌍계사 주지 원정 스님은 "이 땅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여기고 작은 미물도 저버리지 않는 자비심을 일깨우기 위해 방생 법회를 봉행한다"며 "이를 통해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생명해방을 실천함으로써 생명이 근본이 되고 생명이 주인노릇을 하는 인본주의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쌍계사본말사연합회장 능원 스님은 "이곳 당항포서 자비방생을 실천하는 것은 과거 총칼을 겨누었던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법석을 마련코자 함이다"고 뜻을 밝혔다. 이어 스님은 "법회를 준비해주신 분들과 참석한 대중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참가자들은 당항만에 볼락 치어 1만 마리를 방생했다. 쌍계사는 수로를 설치해 방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했으며 물고기도 안전하게 바다에 이르도록 배려했다. 이를 본 참가자들은 배려를 통해 자비심을 알게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한 톨 두 톨, 정성스레 모인 곡식 '나눔 회향'

원광사, 추석절 이웃사랑 나눔 법회 개최

부산 태고종 원광사(주지 지광)가 8월 21일 원광사 법당서 '추석절 이웃사랑 나눔 법회'를 봉행했다. '추석절 이웃사랑 나눔법회'는 14년 전부터 이어온 백미 나눔 행사다.

이번 해 회향한 백미는 1년 동안 신도들이 낸 보시금과 공양미로 마련됐다. 모인 쌀의 양은 10kg 2,200포이며 부산 금정구, 연제구를 비롯해 7개 구청과 장애인복지협의회 등 소외된 이웃에게 회향된다.

법회에는 주지 지광 스님,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지성 스님(여래사 주지), 태고종 부산서구교구 원장 지만 스님(약수사 주지)과 최수용 부산동래구 구의회 의장, 박판구 부산북구 새누리당 위원, 김수곤 원광장학회 수석이사와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지 지광 스님은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다. 사람들은 여러 상황 앞에서 보시할 기회를 뒤로 미뤄두지만, 보시는 베풀고자하는 의지를 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남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마음이 진정한 무소유"라고 강조했다.

지성 스님은 축사를 통해 "매년마다 발전 하고 있는 원광사를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나눔에 앞장서는 모습은 큰 귀감이 된다"고 축하했다.

원광사 신도들은 스님의 나눔 원력에 동참하고 자신들의 보시행이 아름답게 회향 되는 것을 감사해했다.

최예윤 불자(44)는 "이 절에 온지 8년이 되었는데 매년마다 빠짐없이 장학금과 쌀 전달로 나눔을 실천하는 스님을 뵈었다"며 "스님의 보시행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천을 통해 가르치시고, 신도들도 함께 복을 지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화자 신도부회장은 "첫 시작은 정말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스님의 원력에 함께 동참해 이렇게 까지 성장하게 됐다"며 "농부가 수확하는 마음처럼 곡식 한 알을 정성스럽게 모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동참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부산 태고종 원광사가 '추석절 이웃사랑 나눔 법회'를 8월 21일 원광사 법당에서 봉행했다.

원광사는 2003년 8월 백미 20kg 100포와 현금 150만원을 부산 금정구 금사동 소외계층과 장애인 단체에 전달하는 것으로 나눔을 시작해 올해 부산 7개 구청에 백미를 전달했다. 또한 군포교 활동과 장학금으로 인재불사에 앞장서며, 2015년에는 재단법인 원광장학회를 설립했다. 금정산 환경보호 운동을 통해 자연을 보호하는 활동도 잊지 않는다. 원광사는 앞으로 부산 전 지역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백미를 나누고 해외 구호활동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하성미 기자



경남 창원 성주사가 '우리 아빠 어렸을 적에'라는 주제로 아버지와 아이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8월 20일~21일 설법전서 진행했다.

사찰서 아빠와 함께 뛰놀자!

창원 성주사, 아버지와 아이 함께한 템플스테이

창원 성주사(주지 원종)는 8월 20~21일 설법전서 '아버지와 아이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우리 아빠 어렸을 적에'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유치원생과 아버지 각 60여명이 참여해 추억놀이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버지 역할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은 달고나 만들기, 딱지치기, 달팽이 놀이, 림보 등 놀이를 비롯해 '몸으로 느끼는 부처님 세상'을 테마로 삼보일배, 참선 등 불교문화 체험 시간으로 구성됐다.

성주사 주지 원종 스님은 입재식서 "템플 스테이를 통해 여러분이 행복을 얻는다면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직장, 더욱 더 멋진 삶으로 성장 할 것이라 믿는다"며 "이번 기회로 아버지의 역할을 돌아보길 발원한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기자

대학 캠퍼스서 간화선 수행을

부산 동명대 '선 수행학교' 9월 7일 개강

부산 동명대 동명세계선센터(선원장 수진)는 '선 수행학교'를 개강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선 수행학교 6기 강좌'는 9월 7일 개강을 시작으로, 4개월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선 수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가능하다.

지도는 금정총림 범어사 율원 율주인 수진 스님이 직접 강의한다. 장소는 동명대 내 세계선센터(동명관 4층)이며 수강료는 10만원이다. 학기 동안 전 일정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수강생은 스님의 친필을 상으로 받는다.

동명세계선센터 전국 400개 대학 가운데 종립 학교를 제외한 유일한 선수행공간이다. 동명세계선센터는 "수행을 통한 삶의 변화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원장 수진 스님의 실참과 지도를 통해 선의 세계를 체험하길 바란다"고 참가를 독려했다. (051)629-3582



부산 동명대 동명세계선센터가 '선수행학교'를 개강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사진은 작년 자료 사진.

하성미 기자

통도사 성보박물관, 전통문화강좌 개강

서각 · 단청 등 9월부터 5개월 간… 수강생 모집 중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지준)은 2학기 전통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좌는 △생활자수 △전통손누비 △전각 △불상 드로잉 △서각 △불화△단청 등 7개 전통문화 과정이며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기간은 올 9월~2017년 1월 총 5개월 간 진행된다.

강의는 생활 자수에 강남순 바람의화원 대표가 맡으며 전통손누비 한인자 장인, 전각 최두헌 작가, 불상 드로잉 김명수 작가가 나선다. 서각은 환옹과 서용수 작가가 강의하며 불화는 조해종 불모, 단청은 홍관식 작가가 맡는다.

강좌 신청은 인터넷(www.tongdomuseum.or.kr)을 통해 가능하다.

(055)384-0020

하성미 기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영험한 달마대사 석(石)



판매가 : 9억
문 의 : 010-3632-9753

전주지역 최초 중증장애인 시설 開院

사회복지법인 송광 산하 '금선백련마을' 8월 21일 고불법회

전주 평화동 위치 181㎡ 규모
1·2급 지적장애인 30명 생활
대표 덕산 스님 2억5천 출연


사회복지법인 송광은 8월 21일 전주 금선암서 '금선백련마을(대표 덕산)' 개원 고불법회를 봉행했다.

전주지역서는 처음으로 불교계 중증장애인 시설이 문을 열었다.

사회복지법인 송광(이사장 도영, 송광사 회주)은 8월 21일 전주 금선암서 '금선백련마을(대표 덕산)' 개원 고불법회를 봉행했다.

도영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그동안 금선암 불자들은 덕산 스님을 중심으로 기도와 수행, 신행활동에 남다른 원력을 보여줬다"고 치하하고 "물질적인 불사도 중요하지만 사무량심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사랑하고 고통을 소멸하고 즐겁고 평등한 마음으로 생활인들을 보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덕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개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불자들의 후원이 큰 힘이 됐다"며 "물질적으로 크게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생활인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준아 후원회장에 대한 위촉장 수여, 후원금 약정식이 열렸다. 금선암 신도회(회장 김영돈)는 생활필수품을 전달했으며, 김정희 씨는 개인 사업체 매출액 10%를 후원키로 약정했다. 또 금룡암주지 무관스님과 신도들은 자비의 쌀 800kg을 후원했다.

법회를 마친 대중들은 금선백련마을로 이동해 시설을 둘러보고 새롭게 출발하는 생활인들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전주시 평화동에 문을 연 금선백련마을은 사회복지법인 송광의 산하시설로 1·2급 지적장애인 30명이 생활하고 있다. 181㎡의 대지위에 건평 656㎡규모로 의무실과 물리치료실, 전염병 격리보호실, 집단 활동실 등을 갖추고 직원 23명이 이들을 보살피고 있다. 대표 덕산 스님이 사재 2억5000여만 원을 출연하고 도영 스님, 대전죽림정사 광진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의 후원금을 바탕으로 이날 개원 고불법회를 봉행하게 됐다.

이번에 개원한 금선백련마을은 2015년 불미스런 사건으로 전라북도로부터 시설폐쇄명령을 받아 오갈 곳 없는 장애인 30명을 전격수용,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며 지역사회로 복귀하는데 한발 더 다가가게 됐다.

이날 법회에는 이사장 도영 스님, 인도네시아 능인선원장 성찬 스님, 대각사 주지 백운 스님, 수덕사 요양원장 태민 스님, 용인 법륜사 주지 현암 스님, 여래향사 주지 지현 스님, 완산경찰서 경찰불자회, 금선백련마을 생활인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부처님 자비정신으로 장애인 돌볼 터"

Interview
금선백련마을 대표 덕산스님



"처음부터 풍족한 환경서 시작하지 못해 생활인들에게 죄송할 뿐입니다. 앞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장애인들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월 21일 개원한 금선백련마을 대표 덕산 스님(금선암 주지)은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금선(金仙; 부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덕산 스님은 불자들에게 그동안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근본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해야한다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천은 '나누고 베푸는 삶'이라고 강조해왔다. 이에 스님은 금선암 중창주 금화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금화장학회를 설립하고, 도영 스님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송광'의 이사로 활동하며 복지사업에 활발히 참여해 왔다.

"그동안 부처님 가피로 편히 살아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교세가 약한 지역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복지사업이 불교가 나아가야 할 할 방향이라는 생각과 그동안 공덕을 사회에 회향해야겠단 발원으로 복지사업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일을 벌이냐는 말도 있었지만, 소외된 누군가에게 도움과 희망을 주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했다는 스님의 말에서 그동안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금선백련마을 생활인들은 기존 시설서 있던 불미스런 사건으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시설폐쇄란 전라북도 조치에 따라 오갈 곳이 없어진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덕산 스님은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겠다"며 "도덕·윤리적으로 생활인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동제 지사장

"사찰은 늘 즐거운 공간이에요"

광주 정안사, 8월 19~20일 '여름불교학교'


광주 정안사는 8월 19~20일 '여름 불교학교'를 열었다.

아이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사찰체험을 선사하기 위한 수련회가 열렸다.

광주 정안사(주지 동초)는 8월 19~20일 1박 2일 일정으로 '여름 불교학교'를 열었다. 35명 초등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첫 날 입재식을 시작으로 △친구와 함께 나무 만들기 △태극권 △장기자랑 △애니메이션 감상 △예불 △부처님 그리기(진흙으로 부처님 만들기, 탑 쌓기) △행복한 부처님 노래 △물총놀이 △보물찾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동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아이들에게 부처님의 인연을 심어주는 것은 향후 불교의 미래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며 "향후 지속적 활동을 통해 어린이 법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가자 중 오형종(전북 정읍·초5) 어린이는 "사찰에 오면 늘 즐겁고 재밌다. 다음에도 꼭 참석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정안사는 20여 년 전부터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은 어린이 법회와 수련회 등에 참석했던 어른들로 구성해 지역 어린이 포교활동의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

동초 스님은 "향후 가족법회를 통해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사찰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어른들은 경전을 배우고, 아이들은 즐겁게 뛰놀 수 있도록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양행선 지사장

광주교도소 불교분화 신임회장 진표 스님

8월 20일 취임법회 봉행
"불자 교정위원 늘릴 것"



"재소자를 비롯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 한 점 부끄럼 없이 자비행을 베풀 것입니다."

8월 20일 광주 수자타에서는 광주교도소 불교분과 회장 진표 스님〈사진〉취임법회가 열렸다. 법회는 취임식, 자비의 쌀 전달식, 축하공연, 저녁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리엔 암도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원일 스님(정광학원 이사장),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장), 청호 스님(대한호국불교승병단 총무원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교화교정위원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진표 스님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회장 직책에 막중함을 통감한다"며 "외롭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사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사회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교도소 불교분과는 19명의 교정위원들과 20여 명의 후원자가 사비를 들여 교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400여 명의 불자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불교교리공부, 신앙상담, 고민상담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과 매주 정기법회, 성년식, 수계식, 봉축행사, 문화공연, 간식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자매결연을 통해 어려운 환경의 재소자들을 위한 영치금 전달, 명절지원, 생수지원 등을 진행하고, 매주 150여 명이 참여하는 정기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진표 스님은 향후 계획에 대해 "향후 재가불자 교정위원을 더 많이 늘려 재소자들에게 불교의 다양한 모습을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혜향 스님(향림사 주지)은 이임사에서 "마음과 달리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많이 부흥을 못했다. 새로운 신임회장과 임원진들의 노력을 통해 더욱 더 발전된 모습으로 빛이 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암도 스님은 축사를 통해 "회장으로서 보다 정진하는 자세로 광주교도소 불교분과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감화를 주고 웃음을 가득하게 하는 불사를 펼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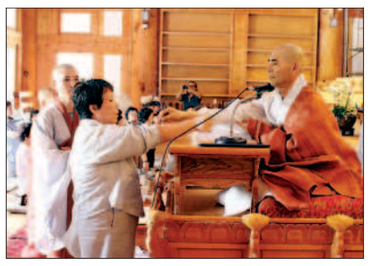
행사는 기념식에 이어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시민연합광주전남연합회에 '자비의 쌀' 전달식과 가수 민성아·김유성·김상범·홍다영·정아·박순범(오페라)·금혜민(오페라) 등 교도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가수들의 축하무대가 이어져 큰 흥을 돋웠다.

한편 진표 스님은 광주불교대학장과 대한호국불교승병단 총재를 역임하고 있다. 광주불교연합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불교 교정위원으로 10여 년 가까이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양행선 지사장

정읍 내장사, 재가불자 수계법회 봉행

8월 20일 100여명 불자 수계 받아


정읍 내장사는 8월 20일 대웅보전서 삼귀의계와 오계, 십선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정읍 내장사(주지 도완)가 지역 불자들을 대상으로 삼귀의계와 오계, 십선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8월 20일 내장사 대웅보전에서 열린 이날 수계법회는 10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참 불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전계사로 등단한 도완 스님으로부터 수계한 불자들은 청정한 계율을 바탕으로 신심 깊은 불자가 되기를 서원했다.

도완 스님은 신기철(법명 도정) 씨 등 수계 불자들에게 계첩을 수여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성실한 삶·청정한 행·진실한 말·맑은 정신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진실한 불자가 되기 바란다고 설했다.

이어 스님은 불자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불제자로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축하했다.

한편 내장사는 매주 토요일 '도완 스님과 함께 하는 차와 명상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조동제 지사장

실상예불선으로...

불자 여러분 이땅의 아픔과 갈등의 치유를 발원하옵니다.

生也一片浮雲起 死也一片浮雲滅 部雲自體本無實 生死去來亦如然
(생야일편부운기) (사야일편부운멸) (부운자채본무실) (생사거래역여연)

삶이란 한조각 구름이 일어남이오. 죽음이란 한조각 구름이 없어짐이오.
구름은 본시 실체가 없는것 죽고 살고 오고감이 모두 그와 같도다.

출처: 서산대사 해탈의 시





영가(신병,재난)에 시달리며 고생하시는 분
사람이면서 사람 행동을 못하시는 분은
실상예불선을 받들어 수지 독송 하시며
부정을 긍정으로 불안한 마음을...

❶ 관찰한다
❷ 영적인 본질을 보는 것
❸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신다.
❹ 계속되면 스님을 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 총무 010-4566-4504

(社)護國佛教曹溪宗 총무원장 유심성도 jogyejong.kr

• 총무원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31번길 16 부산역 앞 관음정사
전화 051)468-5657 | 팩스 051)442-5659 | 모바일홈페이지 http://jogyejong.kr
부설단체 051)442-5658 부산대학병원 시신 및 장기기증모임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

※ 본 디스크의 내용을 무단 복제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실 051)442-5658]

감 독 : 관음 박몬비 | 조감독 : 무념 도갑원, 청곡 강모종 | 디자인,사진촬영 : 보교기획
제 작 : (주)예인미디어 | 녹 음 : 그냥해 STUDIO
기 획 : 유심스님 | 요 령 : 봉덕스님 | 목 탁 : 혜명스님 | 염불선,징 : 유심스님

판매처 : 부산불교전시관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330-152번지
☎ 051)644-8092

불교계 건강한 '性' 주제 담론 필요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㊸ 서량여국 일화에 대한 소고



그림 · 최주현

전 시간에 좀 거창하게 광고를 했지요? 사리불의 물음에 대한 하늘 아가씨(天女)의 대답 속에 남녀 양성평등에 대한 '핵폭탄급'의 혁명적 시각이 나온다고요. 그거 한번 잘 터뜨려 봐야 할 텐데…. 한번 보시지요.

천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술로 어떤 여인을 만들어 놓고, 왜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느냐고 하면 되겠느냐고요. 사리불은 당연히 그건 말이 안 된다 하지요. 그러자 천녀는 말합니다. 모든 법도 (요술과 같이) 일정한 모습이 없는 것인데 어찌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에 집착하느냐구요. 그러면서 신통력으로 사리불을 여인으로 바꿔버립니다. 자신은 사리불로 바꾸고요. 그리고 말하죠. "사리불, 당신이 여인의 몸을 (남자의 몸으로) 바꾼다면 이 세상의 모든 여인들이 몸을 바꿀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사리불께서 본디 여인이 아닌데 지금 여인의 몸을 나타내고 있듯이, 세상의 모든 여인들도 여인의 몸을 가졌지만 여인이 아닙니다." 결국 모든 법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인연 따라 남자로 나타나기도 여자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마치 요술로 만들어진 거짓 몸과 같은데 거기에 무슨 차별과 집착을 두느냐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정말 남자라는 것과 여자라는 것에 매달리는 우리의 분별을 한방에 깨뜨려버리는 소식 아닌가요? 정말 남녀평등문제에 대해 역사를 뛰어넘어 새로운 지평을 보이는 말씀 아닌가요? 핵폭탄급이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관점 - 당신은 남자로 나는 여자로 있지만 그것이 절대절인 것은 아니요 단지 모습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 모습에 맞는 역할을 연출하는 것을 필요하겠지만, 그 실답지 않은 모습에 집착하고 차별하는 것을 벗어나는 큰 시각에 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어느 쪽이 어느 쪽을 소유하고 지배한다는 잘못된 방식을 벗어나, 서로 다른 두 존재의 원만한 조화를 통해 아름다운 이상을 추구해나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지요. 그런 바탕 위에서만 건강한 성에 대한 담론도 가능해지겠지요. 지금이라도 부처님의 이곳저곳에 심어 놓으신 수많은 지혜폭탄이 터지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독교계에선 가끔 '성령폭발'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행사를 벌이던데…. 불교도 '지혜폭발'을 구호로 내걸고서 말입니다. 이크, 이러다 보니 제가 무슨 폭탄테러범 같네요. 하하.

'남녀유별(男女有別)', 좋은 말입니다. 남과 여가 구별이 있어야지요. 그게 혼동되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단지 구별에 그쳐야지 그것이 성 차별로 나아가 어떤 성이 다른 성을 지배하는 구조로 가면 안 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되, 그것에 우열은 없다. 그렇기에 서로 다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서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러한 선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남녀의 구별과 역할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서로 바꿔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지요. 바로 임신과 출산입니다.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거! 남자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한다는 사실이 여성에게 많은 제약이 되었고, 그것이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게 된 원인이 되었지요. 신체적인 제약, 활동의 제약에 따라 여성들의 무대가 좁아지고, 대외적인 활동을 남성들이 도맡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지식은 남성에게 축적되고, 그것을 무기로 하여 다시 여성을 지배하고…. 그런 순환이 나온 겁니다. 모든 남자들이 여성에게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배은망덕하게!

그러한 남성들에게 "너희도 맛좀 봐라!"하는 차원에서 현장법사와 저팔계의 임신 사건을 만들어 낸 것일까요? 여성들만 있는 나라, 그 속에 들어간 이 둘에게 남성의 업보를 대표로 짊어지게 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하게끔 하려는 깊은 뜻에서 이런 설정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하하! 그건 아닌 듯합니다요. 서유기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시구가 현장법사와 저팔계 임신사건의 의미를 드러내 주고 있어요.

"구업을 씻어내니 몸이 깨끗해지고, 범태를 녹여 없애니 자연을 몸으로 하는구나(洗淨口業身乾淨, 消化凡胎體自然)"

그러니까 두 사람의 임신은 구업(口業)의 결과물이요, 성태(聖胎)가 아닌 범태(凡胎)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성태라는 것은 진정한 도를 닦아 성인의 경지로 들어가는 과정의 산물을 말하는 것이지요. 범속한 욕망도 강화되고 강화되면 어떤

현장의 임신은 구업의 결과
정상적인 '성태' 아닌 '범태'
남녀 다름을 인정, 존중해야

결과물을 낳게 마련입니다.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삿된 도를 닦아도 신통을 얻을 수 있을 것과 마찬가지지요.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도둑질을 열심히 하면 도사리(盜舍利), 성적인 것을 열심히 추구하면 색사리(色舍利)가 나온다 하더군요. 흐흐…. 혹시 나칠계님도 무슨 사리 하나 나오지 않을까요?

도교적으로 말하자면 성태란 금단(金丹)을 연성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 법사와 저팔계 뱃속에 생긴 것은 음양의 조화로운 화합에 의해 이루어진 성스러운 태, 진정한 불로장생을 이루게 하는 금단이 아니라 욕망의 결과물인 범속한 태라는 것입니다. 여성, 즉 음(陰)만 있는 나라에 양기를 주어 임신하게 하는 자모하의 물, 그것은 양기의 정수겠네요. 그런데 양에 해당하는 현장과 저팔계가 양을 취하여 임신을 했으니 정상적인 임신이 아니지요. 그러니 그 부당하게 들어와 유사임신(?)을 일으키고 있는 양기를 없애서 낙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낙태천이 있는 지명이 해양산(解陽山), 즉 양을 풀어 없애는 산이네요. 그런데 그 낙태천 골짜기를 여의진선이란 도사가 점거하고 있는 바람에 좀 힘들었지요? 앞에 나왔던 요괴 홍해아의 삼촌인데, 홍해아를 굴복시켜 결국 관세음보살 문하로 들어가게 한 것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었지요. 우리 생각엔 홍해아가 부처님 문중으로 들어왔으니 참으로 경사스럽고도 경사스러운 일일 텐데, 그것을 원망하다니…. 참으로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보는 눈이 이리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군요. 그래도 여의진군 물리치는 건 그리 힘들지 않아서 다행이었지요. 우선 여의진군 싸움 실력이 손오공에 못 미치는데다, 사오정까지 가세하지 무슨 수가 있겠어요? 그저 극성스럽게 물 못 떠가게 방해를 해댔지만, 손오공이 싸우는 사이 사오정이 물을 떠가버리니…. 그래서 임신이라는 좀 망측한 사건 치고는 쉽게 난관을 돌파했네요.

그렇지만 여기가 어디였지요? 여인국이예요, 여인국! 여자들만 있는 동네에 남자들 일행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렇게 쉽게 통과가 되겠어요? "남자다!"하면서 모든 여인네들 밀고 끌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서유기의 표현을 잠깐 볼까요?

"아리따운 여인들 길에 가득, 씨 줄 남자 부르고 (嬌娥滿路呼人種)
거리를 메운 젊은 여인들 고운 낭군 맞이하려 하네(幼婦盈街接粉郎)

나칠계님이 정말 가고 싶어 할 만한 곳이겠지요. 그런데 정작 이곳에서는 나칠계님이 좋아하는 저팔계의 흉측한 용모가 여인들의 접근을 차단하네요. 아마 저팔계가 없었으면 길거리에서도 무사치 못했을 것 같은데…. 나칠계님도 그냥 밝히지만 말고, 여성분들에게 어필할 요소를 좀 많이 만드셔야 하지 않을까 싶군요.

저팔계 덕분(?)에 길거리에서는 번거로움을 덜었는데, 일이 좀 사건이 크게 벌어지네요. 통행증 도장 받으러 간 곳의 관리가 현장 법사의 내력과 비범한 풍모를 윗선에 아뢰면서 결국 여왕이 청혼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네요. 제자들은 요괴 같다 하니, 제자들만 경 구하러 가라 보내고 현장 법사는 여기 남겨 천생연분 이 내 몸과 백년해로를 하고 지고! 이런 강렬한 뜻을 전해오니 참으로 난감하네요.

그런데 이게 웬 일? 혼인을 청하는 사신이 왔는데, 손오공이 나서서 적극 혼인을 추진하네요. 현장 법사 은근히 좋아서, 이크 이게 아니고, 기겁을 하여 "이 무슨 짓거리냐!"하고 호통을 치지요. 손오공, 사신을 보내고서 계책을 내놓네요. 이름하여 "친한 척하여 그물을 벗어나고(假親脫網)" "매미가 허물을 벗듯이(金蟬脫殼)" 쏘옥 빠져나가는 계책이라네요. 거짓 혼인을 허락하고, 저희들 배웅한다는 핑계로 국성 밖으로 나오셔서 그대로 저희랑 달아나면 됩니다요. 그리하야…. 그 계책대로 시행이 되는데….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 많아요. 현장 법사에 반한 여왕의 애틋한 정과 그저 인도로 경구하러 갈 생각만 하는 현장 법사를 묘사한 대목 한번 보고 넘어가지요.

하얀 손 맞잡고 함께 수레에 오르네.
저 여왕은 기쁘게 부부가 되려 하는데,
저 현장법사는 부처님 뵐 마음만 급하구나.
한쪽은 동방화촉 밝혀 원앙의 즐거움 바라는데, 다른 쪽은 서쪽 영취산으로 가서 세존 뵙고자 하네.

애고, 짠하네요. 이렇게 엇갈리다니. 애초에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면 결국 갈라설 수밖에 없어요. 공자님 말씀을 빌리면, "추구하는 길이 다르면 더불어 무엇을 꾀할 수 없다(道不同, 不相爲謀)"는 것이지요. 배웅 나와서 그대로 달아나려는 현장법사를 잡고 만류하는 대목에 저팔계가 한 소리 하는데, 그 말이 거칠지만 이런 뜻을 잘 담고 있군요. "우리 승려들이 당신처럼 해골에 분바른 족속과 무슨 부부가 되겠소?"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저팔계가 좀 심통이 나서 한 소리 아닐까요? 자기는 지원해도 싫다하고 현장법사만 붙잡으니 말이지요.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지요? 그리고 그 저팔계의 말은 좀 심하지 않은가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해골에 분바른 족속'이라니요? 그런 식으로 이성을 매도한다면, 특히 여성을 매도한다면, 남자는 뭐라고 매도를 해야 할까요? 여성이건 남성이건 예쁘게 보이려 애쓰는 것은 나쁜 짓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거칠게 매도할 만큼 성적인 추구란 것은 죄악인 것일까요? 삼쾌선생은 조금 생각이 다르네요. 물론 스님의 입장에선 철저히 금해야 되는 것이 색욕이겠지만, 색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색욕을 떠나게 되면 어찌 되는지는 말씀 드렸죠? 인류멸종! 그렇다면 스님들은 왜 이렇게 색욕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것인지, 재가자들은 또 거기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좋을지…. 다음 시간엔 이런 이야기 나눠보지요. 아직 끝나지 않은 색욕의 관문, 전갈 요괴 이야기와 곁들여서요. 다음 시간에 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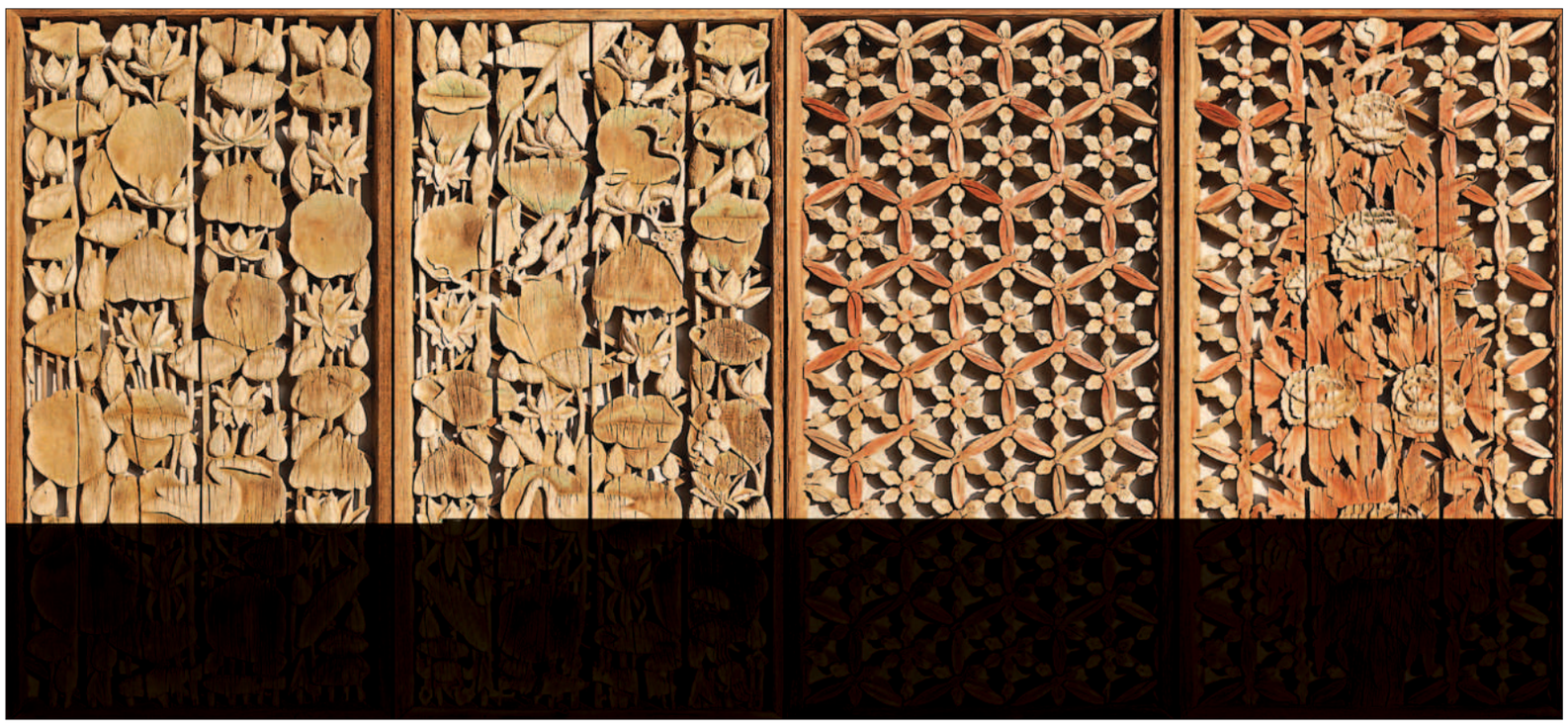


그 절집의 빛

⑲ 영주 성혈사 나한전 꽃살문

공존의 합창 울려퍼진 화엄 연지

〈蓮池〉



여섯 짝 꽃살문 중 대표적인 문양 네 짝. 어칸과 향우측 측면칸의 통판투조꽃살문이다.

불교미술은 대자연의 생명을 인격화

불교 세계관은 일체가 제행무상(諸行無常)인 공(空)의 세계다. 스스로 온전하고 독립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허무주의적인 것과는 별개다. 본질적으로 모든 상(相)은 연기법에 의한 관계의 총체다. 만유의 실상은 관계에 의한 원융과 조화로움으로 현현한 상이다.

우주적 질서는 통일적인 유기체이며 하나의 세계일화(世界一花)다. 불교미술은 그러한 세계관을 방편적으로 구현한 구체적 시각화다. 연기법계의 화엄세계 경영이 불교미술의 근본이 될 수밖에 없다. 연기법의 진리체계야말로 모든 불교미술을 관통하는 본질이고 철학적 토대다. 시각적인 표상으로 구체화한 조형미술을 통해 원융과 조화의 세계를 관상(觀想)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화로움의 원형인 자연 속에서 조형미술의 유기적인 양식과 소재를 빈번히 빌려 온다. 심지어 진리법의 결집인 경전의 이름마저 한 송이 꽃을 빌려 '법화경', '화엄경'으로 부를 정도다. 불교건축, 천정장엄, 탱화, 불단, 사찰벽화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대부분의 불교 조형미술이 연기에 의한 그물망의 구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현대미술이 해체를 통해 원형을 파괴하는 경향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불교의 미학은 우주적 질서와 대자연의 생명을 인격화 하는 특징을 가진다. 토인비의 지적처럼 불교는 범신론적 자연숭배와 깊은 연관성을 지녔던 사실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화엄의 미술은 한 대상의 고유한 구체적인 미를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우주적 대자연의 조화로움도 동시에 표현한다. 화엄 만다라적 표현이다. 특히 사찰건축의 꽃살문, 불단, 천정장엄 등에서 연기법계의 조화로움의 미학이 두드러지게 표출된다. 영주 성혈사 나한전 꽃살문은 유기적 관계에 의한 생명의 통일성과 존엄성을 일깨운다. 하나의 문짝에도 우주적 질서와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이다.

널판 통째 무늬 새긴 통판투조꽃살문

성혈사 나한전은 1634년에 중창된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1칸의 작은 불전이다. 편액은 나한전이지만 내부에 16나한과 함께 모신 주존불은 뜻밖에도 비로자나불이시다.

모든 생명의 통합과 조화의 근원은 비로자나불에 있다. 비로자나불이 법계우주의 진리 본원력인 까닭이다. 나한전의 창호는 정면 3칸에 칸마다 각각 2분합 여닫이문을 달았다. 여섯 문짝 모두 꽃살문이다. 여섯 문짝 중 세 곳은 통판에 조각을 한 통판투조문이고, 나머지 세 곳은 바탕문살이 30도, 90도, 150도로 전개하면서 사방연속 꽃문양을 무시무종으로 펼친 솟을꽃살문이다. 통판투조꽃살문은 널판에 꽃, 나무 등의 무늬를 통째로 새겨 문틀인 문울거미에 끼워 넣는 독특한 양식이다. 통판 그 자체가 창호의 살대 역할도 한다. 통판에 문양을 베푼 까닭에 평면적 회화성이 두드러지는 효과가 있다. 통판투조꽃살문은 선암사 원통전과 응진전, 강화 정수사 대웅보전, 상주 남장사 극락보전, 예천 용문사 대장전 윤장대, 설악산 신흥사 명부전, 삼척 천은사 약사전, 조계사 대웅전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공주 동학사 대웅전에도 사군자 통판투조문이 있었으나 몇 해 전에 영문도 없이 새 창호로 대체되어졌다.

통판투조꽃살문 중에는 통판만 있고 아예 살대가 없는 것도 있다. 정수사 대웅본전, 용문사 윤장대, 선암사 원통전 통판투조문이 그런 경우다. 성혈사 통판투조문은 모두 솟을꽃살문의 살대를 갖추고 있다. 정면에서 보면 그 사실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내부에서 비춰보면 30도, 90도, 150도 방향으로 살을 낸 형상을 뚜렷이 볼 수 있다. 단지 바탕살이 부분적으로 통판투조와 일체형으로 새긴 것이 몇 군데 나타나는 독특함을 지니고 있어 이채롭다.

남장사 극락보전 통판투조의 경우는 바탕살과 통판조형을 서로 독립적으로 조성한 후 못과 철물등으로 결구한 형식이라 같은 통판투조꽃살문이라도 조형양식이 조금씩 다른 점이 있다.



어칸과 향우측 측면칸 꽃살문의 세부.

> **통판투조꽃살문, 전국 열 곳 현존**
> **통판투조 모란꽃은 생명의 나무**
> **동자가 연꽃 든 천진난만 동화세계**
> **민화풍의 다시점 화면**

나한전 통판투조꽃살문의 전경

성혈사 나한전 전경

연꽃, 연잎, 물고기, 백로 등의 대화엄

나한전의 어칸 2분합문은 전형적인 통판투조꽃살문이다. 두 문짝에 좌우대칭으로 새긴 회화의 모티프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연지(蓮池)다. 연지는 온통 연잎과 연꽃으로 장엄한 연화장세계이자 화엄세계다. 연지에는 연잎, 연꽃, 연잎, 연꽃...의 중층적 층위의 중중무진이다.이러한 연지의 중층적 구도는 예천 용문사 윤장대 연지꽃살문에서도 만날 수 있다. 연꽃의 형태는 다채롭고 변화무쌍하다. 오므린 꽃봉오리, 반쯤 핀 것, 활짝 핀 꽃, 꽃잎을 떨군 꽃, 연자방을 완전히 드러낸 것 등 천차만별이다. 연잎의 묘사는 대단히 사실적이고 찰라적 인상을 섬세하게 재빨리 포착해내서 감탄을 자아낸다. 활짝 펼친 잎, 바람에 오므린 잎, 뒤집힌 잎, 돌돌 감긴 잎, 꺾어진 잎 등 각양각색이다. 어떤 잎은 잎맥까지 예리하게 표현했다. 그 크기도 자연스럽게 들쑥날쑥해서 고저장단의 리듬감과 율동미를 느끼게 한다. 형태와 크기 변화로 화면에 생동감과 자연스러움을 살려내고 있어 신선하다. 저마다 독립적이면서 통일적이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주체적 조화로움이 빛난다. 연잎에는 아직도 석록의 초록 안료 흔적이 남아 있다. 햇볕과 풍화를 덜받은 위쪽으로 갈수록 비교적 색채가 선연히 남아 연지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연지의 푸르름을 보아 때는 7,8월의 여름 풍경을 공간배경의 모티프로 삼았을 것이다. 연지는 물의 세계이니 본질은 생명의 세계다. 연지에 온갖 생명이 깃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백로와 물총새, 개구리, 게, 물고기 등이 연지에 뛰어 들었다. 용 한 마리도 연지에서 여의보주를 막 움켜쥐려 하고 있다.

또 한쪽에는 한 동자가 긴 연꽃을 비스듬히 들고는 연잎에 앉아 있어 화면의 분위기를 천진난만하고 순수함의 동화세계로 이끈다. 어칸의 두 문짝은 대칭적이면서 등장 소재의 구성과 분위기를 달리해서 비대칭의 대칭적 구도로 변모시켰다. 왼쪽 화면이 고요하고 정적이라면 오른쪽 화면은 명랑하고 동적인 분위기다.

언어학자 소쉬르는 기호는 기의(記意)와 기표(記標)를 가진다고 분석했다. 기의를 시각적인 표상으로 구체화한 것이 기표이다. 연지의 자연은 기표적인 상징체계다. 기의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조화로운 메트로폴리탄이다. 서로 관계하며 공존하는 상생의 합창이 울려 퍼지는 대우주 코스모스다. 우주적 생명력, 그것이 곧 법의 세계이고, 서로가 서로에 상즉입하는 연기법의 화엄세계다. 그 본질적 기의의 중심엔 비로자나불이 계신다. 성혈사 나한전 꽃살문은 비로자나불의 광명편조(光明遍照)의 본원력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상의한 중중무진의 연기법계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점이 꽃살문 조형미술에 담긴 정신적이며 교의적인 것으로, 기표 너머에 담긴 고차원적인 기의로 해석할 수 있다. 연지는 정토로 구현된 연화장세계다.

6폭 화면을 갖춘 민화 화조도 병풍

어칸의 두 문짝을 제외한 나머지 네 문짝은 모두 원형 사슬 테두리 속 육엽연화문이 반복되는 솟을꽃살문이다. 단지 맨 오른쪽 솟을꽃살문만 바탕살 위에 커다란 모란꽃 통판투조를 베풀어서 종교적 예경과 환희심의 깊이를 심화했다. 모란꽃의 중심에는 의장의 구조적인 뼈대 역할을 하는 굵은 줄기가 관통한다. 불교장엄의 꽃은 꽃이 지닌 물리적 특성을 넘어선다. 때때로 꽃은 우화의 상서이고, 예경으로 올리는 세세생생의 공양화이며, 처처에 나투신 부처님의 자리이기도 하다. 한 화면을 가득 채운 모란꽃에는 암수로 보이는 두 새가 다정히 노래하고 있다. 거룩한 생명의 나무이자, 그물망의 세계를 펼친 우주목으로서도 손색이 없다.

그러고 보면 나한전 꽃살문은 전체적으로 6폭 화면을 갖춘 민화 병풍을 떠올리게 한다. 우선 소재에서 민화의 화조도와 중첩되는 점이 뚜렷하다. 모란, 연꽃, 쌍쌍의 새, 물고기, 게등 등 소재들이 공통적이다. 또 화면을 그린 시점도 하나의 시점인 일점원근법이 아니라 다양하다. 위에서 본 것도 있고, 옆에서 본 것, 정면에서 본 것 등 세잔의 정물이나 피카소의 큐비즘처럼 다시점(多視點)으로 화면을 구성해서, 보이는 것을 그린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그린 형태를 추구했다. 그것은 민화 책가도에서 자유분방한 시점을 구사한 방식과 일맥상통한다. 화면에 흐르는 소박함과 천진난만함도 민화의 화풍과 겹치는 대목이다. 불교철학이 민화풍의 화조도 꽃살문에 스며들었다. 통판투조로 장엄한 연지는 공존과 관계의 그물망에서 저마다 생명의 존엄으로 빛나는 화엄의 세계다. 모든 생명의 무게는 같다. 성혈사 나한전 꽃살문은 관계와 만유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그 절집의 빛이다.



노재학(불교미술 사진작가)



모든 것은 幻… '無'로 빚어낸 말의 사원

〈言〉 〈寺〉

'불교로 읽는 古典' 시즌 2

④ 말라르메의 〈목신의 오후〉 上

스테판 말라르메(Stéphane Mallarmé, 1842~1898)는 베를렌느, 랭보와 함께 프랑스 상징주의 3대 시인 중의 한 사람이다. 스스로를 '순수시의 탐사자'라고 언급할 만큼 순수시, 즉 시의 이상적 형태를 위해 끈질기게 추구한 수도사로 평가된다. 일생동안 그는 시를 종교처럼 생각했다. '시라는 것은 독자가 그 열쇠를 찾아야만 하는 신비'라고 생각했던 그는 시를 평범하고 안이하게 쓰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내용을 암시하고 대상을 환기시키는 상징적인 교감법을 사용했으며 그의 시어들은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고 갈수록 난해한 시 〈에로디아드(1870)〉, 〈목신의 오후(1876)〉, 〈주사위 던지기(1898)〉 같은 시를 쓰게 된다.

이러한 시적 추구과정에서 그는 무(無)와 직면하게 된다. 특히 허무와 죽음의 의식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혼돈의 서' 〈이지튀르〉에서 그가 도달한 궁극적 결론은 '허무가 진실'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말라르메가 말하는 "'허무'는 낭만주의적 감성으로서의 허무주의나 도덕적 허무의식과는 다른 '절대' 또는 '무', '공(空)'과 동의어로 이해해야 하는 형이상학적인 차원의 존재론적 개념을 가리킨다"는 이가림 선생의 진술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었다.

대부분 그의 작품에서 '허무', '무', '텅빔', '침묵' 등 부재의 이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본고에서는 〈목신의 오후〉를 중심으로 님프들의 부재 인식과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허공 꽃'의 이데와 연계해 그 상관관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말라르메가 말한 새로운 시학이란 한마디로 어떤 대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으키는 효과를 그린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는 언어의 의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의도로 이루어지며 모든 언어는 불러일으키는 감각 앞에서 소멸된다는 것이다. 또한 〈시의 위기〉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한 송이의 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내 목소리가 어떤 테두리를 긋는 망각의 저 밖으로, 모든 꽃다발들 속에 부재하는 꽃, 꽃의 달콤함 그 자체가 음악적으로 떠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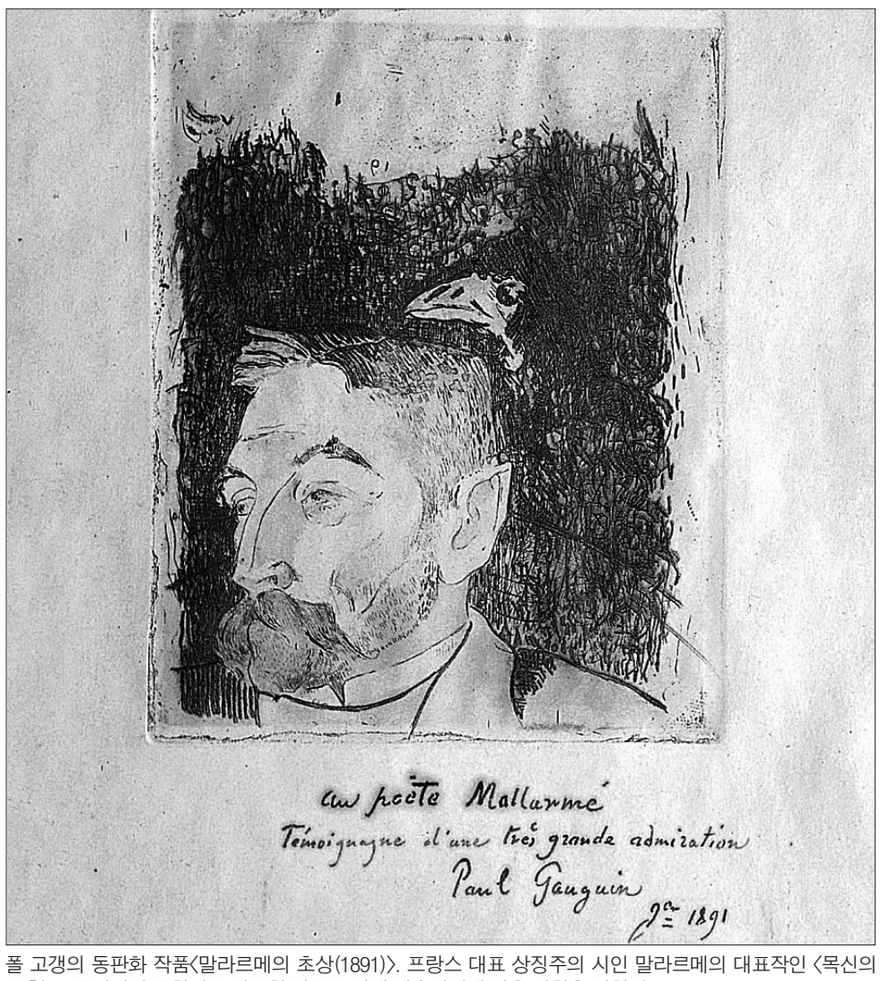
여기에서 그가 드러내보이고자 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써의 꽃이 아니라 어떠한 꽃다발에도 부재하는 꽃의 '이데'라는 것이다. 그가 추구하는 이미지의 세계는 이미지의 드러냄이라기보다는 이미지의 사라짐, 이미지 부재라고 할 수 있다. 부재에 이르기 위해 이미지 혹은 사물현상에 대한 '인상'은 제거되고 파괴되어야 한다는 그의 시론을 접했을 때, 김춘수의 이름이 떠올랐다. 말라르메의 '한 송이 꽃'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그의 시가 생각났던 것이다. 김춘수 시인은 "시는 관념으로 굳어지기 전의 어떤 상태가 아닐까 하는 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며 〈나의 문학 실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존재의 모습)을 그린다. 흡사 물질시의 그것처럼 된다. 묘사라는 것은 결국 이미지만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때의 이미지는 서술적이다. (생략) 서술적 이미지는 그 배후에 관념이 없기 때문에 존재의 모습(사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즉 그 이미지는 순수하다. 이리하여 나는 이런 따위의 이미지로 된 시를 순수시라고도 하며 무의미의 시라고도 하게 되었다.(생략)"

말라르메에 의하면 그의 시적추구의 목표는 "현실에서 '이데'로의 신성한 전환에 있다"며 "'이데'의 실현을 위해서는 언어의 의미기능 이외에 언어의 음악적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의 시적탐구는 존재의 근원에 대한 탐구와 언어 본질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다. 존재 근원에 대한 탐구과정에서 그는 필연적으로 부재를 만나고, 언어의 본질에 대한 탐구과정에서는 언어의 한계에 부딪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음악과 만난다. 그리고 그는 존재의 근원을 '이데'라는 말로 암시한다. 그리하여 '부재', '이데', '언어', '음악'은 그의 시학을 이루는 주요 요소가 된다.

프랑스 상징주의를 이끈 시인
'詩의 이상적 형태' 화두 삼아
無 사상과 직면… 작품 담아내

신화 소재 '목신의 오후' 대표작
부재 · 無를 상징 시어로 풀어내



폴 고갱의 동판화 작품〈말라르메의 초상(1891)〉. 프랑스 대표 상징주의 시인 말라르메의 대표작인 〈목신의 오후〉는 드뷔시가 교향시로 작곡할 정도로 당대 예술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숲지기 악신(樂神)이자 반인반수(半人半獸)의 목신을 등장시킨 〈목신의 오후〉야 말로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목신의 오후〉는 12음철(音綴)의 시구 110행으로 되어 있으며 프랑스 시 사상 가장 아름다운 서정시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그리스 신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피리를 부는 악신 폰(Faune)을 등장시킨다. 무대는 시칠리아 섬 라도 강변이다. 클로드 드뷔시가 〈목신의 오후 서곡〉을 작곡해 1894년 12월에 초연하고, 아름다운 시와 음악에 따라 무용가 니진스키가 러시아 발레제(파리)에서 무대에 올렸던 작품이다.

열사(熱沙)의 숨 막히는 오후, 목신은 육욕(肉慾)적인 꿈을 꾼다. 그는 꿈속의 매혹 상태를 연장시키려 애쓴다. 잠결에 눈을 뜨니 물가 기슭 주변에 님프들의 육체로부터 풍기는 장미색의 일렁거림이 느껴진다. 꿈에서 보이는 것인가, 현실인가? 기억을 더듬는다. 그러자 늪의 기슭에서 알몸의 님프들이 어른거린다. 님프들은 목신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여 물속으로 몸을 숨긴다. 그때 두 님프가 서로 엉켜 안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 목신은 그 둘을 함께 끌어안고 장미 덤불 속으로 달려간다.

그는 두 명의 님프들의 뒤엉킨 머리칼을 입맞춤으로 풀어주려 한다. 그러자 목신은 육욕의 예감으로 힘이 시들어 빠져버리게 되고, 그 틈을 탄 님프들은 목신의 팔 사이에서 벗어나 도망친다. 노획물을 놓쳐버린 목신은 헛되이 갈대 줄기를 포옹하고서 갈대 풀피리를 불며 마음을 달랜다. 그리고는 나른한 몸을 뜨거운 모래사장에 눕히고 다시 잠든다. 갈망의 대상인 님프들의 부재를 통해서 욕망의 허상이 꿈과 같은 '허공 꽃'이 아닐까를 유추해 보게 된다.

여기 물의 요정들, 그들 영속할 수 있다면 그 맑고 연한 그들의 살색, 얽힌 잠 속에 졸고 있는 대기 속에 하늘거린다. 내가 꿈을 사랑한 건 아닐까? 생각해 보자…… 혹 네가 말하는 여자들이네 공상하는 감각의 소망에서 생긴 건 아닌지!

-〈목신의 오후〉 中

말라르메답게 신중한 통찰이 이어진다. 꿈에서 관능의 유희를 즐기다 깨어난 목신은 혹 이 기이한 '감각'이 지어낸 거짓 현상이 아니었나를 반문한다. 여자들은 너의 우화적인 감각의 욕구에서 나온 소망이 아닌가? 그는 왜 자꾸 거짓 현상에 대해 주목하는 것일까?

토지관리국 말단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난 그의 현실세계에 대한 인식은 비극적이었다. 다섯 살에 어머니를 잃고 어린 누이동생의 죽음을 경험한다. 가난한 외조모 밑에서 성장했으며 결혼 후 어린 외아들마저 잃고 만다. 인간은 한낱 '물질의 헛된 형상'일 뿐이며 '육체는 슬픈 것'이고 세상은 온통 환자들로 가득 찬 하나의 거대한 병실이라는 비극적 세계관 속에서 그는 허무에 집착하게 된다. 그럴수록 그는 '시인의 이상'을 순수시 〈에로디아드〉에 담고 싶어 한다. 이 작품은 유모와 공주 '에로디아드'의 대화로 이어진다.

공주의 그 냉정은 미지의 신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의 보물"을 맡기기를 몰래 애원하기 때문이 아니냐고 유모가 말 한다. 그 눈부신 광채와 "헛된 신비"를 누구를 위해서 고통스럽게 간직하느냐고 묻자 공주는 "자신을 위해서죠"라고 짧게 답한다. 유모는 공주에게 "혼자서 자라나 물속에 하염없이 비춰 보는 제 그림자 외엔 아무런 감동도 없는 서글픈 꽃"이라고 말한다. 공주는 자신의 고독한 삶이 "최후의 매혹"이라고, 고독이 매혹의 완성이라고 외친다. 유모는 공주의 고집스런 순결의 염원 때문에 어쩌면 공주가 죽음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순수시, 순결의 염원에 빠진 이는 다름 아닌 시인 자신이다.) 에로디아드는 유모에게 하직을 고하며 "자신의 헛된 나르시스적 순결이 거짓"이라고 외친다.

〈에로디아드〉에서 만난 '무와 공허', 〈목신의 오후〉를 쓰면서 겪어야 하는 절망의 나날은 그를 1년 동안이나 실어증을 앓게 했다. 한 해가 지난 뒤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했다.

무서운 한 해를 보냈네. 내 사고(思考)는 사고되었고 나는 순수 개념에 도달했네. 이 기나긴 고통 속에서 그 여파로 내 존재가 겪었던 모든 것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나는 완전히 죽었네. 〈중략〉 내 승리를 위한 고뇌가 얼마나 컸던지 난 사고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거울 속의 나를 들여다봐야만 한다네. 거울이 만약 내가 지금 자네에게 글을 쓰고 있는 이 책상 앞에 없다면 나는 다시 무(無)가 되어 버릴 것 같네.

-서한 카잘리스에게, 1867년 5월

다행스럽게도 그는 완전히 죽었고 어떤 무시무시한 감성을 통해 자신의 순수에 도달했다. 그는 의식이 끊어진 자리에서 무아(無我)를 체험한 것이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빈 시간 속에 들어가 영원을 엿본 시간체험을 한 것이다.

〈에로디아드〉와 〈목신의 오후〉는 거의 같은 시기에 씌어져 서로 내외적으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반짝이는 차가운 이성의 불길과 감각적 욕망에 불타는 뜨거운 열정은 마치 샴쌍둥이처럼 그의 내면에 공존하는 쌍두사(雙頭蛇). 그건 음양이 본래 하나인 것처럼 둘이 아니었다. 위에서 살펴본바 그를 절망케 한 심연은 '무'와 '우리는 물질의 헛된 형태일 뿐'이라는 비극적 인식이다.

그렇다면 정신은 왜 거짓인가? 불교에서는 인간 존재를 '오온(五蘊, 色受想行識)'으로 설명한다. 색은 우리의 몸을, 수 · 상 · 행 · 식은 정신 작용을 지칭한다.

정신적인 현상이나 그 작용은 영혼과 같은 존재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기관과 그것에 관계되는 대상과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6근인 눈, 귀, 코, 혀, 몸, 마음(眼耳鼻舌身意)이 6경인 물질, 소리, 향, 맛, 감촉, 생각(色聲香味觸法)을 만날 때 안식(眼識)이식(耳識) 비식(鼻識) 설식(舌識) 신식(身識) 의식(意識) 등의 정신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감각기관과 대상이 만날 때 식(識)이 일어나고 식이 발생하면 다른 정신활동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마음은 6근, 법은 6진, 몸은 허깨비, 어디에 내가 있겠는가? 6근과 6진이 환상과 같아서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실체는 없는 것이니 당연히 그 둘에 의하여 드러나는 생각도 실체가 없는 것이다. 6근, 6진, 6식(생각), 이 셋은 모두 허상이다. 이 세 가지가 어울려 눈앞에 나타난 것이 하나의 '허공 꽃'이다. 바로 지금의 '나'이기도 한 것이다. 그는 시적 화자인 목신을 통해 자신의 사유를 확장시켜나간다.

오 반드시 오고야 말 징벌……
아니다, 하지만, 언어가 부재하는 나의 영혼, 무거워진 육체는 정오의 씩씩한 침묵 앞에 결국은 쓰러진다. 이제 그만하고, 불경한 생각을 잊은 채, 목마른 모래 위에 잠들어야 한다. 아, 포도주의 효험 좋은 별들에게 입술을 여는 것은 이리도 좋은가! 한 짝의 수정들이여 안녕히! 나는 그대가 둔갑한 그림자를 보리라.

-〈목신의 오후〉 중



맹난자 수필가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승려 분한신고 및 사찰재등록 신청 공고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종단 종도 여러분의 사암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은 종단 행정의 재정비와 본 종단의 종도로서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종도 여러분은 기한 내 재등록을 하시여 사암의 주지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에 관심과 동참을 원하시는 스님들께서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불어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소속으로 있다가 제적, 탈종된 승려도 분한신고를 하면 구제 하고자 합니다.

아 래

① 실시기간 : **2016년 7월 28일 부터**
② 접수마감 : **2016년 9월 29일 까지**
③ 구비서류 : · 본 종단 승려분한 신고 및 사찰재등록 신청서 ····· 각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등본 (3개월 이내) ····· 각 1부
·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이력서 각 1부 · 승려증 · 증명사진 3매
④ 접수장소 :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번지)
⑤ 전화번호 : 054-974-2605 / 팩스 : 054-974-2705

※ 위 기간에 분한신고 및 사찰 재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의 종도로서 지위를 인정치 않으며 세무서에 통보함과 아울러 사찰등록증 취소 및 말소 처리 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분담금이 1년 이상 미납된 사찰과 종단에 비협조적인 종도와 사찰은 정리되며 신문에 공지 합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

산문 밖의 禪

한봉석 목조각장

(58 · 경기도 무형문화재 목조각장 제49호)

‘비수갈마’ 꿈꾸는 佛母…



세존은 도리천에 계셨다. 돌아가신 마야부인을 예경하고 석 달 동안 천인들을 위해 설법을 하기 위해서였다. 지상에서는 부처님이 계신 곳을 몰라 소동이 일었다. 코살라국의 우전왕은 부처님이 너무나 그리워 부처님을 대신할 불상을 만들고자 했다. 그러자 비수갈마천이 내려와 전단향으로 불상을 만들었고, 우전왕은 조석으로 예불했다. 후에 부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니 불상이 부처님께 자리를 내어 드렸고, 이에 부처님께서는 불상을 바라보시며 “말세에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하셨다.-〈증일아함경〉 권28 외 다수 경전에 기록- 불상의 기원이다. 처음으로 불상을 조각한 이는 제석천의 신하인 비수갈마였다. 그렇다면, 오늘날 불상을 조각하는 일은 비수갈마의 계보를 잇는 것이리라. 이 시대의 비수갈마를 꿈꾸며 사는 이가 있다. 40년 넘게 불상을 조각해온 경기도 무형문화재 목조각장 제49호 한봉석(충북대학교 대학원 문화재과학과 겸임교수)이다.

박도일 수필가 jwpark4284@daum.net

14세에 나무와 칼을 만나다

경기도 남양주의 불국조각원. 폭염 속에서 칼끝이 쉴 새 없이 나무 위를 지나간다. 칼을 쥐고 있는 이는 한봉석 목조각장. 칼끝에서는 깎인 나무 조각들이 떨어져나가고, 떨어진 나무 조각들 위에는 굵은 땀방울이 떨어진다. 그리고 칼이 지나간 자리에는 나한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월정사 북대에 모실 오백나한목각후불탱이다. 작년부터 시작된 대작불사다.

“칼을 잡은 지 어느덧 40년이 넘었네요.”

비수갈마를 꿈꾸는 한 목조각장의 삶은 그가 목공예품을 제작하는 공예사에 취업하면서부터 시작된다. 1972년, 초등학교를 졸업한 소년 한봉석은 진학 대신 부친의 지인이 운영하는 서울의 공예사에 취업한다. 아직 세상이 업어주어야 할 어린 한봉석이었지만 그는 작고 여린 등으로 세상을 업어야 했다. 시대가 그랬다. 대부분의 삶이 다급했고, 주저할 시간이 없는 시대였다. 소년 한봉석이 일을 시작한 공예사는 목공예품을 제작하는 곳이었다. 어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작은 일들이었다. 복사기가 없던 시절이어서 선배들이 그려준 도면을 일일이 손으로 그려 복사본을 만들었고, 하루 종일 선배들이 깎아놓은 조각품을 사포로 다듬어놓아야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 도면을 그린 것이 저에겐 미술 수업이 되었고, 칼이 지나간 나무를 다듬으면서 나무와 조각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의 작은 손에는 하루하루 상처가 끊이질 않았다. 1년여의 시간이 흘렀을 때 그도 마침내 사포를 놓고 칼을 잡기 시작한다. 한 목조각장이 어린 나이에 세상으로 나와 처음으로 만난 것은 바로 나무와 칼이었다.

천수천안을 보며 불모의 삶 시작해

천수천안. 그것은 새로운 세계였다. 한 목조각장이 조각칼을 잡은 지 5년이 되던 1977년, 그는 이구예술원이라는 곳으로 일자리를 옮기게 된다. 그곳은 불상을 비롯한 불교조각품을 만드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불상, 즉 불교조각의 세계를 만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만남이 바로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이다.

14세 목공예사 입사 조각입문

“불교조각, 불교부터 알아야”

독립 후 조계사불교대학 입학

1992년 불교미술대전 입상

불자도 아니었고, 불교도 잘 몰랐던 한 목조각장이었지만 그에게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은 조각의 진지한 모티브로 다가온다. 그리고 그 모티브는 조각가 한봉석의 영원한 테마로 이어진다.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한 목조각장에게는 의문들이 일기 시작했다. 그는 틈틈이 책을 찾고, 선배를 찾고, 절을 찾았다. 그렇게 그는 불상과 불교조각 그리고 불교에 조금씩 다가갔다.

불상이나 불화를 조성하는 사람을 흔히 ‘불모(佛母)’라 부른다. 부처님을 만들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한 목조각장은 불모의 삶을 시작한 것이다. 이후로도 한 목조각장은 불상을 비롯한 불교조각을 계속하게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조성하고 지장보살을 조성하고 문수보살을 조성한다. 하지만 작업이 계속될수록 불교조각에 대한 그의 의문은 그 깊이를 더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조성하면서 항마촉지인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고, 지장보살과 문수보살의 얼굴을 그들의 깊은 내력을 알지 못한 채 조성해야 했던 것이다. 늘 불사의 회향 끝에는 아쉬움이 남았다. 생업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 그 의문들을 모두 해결하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어지는 생업의 고단함 속에서도 틈틈이 그 의문들을 풀기 위한 노력을 놓지 않았고 그 의문들을 조금씩 풀어가면서 자신만의 불교조각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1992년 한국불교미술대전에서 입상하며 불모로서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다.

조계사불교대학 입학

1993년, 그는 불국조각원을 열며 독립한다. 그리고 그는 독립과 함께 또 하나의 발심을 하고 실천에 옮긴다. 조계사불교대학에 입학한다. 그가 그 동안 불교조각을 하면서 가지게 되었던 의문들은 불교를 모르는 데서 온 것들이었다. 풀지 못한 그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교부터 제대로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모든 악마를 항복시키고 지신을 불러내시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심정에 다가가야 항마촉지인을 제대로 조각할 수 있고, 지옥이 텅 빌 때를 기다리는 지장보살의 심정이 되어야 지장보살의 표정을 조각할 수 있고, 미욱한 중생을 일일이 살피는 문수보살의 마음씨를 알아야 문수보살의 지혜로운 얼굴을 조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조각할 땐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어야 하고, 지장보살과 문수보살을 조각할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평생 위패 한 두분도 조성가능합니다.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순금증착기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붓다북

www.buddhabook.co.kr

불교, 종합, 쇼핑몰.



서울 성북구 보문로38길11 동일하이빌 B1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3번출구)

붓다북 02. 953. 7181.

지(止)와 관(觀)은 서로 보완하는 것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걷거나 멈추어 있거나 눕거나 일어날 적에 모두 지(止)와 관(觀)을 함께 실천해야 한다. 이른바 모든 존재의 자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다시 곧 인연으로 화합하는 선악의 업과 괴로움이나 즐거움 등의 과보가 상실되거나 부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비록 인연의 선악 업보를 생각하지만 또한 그 자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만약 〈지(止)〉를 닦는 자는 범부들의 세속적 환경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것을 대치하고 능히 이승(二乘)인 성문(聲聞), 연각(緣覺)들의 겁내고 나약한 소견을 버려야 한다. 만약 〈관(觀)〉을 닦는 자는 이승들이 대비심을 일으키지 않는 협소하고 못난 마음의 허물을 대치하고 범부들이 선근을 닦지 않는 것과는 멀리 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지〉와 〈관〉의 문이 함께 상호 보완적인 역할로 서로 맞물려 작용해야만 한다. 만약 〈지〉와 〈관〉이 함께 갖추어지지 않으면 깨달음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본문의 이 말은 거듭 〈지〉와 〈관〉을 함께 닦아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객관적 사물은 본래 그 사물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치를 잘 생각하여 그릇된 소견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말하자면 공(空)의 이치를 잘 알아 어디에도 치우친 집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온다는 인과응보(因果應報)의 도리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비록 선악의 인과법칙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선이나 악이 영구불변의 고유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를 실천할 때는 세속적인 집착의 어리석음을 고쳐야 하고 동시에 소승의 수행자들이 세상을 도피하고 세속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나약한 소견을 가져서도 안 된다 하였다. 묘한 것은 〈지〉가 정적인 수행임에도 이승을 배제하는 대승의 마음에 입각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점이다. 이는 소승과 대승의 차이를 소승은 아공(我空)만을 알고 법공(法空)을 모른다고 보고, 대승은 아공은 물론 법공까지 알고 있다고 보는 관점에 의거한 이야기라 볼 수 있다. 『금강경』에서 밝힌 아공, 법공의 이치를 이승들의 경계에서는 다 알지 못하므로 이승들은 〈지〉를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공이란 일체 유위법에 실체가 없다는 뜻으로 쓰는 말인데 자아의 자성이 없이 오온에 의해 임시적으로 구성된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인아공(人我空), 혹은 인무아(人無我)라고도 말한다. 또 법공(法空)은 법무아(法無我)라고 하여 외부의 객관 경계에 존재의 실체적 요소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승들이 아직 이 경지를 터득하지 못하므로 아공만 알고 법공을 모른다는 것이다.

止, 이승 배제한 대승 마음에 입각

觀, 대비심 없는 수행 경계해야

'기신론'의 핵심 단어인 진여를 〈기신론열망소〉에는 아공진여, 법공진여로 구분 설명하는 대목이 있다. 아공진여는 견혹(見惑), 사혹(思惑) 곧 지적(知的)인 번뇌와 정적(情的)인 번뇌인 번뇌장(煩惱障)을 완전히 끊고 그 결과로서 드러나는 진여를 말하고 법공진여는 소지장(所知障)의 장애를 완전히 끊고 얻는 무루지(無漏智)를 법공진여라 하였다. 또 이승들이 비록 번뇌를 끊고 아라한의 지위에 이르나 아공진여만을 증득한다고 말해 왔다. 〈기신론〉에서 이승들의 수행경지를 평가절하 하는 것도 대승심을 바탕으로 하는 수행이라야 진정한 수행임을 강조하는 뜻에서 이다. 중생의 마음이 본래 대승임에도 편협한 관념 속에 갇혀 대승의 근본 바탕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배척해 부수는 것이다. 주관의 모든 요소가 공할 뿐만 아니라 객관의 모든 요소도 다 공한 것임을 알 때 무루지(無漏智)의 완전함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한편 〈관〉을 실천할 때는 원력이 부족한 이승들의 편협하고 열등적인 생각들을 극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비심이 없는 수행을 경계하고 있다. 터무니없이 세속적 환경에 집착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것을 사갈시(蛇蝎視) 하고 회피하려는 연약한 자세로 수행에 임해서도 안 된다고 하였다.

결국 〈지〉와 〈관〉은 서로 보완적 관계로, 〈지〉의 약점을 〈관〉에서 보충하고 〈관〉의 약점을 〈지〉에서 보충하여 상호소통이 원만한 지관이 이루어져야 깨달음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

善은 나누는 실천행으로 완성된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㉟ 자비의 보시

貧窮者不如有財者。有財者不如能食。能食者不如能施者。悲心施者善一切眾生。富者應施。施者應悲。富者能施富得堅牢。施者能悲施得堅牢。修施者得富。修定者得解脫。修悲心者得無上菩提° 果中最勝。(빈궁자불여유재자。유재자불여능식。능식자불여능시자。비심시자선일체중생。부자응시。시자응비。부자능시부득견뢰。시자능비시득견뢰。수시자득부。수정자득해탈。수비심자득무상보리。과중최승。)

번역

가난한 이가 재물이 있는 이만 못하고, 재물이 있는 이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이만 못하며,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이는 보시할 수 있는 이만 못합니다. 자비심으로 보시하는 이는 일체 중생을 선하게 만드나니, 부한 이는 응당 보시하며, 보시하는 이는 응당 자비심으로 해야 합니다. 부자는 보시할 수 있을 때 부함이 견고해집니다. 보시하는 이는 자비심으로 할 수 있을 때 보시가 견고해 집니다. 보시를 닦는 이가 부유해지며, 선정을 닦는 이가 해탈을 얻거니와, 자비심을 닦는 이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는데, 과보 가운데 가장 수승합니다.

해설

선함은 베푸는 마음 때문에 선하다. 더불어 나누는 실천행이 있을 때 완성된다. 각박한 인심은 가난한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나누는 마음이 없어 그렇다.

어쩌면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속담도 빈말이다. 가난한 이가 부자보다 못하고, 부자가 배불리 먹는 것만 못하다고 말한다. 부자여도 지나치게 인색하여 굶고 산다면 그 부유함이라는 것도 소용없는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처님의 이치는 한 걸음 더 나간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이도 보시하는 이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기준으로 되돌아가면, 가난하여도 베풀 수 있는 마음이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말이 된다. 이번 대장부론 5품은 자작시 하나 올리며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별의 기원

138억 년 전에 태어난 우주는 모든 조건이 균등했다네요.

그러다 수천분의 일이라는 온도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 발생했는데,

아주 조금 뜨거운 그것들이 중력에 의해 모이고 모여 별이 되었다네요.

저는 138억년이 얼마의 시간인 줄 잘 모르겠습니다.

수천분의 일이라는 개념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뜨거워진 것들끼리 모였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 모인 것들이 별이 되었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사람도 원래는 모두 같지만

남의 아픔을 보면 눈물이 뜨겁고,

남의 행복한 일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조금이나마 더 뜨겁게 인생을 산 사람들은

캄캄한 밤 지나 아침 해가 떠도

빛나는 별이 되더군요.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지금 이 순간

순간이 영원이다. 순간이 이어져 내일과 미래와 내생(來生)을 만든다지만 순간은 오늘의 지금, 이 순간뿐이다. 이 순간마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변화하며 흘러가는 것이다. 지극히 짧은 한 순간도 머묾이 없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변모하며 바람처럼 아지랑이처럼 수증기처럼 다른 모양, 다른 것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순간에는 시간과 공간이 담겨있다. 꿈과 희망이, 행복과 자유가 깃들어 있는 것이다. 순간에도 생각의 윤회는 멈추지 않아 지킬도 되고 하이드도 되는 것이다. 보살과 투사도 되는 것이다.

순간의 찰나 지간에도 삶에서 느끼는 생(生)로(老)병(病)사(死)가 윤회하며 빛과 어둠, 우주의 빅뱅까지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 지옥과 극락은 기본이요 아귀와 아수라 축생과 인간 사이를 오고가며 생각의 노예로 윤회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없으나 나는 있고 머묾 없는 머묾으로 소유욕과 집착심이 흔적과 자취를 남기며 빛과 어둠 사이를 윤회하는 것이다. 어제는 이미 지나가 미련둘 것이 없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아 두려울 것이 없는데도 오늘의 주인공이 되질 못하고 변두리와 모서리에서 아웃사이더의 소외감을 느끼며 사는 것이다.

염기염멸(念起念滅)이 곧 삶과 죽음인데 생각에 갇혀 생각의 자유인, 생각의 행복을 뒤로 미루며 복 짓는 불교, 내생(來生)의 왕생(往生)을 약속 받는 죽은 신앙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태초에 도(道)가 있었고 도(道)에서 일(一)이, 일에서 이(二)가, 이에서 삼(三)이, 삼(三)에서 만물이 비롯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만물의 존재를 연기법칙(緣起法則)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此有故彼有),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此起故彼起).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此無故彼無),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此滅故彼滅)'며 상호 의존적 연계원리로 영원불변의 독립적 존재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지전능(全知全能)의 브라흐만(Brahman)의 존재도 인정할 수 없지만 영원불멸의 아트만(Atman)의 존재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호 의존적 연계작용으로 보고 듣고 느끼며 분별하지만 그 기능의 작동과 작용이 멈추면 나(我)라고 내세울만한 그 어떤 존재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뇌의 작용이던 신경세포의 작용이던 그 작용의 연결고리가 동작을 멈추면 육체를 이룬 각각의 요소는 지(地) 수(水) 화(火) 풍(風)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영혼이라 하든 마음이라 하든 진여(眞如)라 하든 어떠한 영원불멸의 존재가 있을 경우, 중풍으로 쓰러져 반신(半身)이 마비될 경우 움직임과 감각작용을 잃을 경우 영원불멸 한다는 그 무엇의 존재는 왜 작용을 멈추고 침묵하는가?

육체는 사라져도 죽지 않고 윤회한다는 그 무엇의 존재는 왜 유년기, 청년기, 노년기의 육체의 변화에 따라 그 기능이 달라지며 육체의 기능을 따라가는가? 사람의 몸은 소우주라서 숱한 생명체의 집합체인데 들숨 날숨이 이어지지 않아 죽음에 이르렀을 경우 나(我)라고 하는 존재만 육도윤회하고 그 숱한 육체를 이룬 생명체들은 그럼 윤회 밖으로 사라진단 말인가?

우리에겐 오늘, 지금의 이 순간만이 집착 없이 '無我'를 깨닫길 바랄 뿐

육체의 대표가 나(我)이며 나는 마치 대통령 같은 존재이므로 나는 카르마(Karma)에 따라 윤회하고 육체를 이룬 다른 세포조직의 생명체들은 힘없는 백성과 같아 사라져야 된다는 논리인가?

부처님은 초기경전에서 수레를 해체하면 수레일 수 없고 뿌리, 줄기를 분해하면 장미꽃도 만날 수 없으며 불(火)을 이룬 짚단이 사라지면 불꽃의 기능도 사라지게 됨을 경전의 곳곳에서 자상하게 설명하며 무아(無我)를 일깨워 준다.

그러므로 전생(前生)을 불러들이거나 내생(來生)을 끌어들이지 말 일이다. 오로지 오늘의 지금 이 순간의 주인공이 되어 넉넉하게 당당하게 여유 있게 행복과 자유를 누리며 살 일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후의 세계, 육도윤회에 있는 게 아니라 현생의 오늘의 생각의 윤회를 줄여 평화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다. 오로지 우리에겐 오늘, 지금의 이 순간뿐이다. 자유와 행복을 위해 머묾 없이 집착 없이 진리와 한 몸을 이루며 무아(無我)를 사무치게 깨닫길 바랄 뿐이다.

자성을 찾아가는 근본불교

제 1 기생 길 따라 절로 가는 설봉포교원

6개월 과정 신입생 모집

화엄경(華嚴經)반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반 ~ 9시까지

반야심경(般若心經)반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반 ~ 9시까지

• 입 학 식 : 9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

공부하는 날

• 화 엄 경 반 : 9월 2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반야심경 반 : 9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근본불교(根本佛敎)의 기본사상(基本思想)과 진여실상(眞如實相)을 화엄만다라(華嚴曼荼羅)와 반야(般若)의 지혜바라밀(智慧婆羅蜜)을 실천수행 하므로 즉신성불(卽身成佛)하는 참 불자(佛子), 법우(法友)의 법연(法緣)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신청서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 설봉포교원

▫주소 :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131-5번지
010-5660-3653 주지스님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개혁회의의

입종 및 사암등록 모집안내

법인등록번호 : 205421-0000520

대한민국의 승려라면 누구나 부처님의 일불제자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고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으로 병들어 가는 한국 불교를 바로잡아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책무를 펼쳐 나갈 사찰 및 각 지역 교구장, 종도님을 널리 모십니다.

사찰등록신청 제출서류

■ 사찰등록신청서 ■ 임대일 경우(임대차 계약서 사본 1통)
■ 법당사진(내, 외) 각 1매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지 임명 관련서류

■ 서약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진 3매(여권사진 규격)

대한불교조계종개혁회의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개인사암은 개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개혁회의 총무원

전라남도 영암군 산호리 614번지 ☎ 062)222-6366
대구시 동구 파계로 120길 91-1 자인사 종무실
010-6399-0020 / 팩스 053)984-1129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조각승 수연 스님과 쌍벽 이룬 거장



최선일 위원의 佛母列傳

⑯ 현진(玄眞) 스님







17세기 전반 현진 스님이 만든 대표작인 1612년 함양 상련대 목조보살좌상(사진 왼쪽)과 1626년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불좌상(사진 가운데) 및 1633년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사진제공=송광사 성보박물관장 고경 스님 · (재)불교문화재연구소 ·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임진왜란 기간 의승군 참전 추정
왜구 의해 소실된 사찰 불상 조성
1610~1630년대 불상 제작 주도
현진 스님은 전국을 무대로 활동

7년간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끝나고 사찰의 중창과 중수에 따른 불상 제작은 1600년대부터 1630년대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전라도와 충청도의 명산대찰(名山大刹)은 부휴문도(浮休門徒)에 속하는 스님들이 중창과 중수를 주도하였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조각승은 수연(守衍) 스님과 현진(玄眞) 스님이다. 이 스님들의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은 17세기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봉안하였다.

1610~30년대 전국을 무대로 불상을 만든 대표적인 조각승은 현진 스님이다. 1612년에 경남 진주 월명사 목조여래좌상과 함양 상련대 목조보살좌상을 만들 때 수화승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아 스님은 불교조각계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현진 스님이 만든 불상은 10건 18점이 조사되었다.

조각승 현진 스님의 생애와 승려 장인이 된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불상에서 발견된 문헌과 사찰의 연혁을 적은 사적기(寺蹟記)를 통해 활동 시기와 내용, 조각승 계보 등을 추정할 수 있다.

현진 스님이 수화승으로 활동하며 제작한 진주 월명사 목조여래좌상과 함양 상련대 목조보살좌상은 네 명의 조각승과 함께 만들었다. 이때 같이 참여한 학문(學文) 스님, 명은(明隱) 스님, 의능(義能) 스님, 태훈(太訓) 스님은 아직까지 불상을 주도적으로 만든 기년명 불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각승들이다.

현진 스님은 1614년에 전남 구례 천은사 목조보살좌상 2구를 만드는데, 본존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1622년에 왕실에서 발원한 한양 도성 북쪽에 있던 내원당(內願堂)인 자수사와 인수사에 봉안할 11구의 불상을 당대 최고의 조각승인 수연 스님, 응원 스님, 법령 스님 등과 조성하는데, 수연 스님보다 앞서 언급된 것을 보면, 연배나 지위가 수연 스님보다 앞서고 이 불사(佛事)를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성된 11구의 불상 가운데 현재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이 서울 동대문 지장암에 봉안되어 있다.

또한 스님은 1626년에 수화승으로 충남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에 봉안된 소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을 제작하였다. 이 삼신불은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왼쪽은 아미타불, 오른쪽은 석가불을 조성한 것으로, 참여 작가가 청헌(淸憲) 스님, 연묵(衍默) 스님, 회묵(懷默) 스님, 옥정(玉淨) 스님, 도형(道泂) 스님, 영색(英賾) 스님 등 17명이 참여한 대규모 불사이다. 특히, 1630년에 중관(中觀) 스님이 쓴 〈속리산대법주사대웅대광명전불상기(俗離山大法住寺大雄大光明殿佛相記)〉가 법주사에 전하고 있어 조성 당시의 현황을 알 수 있다.

법주사 대웅보전은 1624년에 벽암각성 스님이 중창할 때 건립한 것으로, 총 120칸에 건평이 170평, 높이가 61척에 달하는 대규모의 건물로 다포식(多包式) 중층건물이다. 이 건물은 부여 무량사(無量寺) 극락전, 구례 화엄사 각황전(覺皇殿) 등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불전(佛殿)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전각과 불상 제작을 주도한 벽암각성(1575~1660)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승군(僧軍)을 이끌고 남한산성을 완성시켰으며, 사고(史庫)를 보호한 스님으로 부휴선수(浮休善修, 1543~1615)의 제자이다.

현진 스님은 1629년에 경남 창녕 관룡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좌상, 1633년에 부여 무량사 극락전 소조아미타삼존불좌상, 1636년에 청도 적천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 1637년에 경북 성주 비슬산 명적암 목조아미타불좌상(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을 수화승으로서 제작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알려진 문헌기록을 바탕으로 현진 스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스님은 1570년대 태어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기간 중 의승군으로 활동한 뒤, 1612년 이전부터 불상 제작에 관여하였다. 스님이 불상을 제작한 사찰은 진주 월명사, 함양 상련대, 구례 천은사, 서울 자수사와 인수사, 보은 법주사, 창녕 관룡사, 부여 무량사, 청도 적천사. 성주 명적암 등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현진 스님의 활동 시기는 1612년부터 1637년까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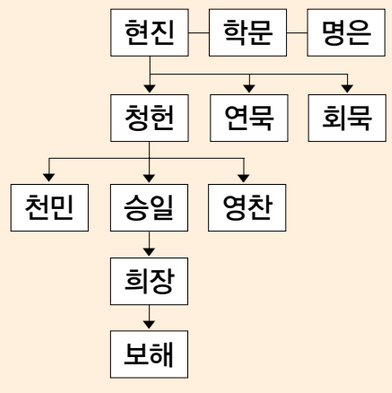
현진 스님은 어느 스님 밑에서 불상 제작을 배웠는지 알 수 없고, 그 계보는 현진(玄眞, -1612-1637-)→청헌(淸憲, -1626-1643-)→승일(勝日, -1622-1670-)→희장(熙藏, -1636-1666-)→보해(寶海, -1646-1680-) 등으로 이어진다. 현진과 그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들은 17세기 불교 조각계를 주도하던 작가들이다.



1612년 함양 상련대 목조여래좌상 발견 조성발원문.
사진제공=함양 상련대

현진 스님이 만든 가장 빠른 작품인 함양 상련대 목조보살좌상은 높이 36.3㎝로, 조선후기에 제작된 소형으로, 얼굴을 약간 앞으로 숙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화염문(火焰文)과 화문(花文)으로 장식된 높게 솟은 원통형 보관은 불상의 조성 당시에 제작된 것보다 후대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불상의 얼굴은 각이 진 방형(方形)으로 눈꼬리는 약간 위로 올라가 있고, 코는 곧게 뻗은 삼각형이며, 작은 입에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다. 머리카락은 귀고리를 단 귓불 위를 지나 양쪽 어깨에서 팔뚝까지 길게 보주형(寶珠形)이 겹친 형태로 늘어져 있다. 따로 제작된 양손 가운데 오른손은 가슴까지 올려 엄지와 검지를 둥글게 맞댄 손가락에 정병이 끈으로 묶여 있고,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대의자락은 오른쪽 어깨에 거의 사선으로 접혀 짧게 늘어지면서 팔꿈치와 배 부분을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자락은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수직으로 내려와 반대쪽 대의자락과 배 부분에서 U자형으로 겹쳐 있다.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은 배 부분에서 수직으로 대의자락이 늘어져 있다. 대의 안쪽에 걸친 승각기(僧脚崎)는 사선으로 접혀 간략하게 표현되었다.

현진 스님의 조각승 계보



그 후 스님이 1626년에 제작한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 소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본존이 높이 509㎝로, 조선후기에 제작된 초대형 불상이다. 불상의 얼굴은 각이 지고, 지긋이 뜬 눈은 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가고, 코는 곧게 뻗은 원뿔형이며, 입은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다. 비로자나불이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자락은 1614년에 제작된 구례 천은사 목조보살좌상 같이 가장 안쪽 옷깃이 가슴까지 완만하게 접혀 늘어져 있다. 왼쪽 어깨에서 동일한 두께로 늘어진 대의자락은 끝부분이 n자형으로 처리되어 있다. 비로자나불은 대의 안쪽에 편삼을 착용하고 지권인을 결하여 대의자락이 좌우대칭을 이룬다. 그러나 양 협시불은 대의 안쪽에 편삼을 입지 않아 팔목이 노출되어 있다. 왼쪽 어깨 측면에는 대의자락이 양쪽으로 가늘고 짧게 늘어져 끝부분이 역삼각형으로 처리되고, 그 사이에 넓은 U자형의 대의자락이 늘어져 있다.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은 배 부분에서 수직으로 한 가닥의 주름이 길게 늘어지고, 좌우에 몇 가닥의 주름과 무릎에 사선으로 2가닥의 옷주름이 표현되었다. 협시불은 대의 안쪽에 입은 승각기를 가슴까지 끌어올려 끈으로 묶은 뒤 상단부분을 연판형(蓮瓣形)으로 처리하였다.

현진 스님이 1637년에 조성한 성주 명적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현재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불상은 높이가 33.1㎝인 소형으로, 상체를 약간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따로 제작된 양 손은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댄 수인(手印)을 하고 있다. 앞으로 숙인 머리에는 나발이 촘촘하고, 육계의 표현은 명확하지 않다. 정상부에 원통형의 낮은 정상계주와 이마 위에 중앙계주를 가지고 있다. 원형에 가까운 둥근 얼굴에는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가 지긋이 뜬 눈, 원통형의 코, 살짝 미소를 머금은 입을 가지고 있다. 두꺼운 대의는 오른쪽 어깨의 일부를 덮고 팔꿈치와 배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간다. 왼쪽 어깨의 측면에는 대의자락이 앞쪽에 가늘게 늘어져 끝부분이 둥글게 마무리되고, 그 뒤로 넓은 U자형의 대의자락이 표현되었다.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은 배 부분에서 거의 수직으로 내려온 옷자락을 중심으로 나머지 자락이 사선으로 늘어져 있다. 대의 안쪽에 입은 편삼은 왼쪽 어깨를 덮은 대의자락과 배 부분에서 안으로 접혀 있고, 가슴까지 올려 접은 승각기는 수평으로 묶어 간결하게 표현되었다.

현재 조사된 현진 스님이 제작한 불상은 대형의 소조불과 중 · 소형의 목조불이다. 높이와 무릎 너비의 신체비율이 소조불은 1:0.74-0.79인 반면, 목조불은 1:0.63-0.66으로 줄어들었다. 얼굴 표현에서 1612년과 1614년에 제작된 목조보살좌상은 넓은 이마에 이목구비가 안면 중앙으로 몰려 있고, 코는 짧고 뾰족하며, 작은 입에 미소를 머금고 있다. 그러나 현진 스님이 1629년에 제작한 관룡사 불상부터 방형의 얼굴에 원통형의 코, 얼굴에 비하여 작은 입을 가지고 있어 조형감각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목조불보다 소조불의 이목구비가 더 입체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 대의자락이 짧게 늘어져 있고, 안쪽 대의자락의 옷깃이 사선으로 반전(外反)되었다가 1628년에 만든 관룡사 불상에서 대의자락의 끝부분이 U자형으로 늘어지기 시작하였다.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은 법주사 소조불상을 제외하고 배 부분에서 길게 늘어진 대의끝부분이 수직으로 한 번 접혀있고, 끝부분이 U자형으로 처리되고, 무릎에 2가닥의 옷주름이 수직으로 늘어진 것이 현진 스님이 제작한 불상의 가장 큰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대의 안쪽에 입은 승각기의 표현은 대형소조불은 연판형으로, 목조불은 수평이나 사선으로 접어 처리하였다. 이 가운데 승각기 상단의 연판형 처리는 다른 조각승이 제작한 불상보다 실제 승각기를 묶었을 경우에 접히는 표현을 하고 있다.

현진과 그 계보 조각승이 제작한 불상 양식을 바탕으로, 그의 양식적인 특징이 반영된 경남 남해 용문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경남 진주 청곡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 경기 안양 청계사 목조보살좌상, 전남 구례 화엄사 지장암 목조관음보살좌상(2006년 7월 4일 도난) 등은 17세기 전반에 제작된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도치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도치료법 1:1 또는 5인이하 실전교육을 상시합니다.

※ 기도 치료는 유사 사이비 의술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 의학입니다.



- 부처님은 약 3천년 전부터 기도치료를 가르쳐주신 大醫王이십니다.
- 기도치료는 유사 사이비 대체 의술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에 의한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질병치료법입니다.
- 캐나다에서 한의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석영창님은 그의 저서에서 "불교도들이 질병치료를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치료법 230P 값 19,300원
기도치료학 550P 값 24,300원
두권 구입 값 43,600원

- 위 2권의 책은 기도치료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기도치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의도한 서적입니다.
- 많은 불자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의 건강증진은 물론 포교와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전문기도치료사만 된다면 노후 걱정은 덜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70대 중반입니다만 가끔 한달에 천만원이상의 수입을 볼때도 있습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0-2093-3385, 011-557-2773
주 소 :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243-11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 협(정보석)
(책은 입금 확인후 택배비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 규격 : 12•19cm(복주머니),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Review 다큐 영화 〈브링 홈:아버지의 땅〉

失鄕 속 望鄕의 노래

〈실향〉 〈망향〉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구요…." -강산에 '라구요' 中-

뉴욕에 거주하는 티베트인 텐진 릭돌이 고향 땅의 흙을 인도 다람살라로 운반하고자 결심한 것은 단순히 아버지에 대한 '효(孝)' 차원에서였다. '죽기 전에 티베트 땅을 밟아보고 싶다' 고 누누이 얘기한 그의 아버지가 결국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다큐 영화 〈브링 홈:아버지의 땅〉은 이런 뜻을 세운 텐진 릭돌의 100일간에 걸친 지난한 과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주는 감동은 효가 아니라 중국의 탄압 속에서 독립을 염원하는 티베트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다.

그깟 흙이 무어라고 티베트 내 중국검문소를 통과하지 못해 '밀수'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했을까. 내 고향 흙을 옮기는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는 아이러니 속에서 텐진 릭돌은 한숨짓는다. 흙을 담은 포대자루가 험준한 계곡 위로 이어진 로프를 타고 국경을 건너듯 중국인이 아닌 티베트인으로 살고자 한 이들 역시 한숨을 내쉬며 위험한 선택을 했으리라. 그렇게 티베트 흙 20톤은 2개의 국경과 50개의 검문소를 지나 총 2000km를 달려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다람살라에 도착한다.

흙을 가져온 텐진 릭돌에게 달라이 라마는 "중국은 자비와 연민의 대상이지 적이 아니다"고 설명한다. 그동안 티베트 독립을 위해 100여 명이 분신하고, 중국 탄압에 120만 명의 목숨이 스러졌어도 '평화'의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난민학교 아이들이 고국에서 온 흙을 만지며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있는 모습. 자식만은 티베트인으로 살길 바라는 부모의 바람에 따라 홀로 티베트를 떠나 다람살라서 지내는 아이들도 여럿 있다.
사진제공=버디필름

가치를 놓지 않는 티베트인들의 자세가 돋보인다. 다람살라 티베트난민학교 아이들은 고국에서 온 흙을 밟으며 '자유를 향한 노래'를 부른다. 밝지만 먹먹하다. 아름다움에 깃든 어둠이 보는 이의 가슴을 짓누른다. 그렇게 흙 20톤은 반나절 만에 6000여 티베트인들에게 나눠져 고향이 됐다.

이 영화는 상업영화처럼 특수한 촬영기법도, 빼어난 영상미도 없다. 게다가 불교사상을 담은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티베트와 중국의 정치적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도 아니다. 그저 중국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티베트자치구'를 '티베트'로 독립시키고자 하는 의지, 고향은 있지만 돌아갈 수 없는 실향민의 아픔이 짙게 배어있다.

영화 시사회서 관객들에게 "도움을 구하려는 게 아니다. 그저 현실을 알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텐진 릭돌. 어차피 열강은 약소국의 독립에 관심이 없다. 자국에 이득이 되지 않는 한. 개개인이 영화 한 편 보는 게 무슨 힘이 될까 싶겠지만 상처 입은 이에게 가장 큰 위로는 공감이다. 비슷한 질곡의 역사를 겪은 우리나라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영화 첫 장면으로 돌아가 본다. 히말라야의 거센 바람에 룽다(불교경전 · 진언을 적은 오색깃발)가 펄럭인다. 자본주의사회서 권력을 쥐고 있는 중국의 횡포에 주권회복이라는 가치를 놓지 않는 티베트가 엿보인다. 망향(亡鄕), 아니 망향(望鄕)이다. 윤호섭 기자

젊은 아티스트가 만난 일상 속 '깨달음'

프로젝트 그룹 핑크붓다 'BUDDHAS' 展

9월 1~15일 불일미술관서

영상 · 회화 등 30여 점 전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현대 · 감각적 작품 통해 전해

한 승려가 마조 도일 선사에게 '어떤 것이 도(깨달음)인가'를 물었다. 마조 도일은 이에 대해 "평상심이 도"라고 말했다. 깨달음이라는 것을 흔히 범부들은 생각할 수 없는 대단한 무엇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하지만 마조 도일은 깨달음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일상 생활에 하나 하나 몰두하는 순간을 깨달음이라고 본 것이다.

프로젝트 아티스트 그룹 '핑크붓다(대표 조수연)'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개최하는 'BUDDHAS' 전시회는 이 같은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의 메시지를 담는다.

이들은 미디어, 사운드, 설치, 회화 등을 접목시킨 다양하고 고유한 작업 방식으로 '일상 속에서 누구나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된 존재에 대한 문제는 현대미술에서 현대성이 부재한 소재로 폄하되고 있는 불교 예술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조수연 작가의 작품 'BUDDHAS'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지나가는 거리를 보여준다. 작가는 "매일 많은 부처를 만나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작품을 통해 전한다.

최경준 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 '환(還)'은 부처 실루엣을 향해가는 인간 군상들을 표현했다. 이에 대해 작가는 "참회하고 부처의 참 생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한다.



최경준 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 '환(還)'

정윤영 작가의 작품 '식물'은 식물과 색의 무늬가 중첩되면서 여러 생각의 편린들을 남긴다. 정 작가는 "식물이 지닌 자연스러움은 때때로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에 개입하여 관계 맺고 감각하는 사이, 그것은 내 삶의 편린으로 다시 살아난다"면서 "어떤 묵직한 의미 부여 보다는 식물이 제공하는 잔잔한 울림이 곧 나라는 '존재'의 문제로 연결됨을 알아차린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 대해 핑크붓다는 "부처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면서 모든 것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아차린 이들에게도 통용될 수 있는 개념일 것"이라며 "생기 넘치는 젊은 작가들이 시도한 날 것 그대로의 창작 작업은 불교를 표현하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 밝혔다.

한편, 핑크붓다는 2013년 젊은 아티스트들이 의기투합 하여 만든 프로젝트 아티스트 그룹이다. 패션 디자인부터 디자인 경영, 회화, 불교미술, 사운드 등 구성원의 전공 분야도 가지각색이다. 대표는 조수연(동국대 불교미술 박사) 작가가 맡고 있으며, 구성 작가로는 전경희, 정금률, 정윤영, 최경준, 허효진 등이 참여하고 있다. (02)733-5322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박물관 교육도 이제는 맞춤형 시대

고판화博, 계층별 교육 실시… 하반기 프로그램 모집

한국 전통 판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의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고판화박물관은 올해에도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눙화판을 활용한 전통책 만들기'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 1,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전수했다.

문화예술을 통한 군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한 '군장병을 위한 숲속판화학교' 프로그램을 7년째 실시했다. 올해에는 800여명의 군 장병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외에도 고판화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강원도 지정문화재 7건을 중심으로 한 '목판본 삽화를 통한 전통판화학교'와 '가족이 함께하는 숲속판화학교', '군장병 힐링캠프' 등도 고판화 박물관이 자랑하는 교육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은 "고판화박물관이 실시하고 있는 13년의 박물관 교육은 그동안 찾아가는 박물관교육에서, 맞춤형 박물관교육으로 전문화되고 있다"면서 "다양한 맞춤형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에 학생들과 군장병,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문의 및 신청은 고판화박물관 홈페이지와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033)761-7885

신성민 기자

장인에게 배우는 '나만의 목가구'

은평한옥博 목가구 교육 프로그램 실시

은평구립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은 전통목공예 방식으로 목가구 작품을 만들어보는 '전통 목가구'와 생활에 필요한 목공품을 만들어보는 '나만의 목가구' 2개 교육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시행한다.

'전통 목가구'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5시에 진행된다. 총 12회 과정이며, 대상은 성인 16명이다. 교육은 사방탁자(사방이트여 있는 다층의 탁자) 또는 오동함(오동나무로 만든 보관상자)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오는 9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1~4시에 열리는 '나만의 목가구' 프로그램은 총 10회로 성인 16명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은 생활에 필요한 목제품인 찻상 또는 도마, 어린이의자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제작해보는 실습 과정으로 이뤄진다.

소목교실 강의는 조화신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교수(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전수교육조교)가 맡아 진행한다.

교육은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홈페이지(http://museum.ep.go.kr)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02)351-8527

신성민 기자

조계종 9월 9일까지 신작찬불가 지원 공모

불교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조화를 바탕으로 불교음악 활성화를 도모하는 신작찬불가 공모가 열린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대중 찬불가 · 찬불가 합창곡 · 찬불가요 · 찬불동요 등 신작찬불가를 9월 9일까지 공모한다. 불교사상 또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창작곡으로 장르 제한은 없다.

올해는 종령기구인 불교음악원이 주관해 서류심사만으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서 벗어나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를 거쳐 선정한다. 참가희망자는 조계종 홈페이지서 신청서를 받아 음원CD 1개, 악보 5부, 사진 1매, 참가비 5만원을 구비해야 하며, 우체국 등기 또는 직접방문 접수해야 한다.

상금규모는 총 1150만원이며, 대상에는 500만원이 수여된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10곡은 12월에 열릴 시상식 겸 신작발표 연주회를 위해 챔버 이상의 구성으로 편곡된 파일 및 악보를 제출해야 한다. 응모작품은 순수 창작곡 및 미발표곡이어야 하며, 기존 문학작품을 가사로 사용하는 경우 응모자는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02)3128-4866 윤호섭 기자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6.8.17~2016.8.2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틱낫한기도의힘	틱낫한	불광출판사
2	불교입문-도표로읽는	이자랑	민족사
3	어떻게 살 것인가(설정스님의인생법문)	설정/박원자	나무를심는사람들
4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5	알기쉬운 쏙쏙 능엄경	현담스님	도서출판선
6	지장기도(손으로쓰고마음으로그리는)	지원스님	민족사
7	스님의 비밀	자현/석공	(주)조계종출판사
8	스님의 첫마음	박원자	뜨란
9	날마다 새날-불교 명절에 담긴 수행이야기	법륜	정토
10	짧지만큰가르침(성철스님의)	원택엮음	장경각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조주 어록, 참된 길 일러줄 교과서"



조주어록 석의 (上, 下)

장산 지음
조계종출판사 펴냄
상 하 세트 5만원

"승가의 근본은 '두타승'이다. 버리고 버리고 또 버리며 탁발 받고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조주 선사의 어록을 보면 이 시대 한국불교가 지녀야 할 경책이 보인다. 불교 수행의 근본을 일깨우고 참된 수행 정신을 일러주는 조주 선사의 가르침을 살펴보았다"

부산 세존사 회주 장산 스님〈오른쪽 사진〉이 〈조주어록 석의〉를 펴냈다. 스님은 "조주 선사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어록을 통해 수행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조주 선사의 삶이 이 시대 한국 불교의 답이 될 것이다"고 출간 취지를 설명했다.

조주 종심(趙州從諗, 778~897) 선사는 당(唐)나라 말 혼돈의 시대에 육조 혜능이 펼친 남종선(南宗禪)을 크게 일으켜 한 시대를 풍미했다. 하지만 120세에 입적 전 까지 조주 선사의 일생은 단순함 그 자체였다. 조주 선사는 14세 가량에 남존 보원(南泉 普願) 화상을 만나 제자가 된다. 그 후 스승 남전 화상을 옆에서 시봉했다. 스승이 입적했을 때 조주 선사의 나이가 57세 였으며, 그 후 3년 간 상을 치러 탈상 했을 때는 60세였다. 이때에 '회창의 법난'을 피해 산속에 숨어 살다 법난이 끝났을 때가 70세 였으며, 그 후 10년 동안 행각을 이어 간다. 이 때 조주 선사가 지닌 것은 한 개의 물병과 석장 뿐이었다. 80세가 됐을 때 관음원 주지가 됐지만 너무나 가난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단 한번도 신도들에게 가난한 절의 사정을 살펴 달라 호소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장산 스님은 "조주 스님 어록을 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참 불교를 보았고 진실을 보았다. 조주 스님의 삶처럼 어록의 언구도 하나하나가 평범하고 일상적이며 단순하다. 하지만 날카롭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조주 스님 어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는 '정전백수자(庭前栢樹子)' '뜰 앞의 잣나무'가 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서 오신 뜻입니까?'라는 물음에 조주 스님이 답한 첫 구이다. 실제 관음원에 가보면 뜰 앞에 있는 것은 지빵나무이다. 문제의 요점은 '무엇이 있는가?'가 아니라 '왜 그 잣나무가 거기 있는가?'에 있다. 모든 것이 시절인연 바로 연기법"이라고 말했다.

저자는 일상에서 흔히 보고 행하는 것으로 연기를 설명하는 힘은 바로 수행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실상을 깨닫는 수행의 삶이 바탕이 돼야 조주 선사의 어록을 이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교는 수행을 근본으로 삼아야
조주 선사의 단순한 삶 배워야
현토, 석의 등 폭넓은 선어록 담아

장산 스님의 〈조주어록 석의〉은 〈고존숙어록〉에 실려 있는 〈조주어록〉을 저본으로 삼아 원문에 현토를 달아 번역하고, 석의(釋義)를 달아 이해를 높였다. 또한 저자 장산 스님의 선불교와 〈벽암록〉 〈경덕전등록〉 〈임제록〉 등의 선어록, 경론(經論)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읽기 편하게 담아 더욱 특별하다.

장산 스님은 "임제 가풍을 잇는 한국 불교지만 법문서 주조 선사의 어록은 많이 등장 한다. 그 만큼 중요하지만 현재 어록에 대한 설명이 다양하지 않다"며 "교과서적인 책을 펴내 학인과 불자들 누구나 읽어도 이해가 가능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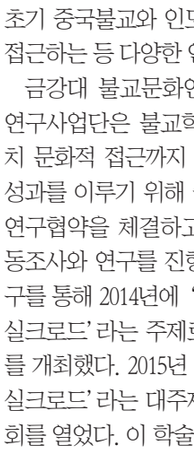
한편 장산 스님은 1963년 해인사로 출가했다. 해인사 고암 스님을 은사로 모셨으며, 1969년 해인강원, 1976년에는 동국대 불교대학 승가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85년에는 호주 시드니에 불광사를 설립했고, 기장에 대자원, 부산 세존사를 창건했다. 2013년에는 부산서 설악산까지 53일간 왕복 1,300km 걷기 수행도 진행해 큰 관심을 끌었다. 대한불교조계종 초심호계위원, 법규위원, 교육원 역경위원장, 동명불원 주지, 대각사 주지와 재단법인 대각회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화엄경 100일 법문〉 〈걷는 곳마다 마음 꽃이 피었네〉 〈자비(慈悲) 멀리서 가까이에서〉 〈고암 법어록〉 등을 비롯해 다수의 역서가 있다.

하성미 기자

학자들이 재조명한 고대 실크로드

종교와 민족, 실크로드

금강대 불문연 지음 | 민족사 펴냄 | 3만 2천원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동서 문화교류의 장(場)인 고대의 실크로드(Silk Road)가 현대 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가장 이슈화하는 교류의 장으로 급부상 중이다. 실크로드를 향한 현대 사회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고대 실크로드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 진다.

하지만 고대 실크로드는 이미 붓다루트(Buddha Route) 또는 다르마로드(Dharma Road)라는 별칭을 붙일 정도로 불교와 밀접한 길이며, 그런 만큼 실크로드에 대한 불교학계의 관심은 이미 진작돼 있다. 돈황 사본에 대한 연구 활동을 비롯해 초기 중국불교와 인도불교사의 연장선에서 접근하는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한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 연구사업단은 불교학적 접근부터 사회 정치 문화적 접근까지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성과를 이루기 위해 중국서부변강연구원과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실크로드에 대한 공동조사와 연구를 진행했다. 1여 년 공동 연구를 통해 2014년에 '종교와 역사의 교차점, 실크로드'라는 주제로 제1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015년 3월에는 '종교와 민족, 실크로드'라는 대주제로 제2회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 학술대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파키스탄 등 5개국서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학자가 참여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주로 실크로드 상에 존재한 민족과 종교, 그리고 그 속에서 파생된 문화, 고고학적 성과와 발견된 문헌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발표됐다. 새로운 자료가 제공되기도 했고, 국내에서는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소개가 이뤄지는 연구 성과도 있어 실크로드에 대해 좀 더 폭넓게 이뤄졌다. 또한 참여한 연구자 수가 19명에 이르기 때문에 실크로드상의 종교와 민족에 관한 내용을 총망라하는 계기가 됐다.

이 책은 제2회 학술대회서 발표된 글을 모았다. 학술대회를 기획한 입장서 총 19편의 발표논문을 접근 방식에 따라 '실크로드와 종교' '실크로드와 민족' '실크로드와 문화' '실크로드와 고고 문헌'이라는 4개의 주제로 재편집했다.

제1부 '실크로드와 종교'에서는 실크로드상서 검토할 수 있는 종교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다. 중국서부변강연구원장인 왕신(王欣) 교수는 중국서 불교가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실크로드 내의 불교와 흐름, 그리고 중국으로 전해지는 경로를 소개했다. 중국서부변강연구원의 한종이 교수는 우전(호탄, Khotan)에 불교가 전해지는 과정부터 발전사에 이르기까지 티벳문헌과 중국문헌을 바탕으로 소개하고 있다. 금강대 불문연 한지연 HK교수는 실크로드의 고대 경제권을 고려하면서 대승불교가 본격적으로 집단화되는 과정에 중국이라는 요소가 있고, 일방적인 동전(東傳)이 아닌 쌍방향 교류를 주장했다.

제2부 '실크로드와 민족'에서는 실크로드상의 여러 민족과 그들의 활동, 종교적 신

1년여 공동연구… 19명 학자 참여
제2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 모아
실크로드와 종교 등 4주제로 편집

앙 형태 등을 주로 다룬다. 중국서부변강연구원의 한샹 교수는 실크로드에 존재한 여러 민족이 당나라에 들어왔을 때의 변화 모습을 다루는데, 그들의 습속과 이름과 종교적 성향 등의 변용을 상세히 소개해 실크로드 민족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여준다. 중국서부변강연구원의 왕차오(王超) 연구원은 중국 신장성뿐 아니라 타지크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이란 등에 분포한 타지크 민족이 여러 종교에 미친 영향과 그들의 신앙에 관해 소개했다. 특히 불교, 조로아스터교, 이슬람뿐 아니라 마니교, 경교 등의 발전상과 함께 민족성을 고찰함으로써 다각도의 접근을 시도한 논문이라 할 수 있겠다. 중국서부변강연구원의 류홍 연구원은 고대와 중세에 치우쳐 연구된 실크로드에서 벗어나 청(淸)나라 시기에 발전된 민간신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제3부 '실크로드와 문화'에서는 민족과 종교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문화에 관한 소개가 이루어진다. 서북미술학원 리칭 교수는 누란에서 발견된 무덤에 대한 검토를 이루는데, 내부의 여러 유물들을 통해 실크로드상의 각 민족문화와 중국문화와의 결합과정 등을 논하였다. 서강대 동아연구소 강희정 HK교수는 돈황을 통해 잘 알려진 비천에 관해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의 여신과 비교함으로써 비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는 것과 동시에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의 세계화를 주장했다. 파키스탄 탁실라박물관 학예관인 나시르 칸(Nasir Khan)은 현재 탁실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을 비롯해 박물관이 소장하는 여러 불교 유물을 소개하면서 간다라 예술의 특징과 불교 유물의 특이점을 밝혔다.

제4부에서는 실크로드에서 출토된 고고학적 유물과 문헌을 중심으로 한 연구 성과를 모았다. 독일 괴팅겐학술원 정진일 교수는 동투르키스탄(新疆)에서 출토된 〈증일아함경〉 산스크리트 사본 단편을 소개했다. 금강대 불문연 차상엽 HK교수는 〈바셰(dBa' bzhed)〉와 돈황 출토 펠리오 티베트 사본 〈호탄불교사(Li yul chos kyi lorgyus)〉를 중심으로 호탄불교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 이는 제 1부의 한종이 교수 연구의 연구 성과와 연동하여 볼 수 있으며,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문헌을 통해 호탄불교에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 호탄불교 연구를 본격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논문이다. 탁실라 박물관장을 역임하고 현재 파키스탄의 콰이드 아이 아잠대학에 있는 아쉬라프 칸(Ashraf Khan) 교수는 탁실라 부근에 대한 고고학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루어내고 있는 학자이다. 논문에서도 역시 최근 발굴을 진행한 바달푸르(Badalpur) 사원에서 발견된 불교 유물을 소개하고 서북인도의 사원구조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불문연 측은 "이 책을 출간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연구자 숫자도 많고 연구 범위도 광범위하며, 각국의 언어가 한글로 번역되는 데에도 관련 전공자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출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래서 번역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시간 노력했으나 출간하는 이 시점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껴진다. 그러나 논문 한 편 한 편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실크로드에 대한 여러 관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측면에서는 학계에서 소중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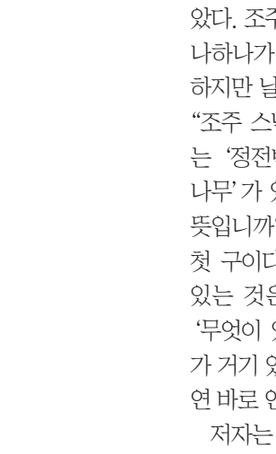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醫足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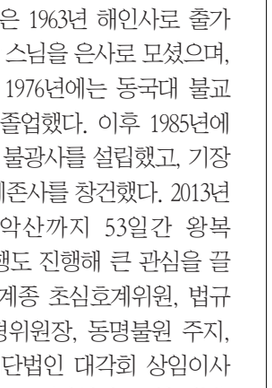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천지운명
건강 120세

여러분들의 건강이 수록 되어 있는 책!
"병들고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상담 환영



무령 엮음 | 신국대판 | 730 페이지
정가 150,000원
※ 스님 특별우대

이 책에는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효소(발효)담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아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또한 누구나 다 원하는 바 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승은 온 국민이 건강을 지키시라는 큰 발심을 하여,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한방이라던지 민간 요법 효소담그는 법을 연구해 온 것을 이 책 속에 수록한 것입니다. 부디 '천지운명건강 120세' 책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가보로 자리매김 하기를 발원하며, 불자 온 국민 여러분들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1 어떠한 병이라도 민간요법으로 치유할수 있음을 사실 그대로 이 책자에 수록 되어 있습니다.
2 특히 기관지 천식, 심장병, 피부병에 관한 민간요법이 탁월합니다.
3 명절 선물용으로 최고로 실속있는 책자이며, 어느 집이고 꼭 필요한 민간요법서 입니다.

H·P 010-4496-6060 / 팩스 043)881-1359
입금계좌 : 농협 351-0862-7188-33 (예금주 : 천운사)

대원 문재현 선사님 78번째 서적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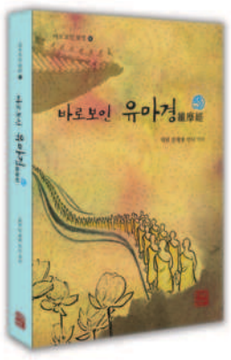
화엄경3권

화엄경 전자책 1권부터 5권까지 무료 공개!!

신간!

www.zenparadise.com 에 다운로드 방법 공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은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였다. 이러한 안목으로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 하신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바로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불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 대원선사 토끼뿔 〉로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

'火魔' 휩쓴 자리… 불제자가 지킨다

〈화마〉

자제공덕회, 캘리포니아 산불 이재민 구조 활동 '활발'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발생한 산불 '블루 컷 파이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세계최대 불교자원봉사단체인 '자제공덕회'가 생존자들을 위한 구조 활동을 하고 있어 화제다.

미국 'NBC뉴스'에 따르면 8월 18일(현지시간) "비구니 스님이 세운 비영리 국제기구 자제공덕회 회원들이 캘리포니아주 샌 버나디노 카운티 산불과 루이지애나에서 발생한 홍수의 이재민들을 위해 구호물품을 나르는 등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캘리포니아주 샌 버나디노 카운티의 최고 101㎢ 면적이 잿더미가 됐다. 여의도 면적의 34배 이상이다. 미 당국은 거주민 8만2000여명을 긴급 대피시키고 소방차 178대, 지역 소방대 26곳, 화재 진압용 비행기 10대, 헬기 17대, 소방대원 1천500명 등을 동원했다.

'블루 컷 파이어'는 지난 16일 샌 버나디노 산과 성 가브리엔 산을 잇는 도로인 카혼서 시작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온 건조한 기후 때문에 화마는 마른 나무와 덤불을 태우며 급속도로 거세졌다.

자제공덕회 자원봉사자들은 산불과 홍수 피해 지역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작업부터 시작, 미국 적십자회와 함께 식사 · 의류 등을 제공하는 재난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자제공덕회는 대만서 페트병으로 만든 '기적의 담요'를 이재민들에게 제공하고, 2,100여 피해 가족을 위해 84만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그들은 '블루 컷 파이어'로 인한 피해지역 뿐 아니라 미국 내 20여개 자연재해 현장서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6월 웨스트버지니아서 발생한 홍수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36만 달러를 모연한 일이 대표적이다.

세계적 불교봉사단체 '자제공덕회'
여의도 면적 34배 이상 태운
미국 '블루 컷 파이어' 피해현장서
구호물품 지원·84만 달러 모연
이 외 美 20곳 재해 현장서 활동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자제공덕회는 전 세계 300만 명 이상의 신도 및 자원봉사자들이 증엄 스님의 지도아래 부처님의 이상을 실천해 가는 독특한 불교조직이다. 1966년 4월 14일 대만 보명사서 '불교극난자제공덕회'란 명칭으로 출범, 초기부터 사부대중이 동참하는 자원봉사 및 후원단체로 활동을 시작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서 발생한 산불 '블루 컷 파이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세계최대 불교자원봉사단체인 '자제공덕회'가 구조 활동을 하고 있어 화제다. 사진출처=NBC뉴스

자제공덕회의 주요 사업은 자선, 의료, 교육, 문화, 국제구호, 골수기증, 환경보전, 지역사회사업 등 크게 8개 영역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중 특히 강조되는 사업은 의료 사회사업으로 병원건립, 의료 전문인력 육성 등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또한 교육사업 분야서는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시설을 건립 ·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보전운동과 지역사회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 자제공덕회 수퍼바이저 커티스 싱은 27년 동안 미국에 거주하며 재난구조 활동을 펼친 인물이다. 그는 "현재 2만 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다. 우리는 어떤 곳에서 재난이 일어나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명상, 후속 행동에도 좋은 영향 미쳐"

뇌과학자들, 명상 중인 스님들 뇌전도측정 연구 결과 발표

지난 5월 네팔서 명상 중인 티베트 스님들의 뇌파를 연구 한 과학자들이 마침내 뇌와 깨달음의 연관성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캐나다 언론 'CTV뉴스'에 따르면 빅토리아대학교 과학자들은 지난 5월부터 네팔 남체 지역에 머무는 티베트 스님들의 명상 중 집중력 차이를 연구했다. 뇌전도측정기구를 활용한 이 연구서 과학자들은 명상 전후의 집중력 차이를 밝혀냈다.

빅토리아대학과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가 공동 작업한 이번 실험의 총괄을 맡은 빅토리아대 올라브 크리골슨 뇌과학자는 "우리는 그들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고, 명상을 하면 통찰력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올라브 크리골슨 팀은 스님들의 두뇌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뮤즈' 헤드밴드를 사용, 27명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쉬고 있을 때, 명상을 하고 있을 때, 비디오 게임을 할 때로 나누어 뇌파를 측정했다.

과학자들은 스님들이 명상을 하고 있을 때 뇌가 가장 이완되면서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명상 후 비디오게임을 한 스님들은 그들의 뉴런(neuron)이 시각적 자극에 더 잘 반응하는 등 명상이 다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월효과가 있는 것도 밝혔다.



빅토리아대학교 과학자들은 5월부터 티베트 스님들의 명상중 집중력 차이를 밝혀냈다. 사진출처=CTV뉴스

과학자들은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뇌 활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올라브 크리골슨은 이 실험 외에도 고도(高度)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연구하고 있다. 고산지대에 있는 불교사원을 방문한 올라브 팀은 에베레스트에 베이스캠프를 두고 있는 생리학자들과 함께 스님들이 어떻게 고산병에 걸리지 않는지도 연구 중이다.

올라브 크리골슨은 "우리가 진행하는 일련의 연구들은 모두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지 2016년 7월 20일 자 1106호 참조〉

이보형 객원기자

"왜소증 승려는 자격 없어" 태국서 논란

푸삭사원 세름삭 탐마사로 스님
구족계 수지 한 달 만 승적 박탈
신장 99㎝ 체중15㎏ 왜소증 이유
지역 신도들 "안 된다" 큰 반발

큰스님 말 한마디에 승적을 박탈당한 승려 소식이 태국 현지서 논란이다. 자격 박탈 이유가 왜소증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 크다.

태국 인터넷언론 '프라차타이'는 8월 19일 "태국 남동부 소이 다오 지역 '탑창 사원' 주지 대변인이 지난 8월 16일 열린 승가회의서 '푸삭 사원' 소속 세름삭 탐마사로 승려 파직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승려계를 받은 지 겨우 한 달째인 세름삭 승려의 파직 이유는 '왜소증'이다. 세름삭 승려는 신장 99cm, 체중 15kg에 불과하지만 불심이 깊어 이에 감동한 마을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왜소증' 때문에 승적 박탈 위기에 처한 세름삭 승려(사진 맨 오른쪽). 사진출처=프라차타이

그러나 최근 승가회의서 익명의 큰스님은 세름삭 승려의 파직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 스님은 "신장이 너무 작은 사람은 계율에 의해 승려 자격이 없다"며 "승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름삭의 승려 지위를 박탈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승가에 계속 남아있길 원한다면 '난(Nayn · 사미)' 신분으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태국 불교계서 '난'은 20세 이하 사미를 일컫는 말로 올해 21살인 세름삭 승려에게는 맞지 않는 위치다.

이 소식을 접한 마을 주민들과 누리꾼들은 "세름삭 승려가 승가를 떠나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현지 민심과는 달리 세름삭 승려의 자격 박탈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태국 신문 '카오솟'은 '다나이 프리차페름싯' 탐마삿 대학 불교학과장 겸 교수의 말을 인용해 "불가 계율서 왜소증을 앓는 사람은 승려직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세름삭 승려는 언론과 인터뷰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승려직을 유지하고 싶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세름삭 승려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서 "승복을 벗더라도 부처님과 불교의 가르침을 계속 따를 것"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승희 수습기자

'상상초월' 불교 애니메이션, 북미 개봉

'쿠보 앤 더 투 스트링스', 8월 19일 극장가 출범

불교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쿠보 앤 더 투 스트링스(Kubo and the Two Strings)'가 8월 19일(현지시간) 북미서 개봉해 주목받고 있다.

불교전문지 'Lion's Roar'은 8월 19일 애니메이션 제작사 라이카(Laika)가 제작하고, 라이카의 최고경영자 트래비스 나이트가 감독을 맡은 '쿠보 앤 더 투 스트링스'를 소개했다.

'쿠보 앤 더 투 스트링스'는 불교세가 강한 일본의 한 마을서 '오봉 축제(お盆; 양력 8월 15일 조상을 기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일본의 명절. 대부분 불교식으로 행해짐)'에 참가하려는 주인공 쿠보의 모험담을 다룬다.

쿠보는 할아버지 문킹의 악한 영혼을 피해 어머니와 함께 집을 떠나게 되는데, 그 과정서 많은 고초를 겪게 된다. 할아버지와 이모 영혼들은 쿠보의 눈을 앗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하고, 엄마는 쿠보를 보호하려다 죽게 된다. 이후 쿠보는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아버지의 숨겨둔 갑옷을 찾기 위해 모험을 시작한다. 비현실적 내용을 기반으로 하지만 쿠보가 곳곳 장애물들을 헤쳐 가는 과정은 '상상력을 초월한 극적 이야기'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쿠보는 '고통은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불교적 진리를 깨닫게 된다.



애니메이션 '쿠보 앤 더 투 스트링스' 장면 중 일부. 사진출처=Lion's Roar

트래비스 감독은 "아내와 처가집 식구들이 모두 불교 신자기 때문에 불교와 매우 친숙하다"며 "이 영화를 통해 불교적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소중한 무언가를 잃는 등 고통은 반드시 겪게 된다'는 불교적 가치관을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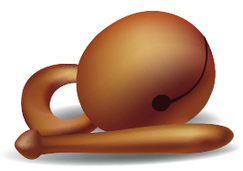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분노를 끊으면 편안히 잘 수 있고 분노가 없어지면 걱정이 없다. 분노는 모든 독의 근본이지만 수행자는 분노를 없애 편안함을 얻는다.

– 출요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수강후 법사증,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매주 : 화,목 강의 / 2시~4시
(교재무료)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051-245-5353

정암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529-1076
010-9944-1075

관상 손금
스님특별 책임 개인지도
– 배우자 관상을 보면 몇 살 때 어디 질병이 있는지, 죽음까지 알 수 있다
– 암, 질병, 묘터, 교통사고, 이혼을 얼굴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다
– 무속인, 철학인, 일반인 (천기누설)
– 관상과 손금, 임상비법, 관상과 손금 비밀이야기 (판매중)
010-4014-8822

평생교육원 등록안내
(불교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참나를 찾는 참선강의
9~11월 3개월간
매주(토) 14-16시 수업
초보자 환영, 기초부터 친절히 안내
(천안 동면 광덕사)
010-5588-6448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범패작법 전문교육 수강생모집
(6개월과정 / 수시접수)
교육내용 : 조석예불,새벽종송,사시불공,천도재, 사십구재,점안의식,구병시식,각종불공
바라무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 관욕바라,화의재바라,명바라
나비무 : 도량게,다게,운심게,오공양, 삼귀의,육법공양,향화게,법고무
* 범패작법 전문스님들이 사찰 각종행사 대행하여 드립니다 *
* 전생체험 및 빙의환자 퇴마치유 전문*
010-5269-4168
(연화사 범패작법교육원)

퇴불 철거
(탱화,동불,목불,석불,불기,석물)
모시던 부처님 회향하실때 좋은 인연으로 이원해드립니다
사찰,포교원 소개해 드립니다
법당철거,신당철거 정성을 다해 철거,퇴불,원상복구 해드립니다.
(주)다사팜
010-2395-3333

기문명리
초급과정(15주)
개강일 9월 6일(매주 화)
주간반 : 2~ 4시
야간반 : 7~ 9시
부경대학교평생교육원
수강신청 051)629-6791

사주핵심강의
(명리, 성명학, 영통비법)
기초반,일반부 :
3개월 60 만원
전문부 (핵심비법전수) :
2개월 100 만원
※ 철학관. 포교당 개업하실 분 (월 4회 강의)
010-3801-4266
운문산 벽송스님 합장

불교기초 의례의식
무료강습(실습위주)
대상 : 포교사 및 관심불자
일시 : 매주(토)15-17시.
9월개강(약3개월)
장소 : 정토 염불선원
(중랑구 신내10단지A내)
준비물 : 목탁,요령
실습수강료 : 무료
02)3423-0035.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0-3774-409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10-8721-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남원, 4대보험)
063-620-9201~5

문두루 기도법?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기도며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60세이상)
010-2585-7696

공 고
큰스님 모시고 참선 및 티베트 수행법으로 마음 닦으면서 시봉할 분.
(단,운전,숙식가능한 분/남녀불문)
010-4905-0575

漢文 한글(겸용) 불교상용의식집
"漢文 / 한글(겸용) 불교상용의식집"은
漢文念佛 한글염불 경전공부까지 스님들과 불자님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불교 상용의식집입니다!



● 제1권 (예경/각청) ● 제2권 (천도/시식) ● 제3권 (수계/방생)
● 제4권 (장의) ● 제5권 (점안) ● 제6권 (독송집)
● 제7권 (토속의식 모음집) 각권 20,000원
(스님과 신도가 함께하는 법당용 책 사찰에 맞게 만들어 드립니다)

발행인 : 금불 장엄사 주지 성묵 스님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4길-54)
주문처 : 054)974-1345 (장엄사)
010-7144-7339 (총 무)
010-5277-8024 (스 님)
계좌번호 : 농협 735091-52-058288 박명덕
(전국 불교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근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총무원장 및 각원 원장 모집공고
본 종단은 문공부 등록 및 등기필한 종단입니다. 유능한 인재 확보와 종세를 넓히기 위해 각원 원장 및 부원장님을 모십니다. 총무원장, 교육원장, 호법원장, 문화원장, 포교원장, 고시원장, 비구니원장, 전법사대전교
(사)대한불교대승조계종 010-8729-8494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자모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불교종단 사암 및 전통문화예술단체 사단법인 등록 | 가입 안내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음.



※본회에 불교종단 및 문화예술단체 200여 종단과 단체 가입되어 종무 행정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상 제정 상 · 훈장 시상
※세계불교승왕청 임원 추대 선임
※연 4회이상 연합법회를 통하여 시상 수여와 메시지,결의문 등 발표 기회를 드림
※연합불교방송과 신문으로 동영상과 신문으로 기사 홍보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 사단법인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이사장 법왕자 김소부
☎ 011-356-3427 (직접 방문 상담)
종단 · 사암 · 개인 홍보 동영상 제작
연합불교방송 편성국장 김병기
☎ 010-5334-9008

수행도우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 (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나를 헐뜯는 말을 들은 뒤에 그것을 갚는다면
그 원한은 끝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약하지만
참으면 강한 것이요,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 출요경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도심 속의 땅넓은 사찰◀
- 위치 : 부산시 신평동
- 총부지 : 4,000여평 ※일부 주거지
- 건물 : 법당 및 산신각, 요사채
- 조망권 : 먼바다와 노송이 우거진 멋진전망
- 가액 : 6억 8천만원

▶탁트인바다전망과 전통목조사찰◀
- 위치 : 용원 어촌계 부근
- 총부지 : 240평, 신도시 1만여세대, 대단지아파트
- 건물 : 목조법당(25여평), 요사채 목조산신각(7여평)
- 양도가액 : 6억 5천만원

연산공인중개사 제 26320-2015-00027호
051-863-6622
010-3560-8522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안성시 추천 급 사찰안내

(www.이박사.com)
- 법당 65㎡, 요사채 108㎡, 토지 1,000㎡
- 안성시 부근 사찰, 뒷편은 산이며 조용함, 작은암자로 적당함
- 가액 : 2억 7천만원, 조정가능(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부지 : 2000평
◎ 인법당 : 30평
◎ 차량진입,산세수려
◎ 양도 : 5억8천
◎ 위치 : 서울대형포교원
◎ 대지 : 70평
◎ 전체건물 : 200평
◎ 전철역앞, 주차가
◎ 양도 : 25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공원 사찰 안내

- 위치: 부산 온천동 금강공원 입구
- 총부지 : 203여평(주차장 완비)
- 건물1:법당 30여평, 요사채2동
  건물2:원룸 12개, 점포2개
- 전 월세 : 전세 2억에 월 400만원
- 인수가 : 6억 5천만원(은행 5억)

직통 010-2595-7752 전무
※사찰전문 만덕 부동산중개사
제 26320-2015-00027호

영주사찰(급)안내

- 산속사찰 주변좋음
- 토지 3,000제곱 사용, 법당, 요사채, 산신각등
- 조용하고 전망좋음
- 주변이 산이고 비구니스님 계심
- 가액 : 2억원(조정가능)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찰 안내

- 위치 : 원주 치악산 자락 아늑한 사찰
- 법당 30평, 산신각 6평, 노천불
- 목조건물, 전통법당
- 요사채 40평, 식당 40평, 창고 60평
- 대지 1,250평(종교부지)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6억 5천만원

010-4028-8896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동작구 사당시장 부근 7호선 약 3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주방,욕실,주차 2대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가액: 1,000만원, 월 11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즉시 법회 가능

010-4646-3638

사찰 안내

- 위치 : 물! 공기좋은 지리산 중산리 부근
- 대지 : 130평, 요사채, 후원, 실외화장실
- 텃밭 무한정사용 가능
- 가액 : 1억 6천만원

055-972-0338

삼보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액 : 12억
- 위치 : 경기
- 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5평
- 가액 : 6억5천

[포교원]
- 위치 : 안양
- 총평 : 65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방3개
- 시설비 약간,시설굿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경매상담, 부동산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량물건 보유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실 안내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목천읍
- 대지 173평
- 법당 25평
- 요사채 28평
- 가액 : 2억 2천만원

010-2376-5411
041-557-7786

토굴 안내

- 위치:경북 문경시 동로면
- 건물 목조 기와 30평
- 대지 100평
- 참고 : 면소재지에서 3.5㎞ 권리승계임
- 가액 : 6천만원

010-3189-8745

사찰 안내

- 위치: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 친견실1동, 산신각
- 사용가능 평수 약 200평
-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사찰 안내

- 위치:밀양IC 얼음골 방향 15분 거리
- 잣나무 숲과 계곡의 완벽한 환경
- 총면적 1,678평중, 대지 328평
- 2층 건물 1층 명상홀 및 요사 59평 2층 대웅전 24평
- 대나무숲속 삼성각 4.5평 별도 요사채 28평과 창고 20평
- 원통문 수월관음, 연화탑, 포대화상 등 석물 농지에 사과나무 220주 호두나무 40주
- 가액 : 7억

010-4895-2050

다용도 주택안내

- 위치 : 경기 양평 신복리 뒤는 산, 앞은 옥천시내 아신역에서 차로 5분거리
- 정남향(대지 257평 건물 40평) 지하암반수 마당 넓음,터와 주위에 약초 많음 (용도 : 암자 포교원 사주카페 등)
- 암환자 치유도량으로 최고
- 투자하고 같이 할 분도 환영
- 가액 : 4억 8천(실입주금 3억)

010-4234-2536

서울사찰안내임대

템플스테이 게스트 하우스
- 에어비엔비 운영할 분 환영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715-38
- 대지 80평, 건물 100평 2층
- 천연기념물 271 굴참나무 소재
- 은퇴자분 주거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추천
- 가액 : 8억, 임대협의

010-7452-4725

청주 도심사찰 안내

창건13년 청주 도심포교 기도도량
- 대지 : 60여평
- 건물 : 50여평
- 대웅전. 16아라한전. 산신각
- 요사채: 방5. 화장실2
- 아미타 대불 삼존불. 영험의 지장탱화
- 직접 방문 확인후 상담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가액: 4억5천만원

010-6372-8968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부산 산사 새벽시장 뒤 (서감초등 부근)
- 4층 건물에 2층
- 건 60평 포교원
- 법당 완전 구비, 즉시 입주
- 가액 : 1,8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800만원

010-7570-2051

도심속의아담한암자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단독 주택
- 가액 : 대출 ~7500만원~ + ~1억 3천5백만원 합 가액 : 2억 1천만원 (절충가능함)
- 꼭 하실분만 연락 주세요

010-7188-7723

사찰(급)안내

- 위치 : 창녕IC에서 10분거리
- 건물 3동, 대지 197평
- 법당, 삼존불 외 소불 150불
- 방 4개, 공양간, 화장실
- 가액 : 1억 4천만원 (융자 2천 5백만원 있음)
- 몸만 오시면 됨

010-7589-9600
010-3753-7844

임법당(급)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성당시장 약 5분거리
- 평수 : 대지 약 47평, 건물 약 27평
- 가액 : 1,0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300만원

010-5387-6767

사찰 안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사찰 안내

- 영월 근교 영월에서 25분거리
- 산좋고 물좋고 경치 좋은 동강 앞
- 대지 270평, 법당 17평(목족신축) 요사채 약 40평, 군부지 약 400평 사용함
- 가액 : 2억 5천만원

주인직접 011-792-8969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사직동
- 총 45평, 방 3개, 법당 25평
-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약왕보살 본존불 뒤 신중은 흑탱화, 산신탱화, 칠성탱화
- 신장, 소종, 북, CCTV, 에어컨, 컴퓨터, 냉장고 가전제품 일체, 책장과 도서류.
- 꼭하실 분만 연락 바람.시설A급, 즉시 법회가능, 몸만오시면 됨
- 큰스님 노환으로 치매가 발생하여 절 운영이 힘들어 급 양도
- 가액 : 보 1,000만원 70만원,시설비 3,500만원

010-5400-9411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1동 신정시장 부근
- 평수 30평, 2층독채 큰방3개, 거실, 욕실주방 시설비 금액은 1,600만원
- 편백나무 리모델링, 급한사정
- 위치 좋음, 교통도 좋음
- 삼존불,석가모니,약사여래,관세음보살
- 후불탱화, 용왕, 산신, 신중
- 가액 : 전세 1,000만원에 월 50만원

010-9902-3969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천호동 8호선 암사역 5분거리 대로변
- 시설 : 삼존불, 약사여래, 신중, 후불, 탱화 등
- 2층 전체 40평,법당,방2칸, 주방, 화장실, 욕실, 베란다 (몸만 와도 언제든 법회가능)
- 가액 : 1,000만원, 월80만원
- 꼭 하실분 시설비 700만원

010-2282-888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서구 대화동(3호선 종점 바로앞)
- 평수 : 법당 70여평, 숙소 72여평
- 가액 : 보 2,000만원, 월 22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31-925-0108
010-4490-1800

절터 안내

- 위치 :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계곡속
- 천하명당 절터 434평
- 입구에 폭포있음, 지방도 바로옆
- 전기, 관정 공사 완공 하천부지 일부사용
- 가액 : 5,800만원, 절충가능
- 장난전화 사절. 꼭 필요하신분 연락주세요

010-2499-3001

수행터 구함

- 위치 : 경북 김천 기준 차량 1시간 거리이내 (김천 상주 영동 성주 무주 예천 선산 증산 등)
- 배산임수의 삼태기 지형으로 외길의 맨 끝 위치 선호
- 전원주택지라도 조용하고 수행가능한 곳 선호
- 차량진입 가능한 곳, 물과 전기 사용 가능한 곳
- 10여평 정도의 건물이 있는 곳 선호
- 구입 예산 1억원 전후임
- 매매 우선이나 전세형태 임대도 가능함
- 실수요자(김천 지역)가 있으니 빠른 연락바랍니다

010-2765-2722

사찰(문화재 보유)안내

- 위치 : 강원 동해시 바다조망
- 건물 : 5동중 1동 2층 약 80평 신축
- 대지: 약 3,500평중 400 종교 용지
- 시내와 5분거리에 있으며 산중과 같음 위장에 양호한 약수가 나오는 곳임
- 본 사찰에서 유물이 약 40점이 발굴된 곳이며 일부는 문화재로 지정된 곳
- 현재 불사 진행중이며 불사에 관심이 있으신분 연락바랍니다.

010-4491-5556

사찰(터)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정안IC 10분거리
- 무성산 칠부능선
- 365일 1급수 물 사시사철 흐르고, 약수물 옹달샘 있음
- 가옥 40평, 25평(2채)
- 평수 : 8,500평(5,000평은 과수원)
- 뭐라해야 스님께서 오시려나... 정말 좋은데...
- 가액 : 9억(주인직접)

010-4130-0606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233-23번지
- 구옥 리모델링 별장같은 도량
- 특수담장 대문에 비디오폰 설치
- 이사없이 장기계약 가능한 도량
- 아담한 수행처로 내집같은 도량
- 세입자 뜻에따라 양도 가능 도량
- 가액 : 보 1,000만원 월 40만원
- 법당시설 불기구 일체 500만원

010-5458-295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 평수: 2층. 45평
- 법당 3존불조성, 완벽하게 갖추어진 포교당으로서 몸만 오시면 법회 즉시 가능
- 전세: 1,0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및 권리금 없음

010-2575-9876
010-9129-5976

사찰 안내

- 위치 : 창원시 마산 합포구
- 대지 : 54평
- 대웅전3존불, 산신각, 공양간, 탑2기, 방 2칸, 친견실 별도
- 주택가 위치로써 조용하고 깨끗함, 근령 2년
- 가액: 2억7천만원 (융자 7천만원 포함) 가격절충

010-9563-6787
055-246-885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200평,건평1층,요사채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황토방2개,화장실,주방,욕실
- 삼존불, 탱화, 인등, 영가단, 법륜대, 집기 일절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가액 : 3억8천(융자1억3천만원)
- 급 양도, 방문요, 즉시법회 가능

010-3186-0361

토굴안내

- 위치 : 충북 괴산에 위치한 명당터에 자리한 아담한 인법당
- 평수 : 대지 300평, 전 207평 합 507평, 건평은 60평
- 정고2동이 붙어있고 대형무쇠 가마솥2개가 설치되어 큰 법회 가능
- 황근 콘크리트 및 특수 벽돌로 단열이 잘된 집이며 절전형 전기보일러 설치되어 냉 난방비 저렴하며 6년정도 되었음
- 마당에 연못이 있으며 5층탑과 포대화상, 산신이 석조물로 조성되어 경관이 잘 어우러져 있음
- 전원주택 요양원이나 유치원 등 활용도가 상당히 좋은 곳이며 대형버스가 들어올 수 있으며 미래가 좋은 곳, 손수 설계하여 지은 건물이며 절 터이기에 아까운 곳.
- 부득이 양도 하고자 하니 꼭 사실분만 전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액: 2억 8천(융자 5천포함)

043-833-2259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영양 해발 500 울창한
- 국유림내 사유지 124평
- 별장지에 새로 시설한 암자 20평은 수행 하기에 딱
- 가액 : 8천만원
- 일부 금액은 후불 가능함

010-8899-8899

합천 무학동굴 앞 대지 및 전원주택 매각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529-2번지
- 대지417평(1,379㎡), 건물(전원주택)44평(147.36㎡)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529-8번지
- 임야 211평(699㎡)
- 특징 : 합천무학동굴은 조선시대 왕사인 무학대사가 어린시절 수련하였던 동굴이며, 동굴에는 무학대사가 술가락으로 팠다는 샘이 있다(경남문재재연구원의 합천무학대사 유허지 발굴 보고서 및 합천향토문화지 등에 기록)고 강숙자 보살이 무학동굴앞 부지를 매입하여 1999년부터 무학동굴을 관리하고 있었다.(건물은 2008년도 신축함)
- 가액 : 4억

010-2078-9595

사찰, 포교원 정보를 내 스마트폰에서...

Temple Kok



템플콕

출시기념! 무료이용 이벤트 ~ 9월 30일 까지

전국의 사찰, 포교원, 암자, 기도터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내 매물도 올리고..
(매물의 상태를 직접 사진으로 확인하고 지도검색을 통해 정확한 위치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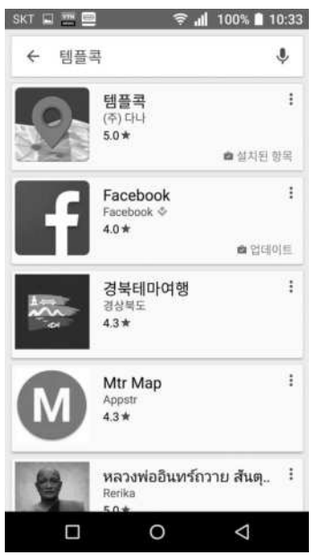
필요한 매물을 스마트폰에서 한 눈에 검색하고 바로 확인하고,
내 매물을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올려서 직거래 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항목별 (사찰, 포교원, 암자, 토지임야, 납골당 등), 가격별로 검색 가능 합니다.
▶ 매물 담당자와 직접 연락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이용안내

1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템플콕'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2 간단한 회원가입 후 본인의 매물 등록
3 게시 기간에 맞는 요금 결제
4 입력한 매물 게시(시작)일 - 오후 7시 등록 (관리자)

※매물등록은 매물보기에서 다른 매물 입력내용 확인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문의 02)2004-8214

주의 : 템플콕은 사찰 및 포교원 등 수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상호 직거래하는 방식이므로 거래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정 정리의 힘

구제고지(‘긍정심리학스쿨’ 대표)

〈3〉 단련하는 습관 ㊥

‘돕기 문화’ 심리적 장벽 낮춘다



사소한 일상, 큰 행복

대기업에서 일하는 H 씨에게는 입사 초기부터 교제해온 동기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H 씨는 사려 깊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할 때도 계획적으로 꼼꼼하게 준비해서 가장 가고 싶었던 회사에 멋지게 합격했습니다. 그 후에도 회의나 프레젠테이션, 사내 승진 시험 등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마다 미리 착실하게 준비해서 순조롭게 승진 코스를 밟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H 씨에게 우호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엄청난 노력파이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기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공을 들이는 사람이라고 오해했습니다.

H 씨의 남자친구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고 이해해주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승승장구하는 여자 친구를 자랑스럽게 느끼면서도, 끊임없이 초라한 자신의 모습과 비교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남자친구가 취한 행동은 H 씨에게 결별을 고하고 같은 회사 내에서 H 씨와 잘 알고 지내던 다른 여직원과 사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H 씨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H 씨에 대한 열등감이 그녀의 남자친구를 감정형 뱀파이어로 변모시키고 그녀로부터 활력을 앗아가 버리는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형 뱀파이어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교묘한 말솜씨로 능수능란하게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좌지우지합니다. 이런 상사와 업무상 관계를 맺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쿨 버튼’을 함부로 누르지 못하도록 이에 맞설 수 있는 감정회복근육을 단련해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긍정적인 감정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의 감정을 풍요롭게 만드는 습관을 들이면 긍정적인 감정이 당신을 지켜주는 방어막으로 작동합니다.

가장 먼저 감사를 느끼는 대상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입니다. 평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감정을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감정은 두 배, 세 배로 커집니다.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운 역경에 처했을 때는 타인의 배려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친밀감도 없는 직장이라면 역경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동료의 고통 알아채기

배려심이란 원래 불교 사상의 하나인 ‘자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자애란 ‘타인이 고난과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배려심 있는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할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행동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리기’입니다. 타인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배려심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언어적 메시지뿐 아니라 비언어적 메시지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행동이나 눈빛으로 보내는 비언어적 메시지는 많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공감하기’입니다. 이는 더 나은 위치에서 사람을 내려다보는 ‘동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배려심을 발휘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추고 공감하는 자세를 기본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대응하기’입니다. 자애심이 깊은 사람은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립니다. 먼저 상호간의 심리적 공감 관계인 ‘라포르(rapport)’를 쌓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원들의 행복도가 높은 직장’으로 소문난 기업에 방문해 인사 담당자들과 현장에서 뛰는 중간 관리자, 경영자들을 취재하면서 ‘좋은 직장’이란 어떤 직장인가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직원들끼리 ‘서로 돕는 행위’를 권장하는 사내 문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애심 연구 전문가 중 한 명인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제인 더튼(Jane Dutton) 박사는 “배려가 담긴 행위를 직접 보는 일은 우리 내면의 배려심을 키우고 상대방을 위로하는 관대한 마음을 불러온다”고 말했습니다.

배려는 불교적 ‘자애’와 같아
상대방 눈높이 맞춰 공감해야
서로 도우면 사내분위기 ‘UP’
도움 요청, 주저하지 말 것

자신이 받은 은혜나 친절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행위를 ‘나눔 릴레이(Pay it forward)’라고 합니다. ‘상부상조하는 분위기가 있는 직장’이 해외 기업에서 주목받고 있는 까닭은 업무 의욕 저하와 정신 건강 악화 등의 부정적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서 서로 돕는 행위가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1세기에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창의성’을 키우는 데에도 이렇게 서로 돕는 분위기가 있는 조직이 유리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미국에서는 서로의 업무에 관여하는 ‘서로 돕는 조직’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실력주의 중심의 경쟁 사회였던 미국이 스스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조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는 미국 서해안에 본사를 둔 구글과 페이스북, 픽사, 드림웍스, 그리고 디자인 회사인 IDEO 같은 고성장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혁신성’을 경영의 중심 철학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근무했던 회사도 미국계 기업이었습니다. 저는 각국의 인재들과 직접 만나 함께 일할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호주 사람이었던 여성 상사 J 씨가 기억에 남습니다.

J 씨가 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간부들과 직원들이 다른 사업부로 옮겨가는 등의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J 씨가 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하고 나서부터 사무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항상 목표 미달에 그쳤던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자 ‘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에는 실적이 완전히 회복되어 사내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부로 인정받았습니다.

J 씨가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녀와 단둘이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날 J 씨의 업무 신조를 들으면서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업본부장으로서 제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여러분이 갖춘 능력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사라고 해서 제 눈치를 보지 말고 본인이 맡은 업무에 집중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일에 부딪혀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바로 알려주세요. 저한테는 예산과 인력과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권한도 제법 갖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서로 돕는 관계를 조성할 때 방해되는 것은 ‘주저하는 마음’이나 ‘쑥스러움’ 같은 심리적 장벽입니다. ‘이런 부탁을 하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지요.

부하 직원들이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리더 스스로 솔선수범해 도움을 요청하는 모범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I Need Your Help’처럼 간결한 네 단어를 제시하면 부하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마법의 표현을 알게 된 뒤부터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제 부하들에게 이 마법의 문장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정도로 나의 도움을 원하는 부하 직원이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마음을 심리학에서는 ‘원조욕구’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자의 태도라고 여겨지기 쉬운데, 이는 잘못된 편견입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정신적 지주가 필요합니다.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경우에는 그 사람 주위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 운명이 달라집니다. 또한 스트레스로부터 신체를 지켜주는 호르몬 코르티솔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도쿄 대학교의 나카하라 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조력이나 조언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중간 관리자가, 조력을 원치 않는 고독한 중간 관리자보다 업무 실적이 더 높다고 합니다.

배려심이 없는 조직에서는 걸핏하면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쳤을 때도 서로 모른 체합니다. 만약 그러한 조직에서 일하게 됐다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서포터’를 찾는 것입니다. 여의치 않을 때에는 두 번째 선택지로 이동합니다. 인사이동을 청원해서 ‘그 조직에서 벗어나는 것’을 시도합니다. 당신이 현실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감정회복습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한 가지에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글은 〈감정 정리의 힘〉(다산 3.0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울산 인연사
- 법 명 : 인연(박성수)
- 주 소 : 울산시 두동면 구미리 849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법 명 : 영각(김형덕)
- 승려번호 : 101-088
- 주 소 : 부산시 영도구 절명로 281 (영선동 4가)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대한민국 영산재 50호

경기범패 학인모집

▶기초반 : 염불송, 예절법, 사물 (목탁, 요령, 태징, 북)
불교의 유래, 기도의 참법, 간단한 액막이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4시

▶승려반 : 도량석, 조석예불, 종송, 사시예불, 사물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4시

▶기능반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잡, 화의재바라 나비춤, 도량게, 다게, 법고무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4시

▶법주반 : 49재의식, 천도재의식, 시다림, 파묘의식, 산소이장법, 바라태징법, 새벽종송, 각종점안의식, 각종 점안의식, 각종이운법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 강 주 : 민지효 스님
- 개강일시 : 2016년 9월 5일
- 장 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24 광법사
(구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동 303-8번지 광법사

문의전화 010-4466-3575

민간자격 국가정보 5765 등록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평가◀

수정기공재활사 과정

호흡, 자기수련, 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숙지하고 이를 다양한 참가자들에게 보급하여 교육, 상담, 연구, 봉사활동을 하며 학교, 기업, 지역사회 공공기관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 전문가수준의 재활 활용능력을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심신이 복잡한 현대사회에 유망한 자격증이다.

http://soojung99.pe.kr/index.htmlPNO=138623274964492600

■ 강의내용 : 4 ~ 5차원 수정기공
선착순 15명 접수 (매월 시작)
4주 속성 완성
■ 일 정 : 매월 첫주 토, 일요일 1시 시작
4주 완성
■ 강 사 : 뇌교육 박사. 중의사.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 장 소 :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88-20
(성대역 부근)
■ 홈페이지 : http://soojung99.pe.kr/
■ 예 약 : 010-3463-7806



배종훈의
명상카툰

一喜一悲



절집에 가서 그림을 그려오라는 말에 내 마음은 이미 오대산 상원사로 달리고 있었다.

그 절집 마당서 달을 바라보고, 까만 밤을 푸르게 만드는 별을 눈에 가득 담고 싶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한 번에 날아가는 상원사와 달리, 먹고사는 일들을 모두 헤치며 차를 몰아 가야하는 상원사는 다른 곳이다. 막바지 휴가를 맞아 강원도를 찾는 여행자들에 끼어 해질녘에야 겨우 상원사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여유 있게 마당을 거니는 일은 이미 잊었고 해가 내려 앉아 황금빛으로 변한 탑과 마당이라도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가파른 계단을 달렸다. 그리고 마지막 계단.

문수전(文殊殿) 마당에 올라서고는 상상으로 한 번에 날아온 상원사를 다시 마주했다. 참 고약하고, 변덕스럽고, 번번한 마음이다.

'주말에 무리를 해서 여길 왜 왔나...'했던 그 마음은 이미 없었다.

어느새 상원사에 가서 절집 그림을 그린다고 들떴던 다시 그 순간이 눈앞에 있다.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친구, '아름다운 달'과 같은 것

굴려라, 똥! ㊦

아무리 용을 써도 똥 경단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동동이는 경단 주위를 둘러보았다. 뒷다리로 굴리느라 나뭇가지를 미처 보지 못했다. 비어져 나온 나뭇가지에 똥 경단이 콕 박혀 있었다. 뒷다리로 들어보고, 머리 뿔로 밀어도 봤지만, 똥 경단은 잠시 위로 올라왔다가 더 깊숙이 박혀 버렸다.

먼 산이 해님을 꼴깍 삼켰다. 부스럭부스럭 풀벌레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더 이상은 똥을 들 수도 밀수도 없을 것 같았다. 기적처럼 똥 경단이 쏙 빠져준대도 집까지 굴리고 갈 자신이 없었다. 등딱지가 많이 상했는지 등이 욱신거렸다. 어쩐 일인지 날개도 펼쳐지지 않았다.

"와, 정말 굉장한 똥 경단이구나."

덩치가 무척 큰 쇠똥구리였다. 녀석의 머리에는 크고 긴 뿔이 우뚝 솟아 있었다.

"넌 뿔이 정말 멋지구나."

"난 뿔쇠똥구리 힘찬이야. 똥 경단이 나뭇가지에 박혔구나. 이렇게 멋진 똥 경단은 본 적이 없어. 내가 좀 도와줄까?"

누군가 동동이에게 말을 걸고 다정하게 도움을 주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어쩌면 이 아이와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동동이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럼 네 근사한 뿔로 똥 경단을 밀어 올려줄 수 있니?"

"음, 그것보다는 네가 경단 아래에 구멍을 조금 파는 게 어때? 거기로 들어가서 등으로 경단을 밀어 올리면 내가 뿔로 경단을 뽑아줄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동동이는 똥 경단 아래에 머리를 박고 등으로 힘껏 밀어 올렸다. 혼자서는 움쩍도 않던 것이 금세 톡하고 뽑혔다.

"고마워. 정말 다행이야. 난 이 경단이 무척 마음에 들었거든. 아기 오리들이 장난치는 바람에 경단은 부서질 뻔하고, 난 등딱지를 좀 다친 것 같아. 힘들게 지켜낸 경단이라 꼭 집에 가져가고 싶었는데. 정말 고마워."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힘찬이는 똥 경단 위에 뒷다리를 올리더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갔다. 힘차게 똥 경단을 굴리면서.

동동이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뿔쇠똥구리 힘찬이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알아차렸다. 힘찬이는 처음부터 동동이를 도와줄 마음 같은 건 없었던 거다. 잘 빚어놓은 경단에만 마음이 있었을 뿐.

분한 마음은 들지 않았다. 달라고 했으면 그냥 줬을 것이다. 어차피 힘찬이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동동이 혼자서는 경단을 뽑지 못했을 테니까. 어쩌면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동동이는 마음으로 그 경단을 힘찬이에게 주었다. 힘찬이가 훔쳐간 게 아니라 동동이가 준 거라고, 애써 그렇게 생각했다. 동동이는 아주 잠깐 스쳐지나간 친구라는 존재가 아쉬웠다.

어두워진 하늘에는 총총총 은하수가 흐르고 동그란 달님이 환하게 빛났다. 동동이는 달님 같은 경단을 빚고 싶었다. 더럽다고 퉤퉤퉤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경단이 아니라, 너무 아름다워서 빛이 나는 그런 경단을 빚고 싶었다.



그림 · 강병호

힘찬이가 사라진 쪽에서 똥 경단이 데굴데굴 굴러왔다. 힘찬이가 돌아오면 경단을 그 녀석에게 주겠다고, 동동이는 다짐했다. 그러나 힘찬이가 아니었다. 뿔이 작고 등딱지가 반짝반짝 빛나는 귀여운 쇠똥구리였다.

"이거, 네 경단이지?"

"조금 전까지는 내 경단이었지."

"뿔쇠똥구리가 훔쳐가는 걸 봤어. 넌 멍하니 그 모습을 보기만 하더구나."

"난 지금 좀 아픈 것 같아. 등딱지를 다쳤거든. 그런데 왜 네가 똥 경단을 가져온 거야? 힘찬이는 어쩌고?"

"종달새가 부리로 꼭 찍어 갔단다. 그 불쌍한 뿔쇠똥구리는 신나게 똥 경단을 굴리느라 종달새가 날아오는 걸 못 봤나 봐. 뿔쇠똥구리가 있던 자리에는 똥 경단만 데굴데굴 구르고 있었어."

"정말 고맙다. 하지만 나는 지금 너무 힘이 없어서 경단을 굴릴 수 없을 것 같아. 원한다면 네가 가져."

"경단은 내가 굴려줄게. 넌 집으로 가는 방향을 알려줘."

"넌 정말 친절하구나."

"내 이름은 달이야."

달이. 달이. 동동이는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몇 번이나 되뇌었다. 예쁜 이름이었다. 동동이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달이는 이름만 예쁜 게 아니었다. 마음씨도 착하고, 머리에 난 뿔도 작고 귀여웠다.

동동이는 온 힘을 다해 앞으로 걸었다. 때로는 달이와 함께 경단을 굴리고, 때로는 달님을 보고 방향을 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달빛이 밝은 밤이었다. 달님이 일부러 밝혀주는 것처럼 동동이와 달이가 가는 길만 유난히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달이는 경단을 동동이의 집 안으로 굴려 넣었다.

"집에 있는 똥 경단들을 모두 나에게 줄 수 있니? 그러면 나는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단으로 만들어 줄 거야."

동동이는 힘차게 머리를 끄덕였다.

"이제 내 등 위로 올라오렴, 착한 쇠똥구리야."

달이는 경단 윗부분에 볼록하게 숨구멍을 만들고, 그 안에 알을 낳았다. 어두운 굴속에서 오랫동안 쌓여 있던 똥 경단은 불을 밝힌 등불처럼 저마다 환하게 빛났다.

동동이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달님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경단은 혼자서는 결코 빚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먼먼 시간의 기억을 떠올렸다. 동동이가 동동이가 아니었을 때를, 경단 속 고치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를, 고치가 되기 전 보드라운 똥을 야금야금 갉아먹던 애벌레였을 때를, 애벌레가 되기 전 알이었을 때를, 알이 되기 전 엄마 아빠의 몸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을 때를.

알을 품고 있는 경단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그 작은 알 속에 동동이와 달이가 들어있기 때문이었다. 엄마의 엄마와 아빠의 아빠가 살아온 기나긴 시간의 무늬가 아로새겨져 있기 때문이었다.

동동이는 온몸이 나른해지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깊고 긴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끝〉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前 상임위원장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덕오 석수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성산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대전종무원장 석법오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원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능현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전국청년회장 한관영

부산 제2총무원
총무원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 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부산지부 제2총무원 혜광사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행 스님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어떻게 죽은 세상에 가겠습니까?

왜 체계를 잡아서 이끌어 주지 않는지

질문 수년 동안 선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빨리 공부를 성취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투브를 통해서 다른 스님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의 동영상을 보다 보니 수행의 단계를 구분해서 증표 같은 것을 주기도 하고, 어떤 단계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한다 하기도 하던데 선원에서는 왜 그렇게 체계를 잡아서 이끌어 주지 않는지요.

답변 내가 말을 하면 여러분이 먹을 것이요, 여러분이 질문을 해도 내가 먹고 없는 것입니다. 함이 없이 하는 도리가 바로 이 도린가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러한 도리를 공부하는 데 대해서 갈등이 있거나 방황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도 또 이건 대승(大乘)이니 소승(小乘)이니 하면서, 여기는 체계가 잡혔느니 잡히지 않았느니 하고 생각들을 하고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리라고도 생각합니다. 아주 없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하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것은 생활이 참선이요, 생활이 바로 진리요, 자기 마음을 탐구하는 데 대해서는 앉는 것도 서는 것도, 눕는 것도 모두가 참선이 되고 좌선(坐禪), 와선(臥禪), 입선(立禪)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도리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체계가 잡히지 않은 듯하지만 일체 만법의 체계가 잡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나가는 거, 질서를 지키고 도의를 알고 의리를 알고 사랑을 알고, 이러한 전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참선이며, 진리를 그대로 탐구하고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승이니 소승이니 하고 잘못됐느니 잘됐느니, 체계가 섰느니 안 섰느니 하고 그거 논의하다가는 여러분이 죽으러 가는데, 지금 관에 들어가야 할 텐데 어떻게 이것이 체계가 잡혔느니 안 잡혔느니, 대승이니 소승이니 하고 그런 거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죽은 세상 50%를 탐구해야 사는 세상 50%를 같이 귀합을 시켜서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세세생생에 끄달림이 없이 윤회에 끄달리지 않게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참된 모습을 탐구하는 데에 지침이 될 거를 생각하면서, 지혜를 얻을 것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어떻게 죽은 세상에 가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죽지 않은 이상에는 죽은 세상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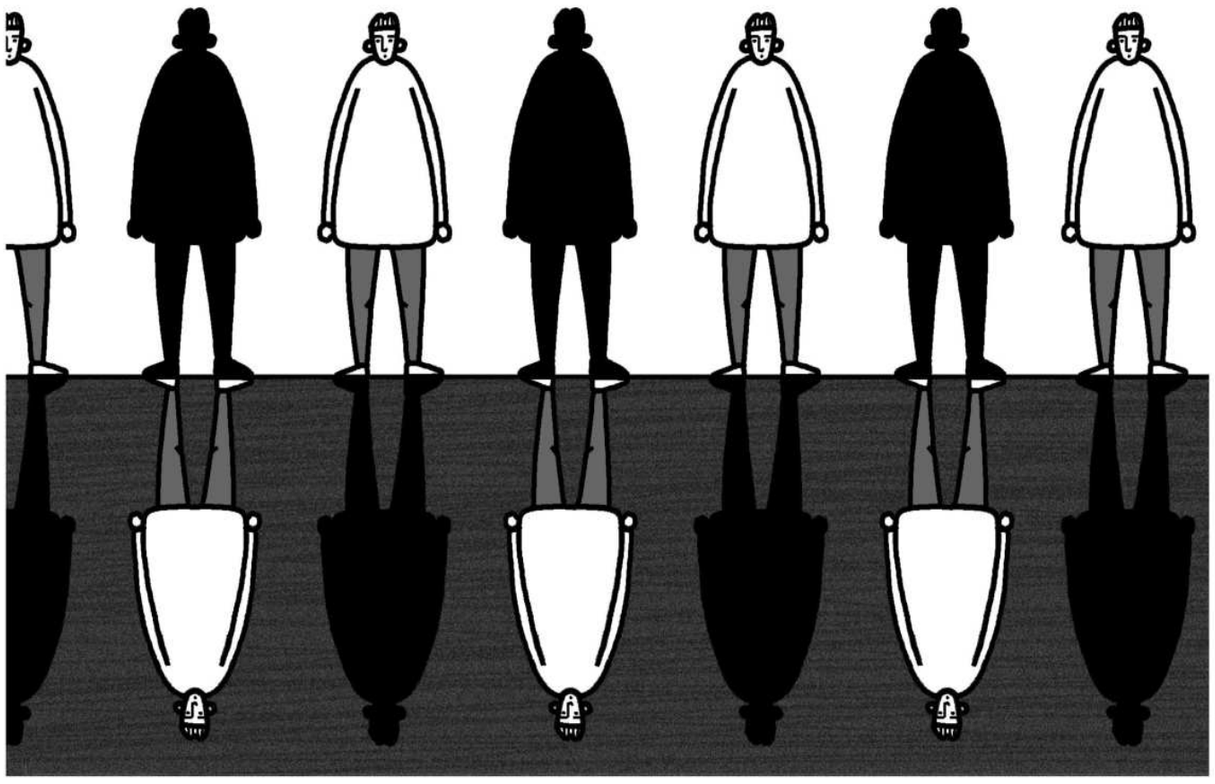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인공(主人空)" 하는 것을 예전에 육조(六祖) 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품이 스스로 청정함을 내 어찌 알았으리까?" 그 마음을 말하는 거죠. "마음이 스스로 갖추어 가지고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즉, 물러서지 않는다 하는 것은 구족함을 말하는 거죠. "스스로 내 마음이 내고 들이는 것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는 겁니다. 일체 만법을 말입니다. 이것은 우주 천지가 인간의 마음에 직결돼 있어서 돌아가는 뜻을, 대천세계, 중천세계, 소천세계가 한꺼번에 돌아가는 이치를 다 종합한 뜻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스스로서 직결된 거를 알고, 직결된 거를 알았으면 스스로서 자유롭게 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팔 법륜 마크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유 사무(四有四無), 사무 사유라고 해도 되고 말입니다. 바로 일체가 인간의 마음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면 스스로 그렇게 청정함을 알고, 스스로 갖추어 있는 거를 알고, 스스로 그렇게 구족함을 알고, 스스로 참,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그 자유자재함을 자기가 알고,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지 누가 그것을 갖다 주고 뺏어 가고 이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공부 하는 데 대해서 그것이 다 포함된 것을 '주인공'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한마음이라는 이 부처, 부처가 없는 게 부처다 했죠. 한마음이라는 뜻은, 이것은 어떠한 대(對)가 없는 게 한마음이야. 어떠한 그 뭐가 붙지 않는 것을 한마음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 그 한마음의 도리는 돌아(원을 그려 보이시며). 한마음으로 돌아가니까 육체도 모두가 같이 돌아가는 거야, 상대로 인해서. 내가 아니라면 상대가 살 수 없고 상대가 아니라면 내가 살 수 없듯이, 모두가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돌아가니까 그 돌아가는 찰나 생활이 한꺼번에 계합이 된 그 뜻을 주인공이라고 한 거라. 그러니 그 주인공은, 즉 말하자면 전체가 한데 합쳐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전체가 합쳐진 그것을 용광로라고도 하고 자가발전소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되고 못되는 거, 나중에 잘된다 못된다 이거는 개의치 말고 용광로에 넣기만 하는 작업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용광로에 넣기만 하는 작업을 한다면 재생돼서 나오는 쇠는 자동적으로 스스로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놓는다고 해서 잘될까 못될까 이런 건 걱정하지 말아야 이게 진짜 정통으로 나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다 일임해서 놓고 난 뒤에 재차 '아이고, 이렇게 놓는다고 저 일이 될까?'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그건 용광로에 정통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생돼서 나오는 거는 생각지 말고 여기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넣는 작업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아주 높은 산꼭대기, 제일 높은 데를 올라가는데 무엇을 자꾸 짊어지고 갈 바가 뭐 있습니까? 자꾸 놓고 가야지. 사람 몸뚱이 하나 올라가는 것도 무거운데 어떻게 자꾸 생기는 대로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그러니 올라갈 때는 다 놓고 올라가시라 이겁니다. 조금만 뭐가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고 이러면은 그냥 자만하고, 또 나쁜 게 보이고 좋은 게 보이고, 미운 게 보이고 이쁜 게 보이고, 이걸 일일이 욕심내고, 그 아집을 가지고 나라는 조건에서 영 한 발짝도 떼 놓지 못한다면 거기, 자기가 갈 수 있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내 짐도 무거우니까, 이 몸도 공(空)해서 이것도 놓고 지금 터벅터벅 가는 바 없이 가고 있는데 자꾸 짊어질 게 뭐 있느냐는 얘깁니다.

다 놓고 가다 보면 맨 상봉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모두 그 위에서 내려다보이더라 이거야. 전체를 볼 때하고 조그만 개별적인 거 볼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이더라 이거야. 전체가 보이는 걸 보니까 '아이고, 저기서 일어나는 것이 여기로 인해서 일어나고, 저기로 인해서 여기서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깐,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눌러지고 이쪽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니까 어떤 거를 손을 댈 게 없더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잘못하고 잘하고 그것이 없더라는 얘기죠. 남녀노소도 따로 없고. 무(無)의 세계, 유(有)의 세계를 다 합쳐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죠. 또 동서가 둘이 아니고 남자 여자가 둘이 아니고, 대승 소승이 둘이 아니요, 어려운 사람 부자 사람 이것이 둘이 아니요, 권세 없는 사람과 권세 있는 사람과 둘이 아니요, 항상 뒤바뀌지더라 이거야. 돌아가더라 이거야. 그래서 거기서 내려올 때는, 내려올 때는 다 주워 모아서 담아도 담긴 사이가 없더라. 담긴 사이가 없으니 내려와서는 내놔도 내놓은 사이

☞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잘된다 못된다 개의치 말고 용광로에 넣는 작업만 하라

☞ 25면에서 계속

가 없이 내놔지더라.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이 이 도리를 배우는 데는 천금 만금을 주고도 배우기 어려우니 지금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배우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스스로 익히고 자기 것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가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자비를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남의 책을 보고 남의 말을 듣고 지식적으로 머리에 넣어서 그거를 때에 따라선 얘길 하고 쓴다 해도 그거는 헛거야. 그래서 우리가 경(經)을 본다 하더라도 백지를 볼 줄 알아야 글을 볼 수가 있고, 글을 볼 수 있어야 만법의 근원이 지혜롭게 그 한 글자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북하면 '백'은 전체를 말하고 '지'는 지혜를 말한다고 하겠습니까. 글은…, 우리가 지금 '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다, 좋다' 하는 거를 모른다면 어떻게 부처를 이루겠습니까?

하여튼 망상이라는 것도 놓고, 우정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마음도 놓고 꾸준히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대로 여여하게 갖추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사생결단을 하고 '이놈의 게 왜 안 되나?' 하고, 모질음을 쓰고 '이게 이렇게 놓으면 된다는데 왜 안 되나?' 이러면은…, 지네가 가다가 "아이고, 다리가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가나?" 하니까, 딱 서서 못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못 갑니다. 그러니 누구한테 탈을 합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일러 드려도 놓지 못하고, 놨다 하더라도 또다시 '아이고, 이거 또….' 하고 방방방방 뛰고, 그렇게 뛸 때에 또 놓으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놨는데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안 된다는 생각까지도 놔야 될 텐데 왜 그걸 놓지 못하고 애쓰십니까.

도반들끼리 공부하다 보면…

질문 마음공부 하는 도반들끼리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고 또 그 경계를 파악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공부 방법인지요.

답변 그것은 확인을 하되 확인이 없이 확인을 해야 하는 도리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공부를 했다고 자기 주인공에서 말을 하란다고, 하고 싶다고 해서 마구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잘못되는 공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에서 보이기도 하고 또 들리기도 하고, 어떤 걸 알려 주기도 하고, 남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내 마음속으로 한번 실험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실험해 보겠다는 느낌이 일어나서 이제 실험을 해 보는 거고 체험을 하는 거지, 바깥으로 발설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 나가라는 뜻이지 이거를 그냥 묵인하고 이거는 "실험해 보지도 마라. 그냥 놔 버려라."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죠. 마음의 발전이 없어서 자기 능력을 자기가 계발할 수도 없고 얼마만큼 됐는지도 모르죠. 이건 남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알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잖습니까?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한 번 죽어야 하고, 둘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또 죽어야 하고, 또 둘 아닌 나툼을, 일체 만물만생의 나툼을 알기 위해서 또 죽어야 한다."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실험해 보려면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냥 실험해 보는 거지, 어떻게 말을 바깥으로 하고 실험을 합니까?

그리고 이제 도반들끼리 모였을 때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돌아갈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첫째, 당신에게 누가 되고 둘째는, 스님들에게 누가 되고 셋째는, 온 부처님의 그 뜻에 누가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속으로 자기가 실험하고 체험하게끔 일러 주고 하는 것이 도반의 도립니다.

인공 임신중절에 대해서

질문 저는 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인공 임신중절에 대해서 스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육도 윤회(六道輪廻) 중 인간으로 태어나는 과정인 태아의 단계에서 행해지는 임신중절은 법적으로 허용된 인공 임신중절 다섯 가지와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자율적 인공 임신중절이 있는데, 경전에 의하면 인공 임신중절을 하는 것은 큰 죄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시대에서의 이에 대한 스님의 고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 사람이 좁게 생각하면 한없이 죄가 되고요, 넓게 생각하면 죄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그 태어난 사람을 이미 떼려고 했다면 거기에 태어나도 그렇게 큰 사랑을 받지 못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욕을 할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그럴 바에는 얼른 옷을 벗고선 좋은 데로 천가가 됐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중절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 공부를 배워야 그냥 그 고생할 사람은 고생 덜하게 해 주고, 또 태아가 잘못돼서 병신으로 나온다 이럴 때는 빨리 천도해서 다시 좋은 결과를 보게 하는 것이 무명을 다시 씻고 나오게끔 하는 것이고 또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한 사람에게는 죄가 붙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또 살려 준 자체도 없고 죄 될 자체도 없고 이렇지마는 그런 도리를 모르는 사람에 한해서는, 즉 무의 세계인 정신세계의 50%를 모르는 사람에 한해서는 죄가 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도리를 충분히 알아야 하겠다는 얘기죠.

머릿속에 남은 것이 없는데

질문 큰스님께서는 여러 불쌍한 중생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자상하게 공부하는 방법을 일러 주셨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과연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 공부에 대한 것이 머릿속에 남은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스님 가르침 이외에 저희들이 지침이 될 만한 경전이나 서적을 본다든지 하는 노력을 해도 되는지요.

답변 진짜로만 믿으신다면, 자기가 지금 말하고 듣고 보고 행하고 가는 그 자체를 잘 뒤집어서 자기를 보실 수 있다면, 진짜로 지혜로워야만 자비도 나오고, 자비할 수가 있어야만 내가 둘이 아닌 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루만지는 것도 자기요, 어루만지는 걸 받는 자도 자기요,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무슨 까닭이냐 하면, 내가 항상 얘기해 드리죠. 전깃줄 하나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마저 쥐고 행하는 자, 즉 말하자면 어루만져 주는 자와 만져지는 자의 마음과 마음이 둘이 아닙니다, 서로 믿고 말을 할 때는 말입니다. 믿지 않든 믿든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게 되면 이게 하나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깃줄과 줄이 한데 합쳐지면 그냥 불이 들어올 뿐이지 합쳤다 안 합쳤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루만지는 자비로서만 베풀고 지혜는 가르치지 않는구나. 또 경전도 보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러지 마시고요, 경전을 보되 경전이 나를 보지 않게 하고 내가 경전을 보지 않게 볼 수 있다면, 그거는 올바로 경전을 보는 것입니다. 경전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보되 보지 말라 이 소리죠. 내가 경전을 보고 또 경전이 나를 본다면, 글자 풀이만 해 나가는 거지 내면세계의 그 백지에 들어 있는 천차만별의 뜻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책을 보는가. 네가 보고 있잖아. 그러니 나는 그냥 봐주는 겉 눈과 겉손 이런 걸로만 심부름해 줄 뿐이지, 보는 건 주인공 네가 봐!'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말을 안 해도 자기가 보는 거죠. 그런데 껍데기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고 그 글자 풀이로만 나가니까 이거는 경을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을 보는 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없는 자기가 경 아닌 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소립니다.

> 내가 이렇게 놓는다고 해서
> 잘될까, 못될까 이런 건 걱정하지 말아야
> 이게 진짜 정통으로 놔지는 거죠.

관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가고 있는데

질문 저는 언제 어느 때나 항상, 앉으나 서나 길을 가거나 일을 하거나 껌을 하나 씹더라도, 커피를 한잔 마시더라도 항상 관하고, 그렇게 관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 전부터 항상 스스로 제 마음자리를 계속 지켜보면서 가는데 이게 의식적일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자동으로 그냥 그렇게 항상 스스로 지켜보고 가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평온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할 때나 길을 걷거나 집에 앉아 있거나, 큰스님 생각을 한다든지 우리 도반들 생각을 한다든지 지원의 스님들 생각을 한다든지, 하여간 마음공부에 관해서만은 자동으로 항상 연결돼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바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할 때는 일에 전념해야 될 거 같은데 그게 안 되고 그냥 한다는 의식 없이 자동으로 그냥 연결되어 돌아가거든요.

답변 24시간을 일을 하는데요, 주인공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24시간이 지나서 주인공 생각이 났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그게 24시간을 공간을 두고서 띄어졌나요? 그냥 무시(無時)거든, 무시. 무심(無心).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24시간이 있는 거지, 24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초월해서 그냥, 그 시간에 생각났으면 그 시간에 난 거지 24시간이 왜 거기 붙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24시간이 붙기 이전에, 또 관하는 게 생각이 났든 안 났든 그대로 뿌리와 싹이 같이 붙어 있는데 무슨 찾고 안 찾고가 있어요?

그러니 일을 하는 데 그 일에 몰두를 하는 것도 바로 주인공을 믿고 찾는 거예요, 그게. 일에 몰두를 했다 해서 주인공을 생각지 않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그렇게 몰두하게 만들었으니까 주인공이 한 거예요. 주인공의 시자일 뿐이지, 움죽거리게 했을 뿐이지 뭐가 주인공이 아니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다하고 움죽거리는 일거수일투족이 거기서 움죽거리게 하니까 움죽거리는 거지, 만약에 그 영원한 자기의 근본이 빠진다면 자기는 송장이 되는데 뭐 움죽거릴 게 있어요? 안 그래요? 자기 지금 눈 뜨고 이렇게 눈짓, 고갯짓하는 것도 자기 영원한 근본이 살아 있으니깐 그게 있는 거지, 그게 빠지면 송장이 돼서 그냥 눈 감고 있을 걸요, 아마.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눈 하나 뜨고 보는 것도 감사하고, 보게 된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래서 자기를 형성시킨 자기한테 감사할 줄 모르고, 물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바람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모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주인공이 자기를, 이 몸을 이렇게 내놓기 위해서, 형성시키기 위해서 지수화풍으로 된 정자 난자를 빌려서, 또 지수화풍에서 낳게 하고 지수화풍을 또 형성케 해서 이렇게 삶의 보람을 가지려고 자기를 형성시켰는데, 주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산을 했는데, 주인이라는 자체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주인이 하고자 하는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자기 껍데기가 자기라고 외치면서 그냥 돌아치니깐 이 속의 주인공, 참자기는 어이가 없을 겁니다, 아마. 자기가 그렇게 한번 움죽거리고 살아볼 양으로 형성시켰는데 핀트가 자꾸 다르게 가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외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종자이며 뿌리다. 불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대로 내가 생각이 났든 안 났든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대로 있는 것이죠. 있으니까 믿는 거고.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뿌리로 인해서 싹이 산다. 가지와 잎새가 푸르르게 되는 것도 바로 내 뿌리로 인해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 감사하구나. 봄이 오면 꽃도 피고 또 열매도 맺고 하니 참 감사하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갈 거고, 과거에도 그렇게 이끌어 왔을 테니 참 고맙구나. 이건 그냥 자연적이지 없는 거를 끌어다가 찾으려고 하고 없는 거를 끌어다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냥 그대로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이 세상에 났으니까 있는 거다. 그러니 그대로 무조건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불자 세상보기

진정한 올림픽 정신, '인류애'



선업 스님
봄 행복치유 센터 원장

리우올림픽이 17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4년 뒤의 도쿄 대회를 기약하며 마무리되었다. 전 세계 206개국, 1만903명이 출전해 자국의 명예를 위해 열전을 펼쳤던 이번 올림픽은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새로운 세상(New World)'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지를 선수들을 통해 보여주었다.

그 첫 번째는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박상영 선수의 경우이다. 펜싱 종목 에페 결승에서 2라운드가 끝날 때 9-13으로 뒤져 패색이 짙었으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자기신뢰의 주문을 자기 자신에게 보냈다. 그리고 10-14에서 연속 5점을 획득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역전승을 일궈냈다.

박상영 선수를 보면서 경전 속의 인물인 주리반특 생각이 났다.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둔한 기억력의 소유자였던 그는 "먼지를 털고 때를 없애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빗자루로 마당을 쓸면서 반복한 뒤 결국 깨달음을 얻어 주위에 놀라움을 선사한 인물이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정진하고 정진하면 그 노력은 반드시 좋은 결실로 돌아온다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두 번째는 경기 중 부상을 당한 선수를 부축하는 '놀라운 동료애'를 보여준 선수들이다. 리듬체조 경기 중 부상을 당한 조지아 살로메 파자바가 예선 종료 후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방송에 잡혔다. 이 장면이 가능 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 선수들이 그를 돕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자 110미터 허들 예선에서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 격려했던 같은 조의 헝가리 선수, 여자 800미터 예선에서 넘어진 동료를 부축해 들어온 선수, 더불어 휠체어까지 부축하며 진정한 동료애의 정신을 보여준 선수들의 모습은 큰 감동을 주었다.

경전에 보면 '상불경보살'이야기가 나온다. 상대방의 처지와 상관없이 상대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찬탄한, 연민을 실천한 상징적 인물이다. 이렇듯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을 씻어주는 행동은 남의 아픔에 무관심한 세상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고 새로운 세상에 눈뜨게 한다.

새로운 세상을 여는 올림픽 명장면 세 번째는 함께 기뻐하는 선수들의 모습이다. 양궁 준결승에서 패배한 기보배 선수가 승자인 장혜진 선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모습은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는 '수희(隨喜)'의 정신을 보여준 멋진 장면이었다.

[유마경]의 〈관중생품〉에 '진정한 기뻐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보고 진정으로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 그것은 보살의 사무량심 중에서 기뻐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이 마음가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회한을 가지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는 말씀이 이어서 나온다. 결국 이 순간 온전히 상대방의 기쁨과 함께 할 때 맑고 밝은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새로운 세상을 위한 올림픽의 장면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폐회식에서 모든 참가자들이 서로 서로 팔짱을 끼고 돌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었다. 서로를 인정하고 수용하여 권리적으로 동일함을 나타내는 올림픽 상징 속의 연결된 다섯 개의 고리처럼, 언어, 인종 등의 차별적 요소를 뛰어 넘어 본래 연결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너무 기뻤다. 서로 기쁨을 함께 나누며 메달의 유무와 색깔에 상관없이 얼싸 안고 환호하는 장면은 우리가 열어야 할 '새로운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새로운 세상은 '한 송이 꽃'으로 서로를 자애로써 존중하고 연민으로 공감하며 함께 기뻐함으로 하나 되어 평등하게 사는 열린 세상일 것이다. 그런 세상을 몸소 보여준 이번 올림픽 참가자들에게 고마움의 박수를 보낸다.

특별 기고

평화유지와 종교의 역할을 생각하며



여정 강건욱
레바논 평화유지단 법사

자랑스러운 한국의 동명부대가 '레바논에 평화를, 조국에는 영광을'이라는 기치 아래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9년간 평화 유지 임무를 수행 중에 있다.

레바논은 지리상으로 '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시리아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현재 시리아 내전의 영향으로 나라가 불안정하고, 이스라엘과는 레바논 내의 팔레스타인 난민들과 무장단체들로 인해 갈등과 긴장이 상존한다.

이렇게 종교가 다른 국가 간의 반복되는 테러와 전쟁 속에서, 과연 종교와 평화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그 관계를 생각하게 된다.

오늘날 중동지역의 모든 갈등과 불화의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로 보여 지지만, 그 근본원인이 종교 간의 문제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슬람과 기독교가 혼재되어 있는 레바논과, 유대교의 이스라엘간의 모든 갈등의 원인 역시 결국 '종교의 문제'에서 비롯한다. 레바논이 위치한 중동지역은 세계 그 어느 곳 보다 종교에 민감한 곳이다. 레바논을 '이슬람 국가'라고 정의 할 수는 없으나 주변국을 비롯한 국가의 구성은 이슬람 사회가 다수인 이슬람 권역에 속해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가 이슬람 세계의 사회, 정치적인 모습들 중 이해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에는 종교를 삶의 원칙으로 삼는 이슬람식의 사고방식에 따라 이해해야한다. 이슬람이 단순한 신앙체계만이 아니라 종교와 세속 모두를 포괄하는 '신앙과 실천의 체계'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이슬람 사회의 제도, 관습, 종교, 문화를 볼 수 있어야 하며 고정적 시각과 편견의 잣대를 버리고, 그들이 처한 환경과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상대주의적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 볼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종교는 평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종교는 평화적이어야 옳다. 모든 종교의 목표가 반드시 평화는 아니지만 인간이 추구하는 내적인, 외적인 평화 그리고 개별 종교가 갖는 열반과 구원이라는 핵심가치 역시 평화에 기반 한다. 종교와 폭력은 병존하거나 공존 할 수 없다. 따라서 테러와 전쟁과 같은 폭력의 행위는 어떤 경우, 어떤 이유에서든지 종교적이고 평화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어떤 종교 던지 그 종교가 진리를 추구하고 구현하는데 있어 평화의 방법이 아닌 전쟁과 테러와 같은 폭력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결코 종교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리적인 폭력으로 종교의 진리는 보여 질 수 없으며, 또 증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종교는 이러한 폭력에 맞서 '평화'라는 인류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 물러서지 말고 당당히 서 있어야 한다. 또한 종교 본연의 진리 추구와 가치 실현을 위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이곳 레바논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폭력과 전쟁들이 진정 종교를 위한 일인지, 그리고 종교에서 가르치는 가치를 실현하는 일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그리고 종교의 허울을 쓰고 자행되는 개인과 국가, 또는 민족의 이기적 이익을 위한 테러와 전쟁을 종교의 진정한 이름인 '평화'로 상쇄시켜 나가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종교의 길이다.

이곳 UNIFIL(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는 38개국의 군인들이 파병되어 있고, 그 안에는 다양한 종교인이 공존하고, 또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다. 모든 인간이 종교를 믿거나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이해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인간은 종교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평화'라는 인류의 보편적이고 주요한 가치를 위해 임무수행 하고 있는 국제연합의 평화유지 군인들은 더욱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각 사회의 정치, 종교, 문화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사회가 처한 특수한 환경과 역사적 배경을 인지하고 그 안에서 그들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대주의적 시각과, 어느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적인 시각으로 이른바 '평화를 유지하는 군인'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다한다면 분명 레바논과 세계 평화에 작은 기여를 하는 것임을 믿으며 글을 맺는다.

社說

국민은 '호국의승의날' 제정 원한다

조계종이 8월 17일 '호국의승의날은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는 자료집을 발간하고 본격적인 제정 활동에 나섰다. 조계종은 2014년 6월 25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위원장으로 '호국의승의 날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정을 위한 연구 및 자료 수집 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싸늘하다. 반대의 논지는 의승군 기념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것과 유사 기념일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지는 맞지 않다. 이미 호국불교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불교계에서 진행한 기념일 서명운동에도 7만여 명이 동참했다. 기념일 제정으로는 이례적이다.

이와 함께 유사기념일로 꼽히는 의병과 달리 의승군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종교계에서 조직적으로 참여한 경우다.

그동안 의승군의 활약에 대해 역사적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조헌과 함께 금산전투에 참여했던 영규대사와 800여 의승군들은 승려라는 이유로 700의총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조선 조정은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등 승군의 공훈을 인정해 대흥사 등에서 국가제향을 지내도록 했다. 하지만 이 제향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단절됐다. 이후 국가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저조한 사이 의승에 대한 교육도 약화되고 있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 6종 중 의승장의 이름을 본문에 소개한 경우는 단 1종(비상교육 교과서)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불교의 특성을 이야기하라면 절대로 뺄 수 없는 것이 '호국불교'의 전통이다. 호국불교로 대변되는 호국사상은 불교를 넘어 한국인들의 마음 속에 녹아있다. 호국의승들을 기리는 일은 불교만의 일이 아닌 국가차원의 중차대한 사업이다.

김영란법 핵심은 '不正'

오는 9월 28일자로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적용대상과 범위 등을 두고 세간의 관심이 높다. 이에 따라 조계종이 8월 22일 종교계 최초로 관련 특강을 열고, 종교인들이 유의해야할 내용을 톺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강의 핵심은 스님들이 신도의 고충을 공익목적에서 대신 전달하는 민원활동을 벌일 때 김영란법 예외조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재나 인권 분야 등에서 공직을 맡고 있는 스님들이 많아 이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란법은 청탁과 관련된 대가성 금품이 오갔을 때 처벌하는 현행법과 달리 금품 없는 부정청탁 역시 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 언론사 임직원 등 공직 소임을 맡은 스님들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청탁한 자에게 부정함을 알리고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신도들 역시 스님에게 한 자신의 부탁이 부정청탁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한다.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부탁이라면 서로 조심하고, 필요하다면 제3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청탁해야 법의 저촉을 피할 수 있다.

김영란법의 대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 법의 방점은 바로 '부정(不正)', 즉 '바르지 않음'에 있기 때문이다. 어떤 행위가 부정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불교신자라면 누구나 이해한다. 팔정도(八正道)의 실천을 강조하는 불교에서 부정은 곧 '악업'이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이제부터라도 암암리에 이뤄졌던 그릇된 부탁들이 사라지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www.hyunbulshop.com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대한불교 나라사랑 연합협의회

세계평화를 기원하고 지구촌 빈민촌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위한 지구촌 세계불교
최고의 지도자와 한국의 40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 지도자들의 법석

世界佛教 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대법회

2016년 10월 5일 수요일 / 국회의원 회관대강당 / 오후 1시 30분

■주 최 :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세계 불교도들의 법왕이신 전계대화상 : 우 꾸마라 사야도

교수 아사리 : 에인다빠라 삼장법사. Dr 바라 사야도
갈마 아사리 : Dr 목탁 대승정 짜익티오성 사야도

법왕 Biodata of the Chairman of the State Samgha Mahanayaka Committee,
The Most Venerable Dr. Bhaddanta Kumarabhivamsa
(Abhidhajamaharattaguru, Aggamahapandita, Abbidhaja-aggamahasaddhammajotika)

❶ BHADDANTA EIN DA PA LA TIPI TAKA DHARA TIPI TAKA KAWI DHA
TIPI TAKA DHARA DHAMMA BHAN DAGARIKA
❷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Dr MOK TAK
❸ Biodata of the Chairman of the Yangon Division Sangha Nayaka Committee,
The Venerable Dr.Bhaddanta Eikdi Bala (Aggamahasaddhamajotikadhaja, Ph.D.Buddhism)
❹ AGGA MAHA SADHAMA JOTIKADHAJA BADDANDA NAGA DIPA



미얀마 정부 경제특보 보시의 화신 Dr Khin Shwe

한국본부 三師 교수아사리 : 현담 | 갈마아사리 : 혜정 본좌스님 외 108 證明團
10월 4일 각 정당 의원들과의 오찬 | 부평역광장 미얀마타운 명명식 축하법회

합동 建幢(건당) 의식 및 품수의식 봉행

■일시 및 장소 : 2016년 10월 5일 수요일 /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 의식 봉행 1시 30분
관리위원장 : 성각 / 조직위원장 : 원명 / 의전위원 : 성봉스님 외 9명
건당. 품수 심사위원회 의장단 : 혜선. 무상. 진성. 혜관. 심오. 송몽. 법산. 도명, 법현
세계불교지도자 합동금강계단 대법회 추진위원 : 이종관. 대공. 대도

400여 종단 한국불교 高僧 및 元老 큰스님 !

법왕님의 상좌 건당 및 품수 의식
3師 108 證明團에 큰스님들을 공개적으로 추대하여 모시고자 합니다.

주 최 : 대한불교 나라사랑 연합협의회 세계 평화 기원 대법회 봉행위원단
사단법인 : 세계불교법왕청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주 관 :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중앙정부
후 원 : 국회정각회 / 동국대학교총동문회 / 용성 대각사상선양회

총괄본부장 大僧正 목탁 (법왕청 법왕보좌 비서실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 신영빌딩 3층 (삼봉로 68) • 문의 및 접수 02)733-5665. 010-3618-6061